

부산 크리스천문학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제43호 | 2025년 상반기

권두에세이

송정우 _ 문인들이여, 문학을 하자

특집 | 나의 삶, 나의 문학

송순임 _ 나의 글쓰기

전섭태 _ 당신은 왜 문학을 하고 있는가

조현숙 _ 가지 않은 길

권갑숙 _ 퍼즐 외 1편 (디카시)

올해의 작가

최방식 _ 그리운 옛집

기획특집 | 대구기독교문인회 초대 작품

신인상

유문경 _ 나머지 길은 너를

위해 가려네 외 4편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Busan Christian Literature



꿈꾸는 장어

남 순 동화집

- 2004 <아동문예> 동화, 2013 <문학예술> 시로 당선 되어 문단에 나왔어요.
- 동화집 『무지개나라 화가아저씨, 『물고기 아파트 꿈꾸는 장어를 펴냈어요.
- 그림동화 빨강 연필, 네가 딱이야! 『잡기 놀이를 공저했어요.
- 동요 「골목길」 「단풍나무의 꿈」 「고래 마을」 「해바라기 일기장」 「윙크 윙크」 등의 노랫말을 지었어요.
- 제6회 남제문학 작가상, 제21회 부산문학상 우수상 수상을 받았어요.
- 현재, 부경대학교에서 동화를 연구하며 그림동화와 창작동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 E-mail : nssky99@naver.com



꿈꾸는 장어는 필리핀 민다나오 바다에서 갓 태어난 장어들이 우리나라 강에 와서 성장하여 다시 자신이 태어난 바다로 돌아와 산란하는 장어의 일 대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남순 작가는 장어의 그 회유 과정을 어린이의 눈 높이에 맞춰 엄마 찾는 여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어린 장어에게 엄마는 오로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은 꿈을 키웁니다. 하지만 장어의 긴 여행은 순탄치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숨을 노리는 그림 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어들은 슬한 시련을 겪어내며 그 그리운 꿈을 모성애로 성숙시켜 태어난 바다에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칩니다. 바로 꿈꾸는 장어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련도 감내해 내야 한다는 사실을 어린이 독자들에게 의미 있게 들려주는 동화입니다.

- 김용희 (동시조시인 · 아동문학평론가)

부산
크리스천문학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제43호 | 2025년 상반기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여름날

메리 올리버

누가 세상을 만들었을까?
누가 백조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검은 곰은?
누가 매뚜기를 만들었을까?
바로 이 매뚜기, 방금 풀밭에서 튀어나와
내 손바닥의 설탕을 먹고 있는 이 녀석을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턱을 움직이며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이 녀석을
이제 매뚜기는 연한 색 앞다리를 들어올려
얼굴을 철저히 닦고 있다
그러고는 재빨리 날개를 펼쳐 멀리 날아간다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풀밭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는지
어떻게 한가롭게 노닐며 축복받는지
어떻게 들판을 산책하는지는 안다
그것이 내가 오늘 하루종일 한 일이었다
말해 보라, 내가 달리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결국엔 모든 것이 죽지 않는가, 그것도 너무 일찍?
말해 보라,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당신의 하나뿐인 이 야생의 소중한 삶을 걸고
당신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메리 올리버(Mary Oliver), 여름날(The Summer Day)/ 류시화 옮김



메리 올리버(1935-2019)

미국 오하이오 출생. 열네 살 때 시를 쓰기 시작해 자연과의 교감이 주는 경이로움을 단순하고 빛나는 언어로 노래한 시인으로 평가받으며 풀리처상, 전미도서상을 수상. 『천 개의 아침』 등 26 권의 시집, 『완벽한 날들』 등 7권의 산문집 발간.

올해의 작가 _ 최방식



- 부산 남구 출생
- 《부산크리천문인협회》 2017년 등단
- 《문학도시》 2018년 등단
- 부산크리천문인협회 부회장
-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수필문인협회 회원, 남구문인협회 회원
- 수필『함께 뜨는 숟가락』
- 향토지『용당동의 빛과 어둠』

그의 수필의 제재는 참신하고, 사소하고 평범한 삶에서 그것을 잘 선택하여 작품화 하였다. 내용은 그의 성격대로 꼼꼼하게 전개하였고, 글의 서술은 감성적이고 은유적이다. 또한 그의 글은 사람이나 사상을 비판적이거나 날카롭게 평하지 않은 인간적이어서 좋다.

- 공기화 교수의〈해설〉중에서 -

정기총회



상반기 월례회



출판기념회



대구기독교문인회 방문

부산 크리스천문학

Busan Christian Literature

제43호 | 2025년 상반기

권두에세이

송정우 | 문인들이여, 문학을 하자 9

특집 - 나의 삶, 나의 문학

송순임 | 나의 글쓰기 14

전섭태 | 당신은 왜 문학을 하고 있는가? 20

조현숙 | 가지 않은 길 26

권갑숙 | 퍼즐 외 1편 (디카시) 33

올해의 작가

최방식 | 그리운 옛집 41

작품 평 공기화 | 사랑의 실체를 훑쳐보다 47

기획특집 - 대구기독교문인회 초대 작품 66

시

여혁동 | 마라나타 68

이주하 | 외로운 달걀 70

조무제 | 부활의 꿈 72

허정자 |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 74

시조

리강룡 | 가을 산책 11 76

이상진 | 내려놓음, 비움 77

동시

권영세 | 생존의 권리 78

최진 | 봄의 시작 80

수필

김혜숙 | 위로와 감사, 기도 81

신재일 |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86

회원시

감윤옥 | 나의 혈루증 외 1편 92

강위석 | 채석강 94

곽병길 | 부활 외 1편 96

권영숙(어미새) | 바다 외 1편 99

발행인 : 송정우 / 주간 : 박정선 / 편집장 : 양윤형 / 편집위원 : 공기화, 권갑숙, 명인숙, 송순임, 송정우, 조현숙, 최방식

김경희 오월의 노래 외 1편	101
김복단 등불을 끄고 외 1편	103
김숙희 내게 아침이 있다면 외 1편	105
김혜영 감물에 물든 엽서 외 1편	107
류정희 성금요일에 쓴 시 외 1편	109
박인자 굴뚝속의 담쟁이들 외 1편	113
배혜숙 목련 외 1편	115
손정란 시린 봄날 외 1편	118
송정우 은혜 외 1편	121
신 선 춘분 외 1편	123
신현숙 꽃잎에 쓰는 편지 외 1편	126
양왕용 예루살렘에서의 보름 외 1편	130
양윤형 안부 외 1편	134
이가연 그땐 몰랐지 외 1편	136
이경옥 눈 내린 승학 산 외 1편	138
이귀선 눈물 외 1편	141
이들자 동백나무 식탁 외 1편	144
이선화 몽돌 외 1편	146
이승훈 하루살이 외 1편	149
임병주 별처럼 살고파라	151
정명진 고난이라는 터널 끝에는 외 1편	152
정연원 아름다운 이별 외 1편	156
최귀례 앙리마티스의 눈물 2 외 1편	160
최만공 오월의 나무 외 1편	163

시조

김민주 주님 주신 달란트 치유은사 외 1편	166
모정희 쓰르라미 울던 날 외 1편	168
윤평원 언약의 신뢰자 갈렙 외 1편	170
윤현수 포도원 품꾼 외 1편	174
임병주 당신과 나	176
허성욱 남천동 벚꽃 구경 외 1편	178

수필

강신구 반지	182
공기화 다섯 악동을 떨어뜨리려고	186
구애순 천사는 세상에서 고생한다	191
김은희 봄날의 노을 냄새 외 1편	197

제43호 | 2025년 상반기

김해용 21년 만에 한 사람 전도하고 농촌을 떠나오다	202
노장현 나무들의 변화	209
명인숙 신앙의 봄을 만나다	214
성윤자 모심기	220
이준우 배움의 날개	225
전진경 그때의 나는	228
조광순 하루 여행	233
한인환 여우가 나타났다	237

아동문학

박경영 하늘 비행기 처음 타던 날 외 1편	248
김복임 산을 넘어온 도롱뇽 완벽	252
남 순 열매의 연극	260
이효정 가방의 무게	269
정현옥 두꺼비의 눈빛	277

소설

안유환 빠드렁니 소녀	282
---------------	-----

신인상

유문경 나머지 길은 너를 위해 가려네 외 4편	306
• 당선소감	313
• 신인상 심사평 박정선	315

부 록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4)	318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연혁	319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원 명단	338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	341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5년 임원조직	349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부	350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주소록	351
2025년 회원 게시판 동정	357
편집후기	358

문인들이여, 문학을 하자



송정우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 잠언 25장 11절

지난달 일이 있어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일정 가운데 짬을 내어 알고 지내는 일본 작가와 출판사 편집장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작가의 안내로 일본의 국민시인 다나카와 순타로의 생가를 돌아보고 그분이 즐겨 찾았다는 이탈리아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늘 앉으셨다는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타로 시인은 우리나라 신경림 시인과 친분이 있어서 두분이 일본과 한국에서 두 차례 대담의 이벤트를 갖고, 5행의 짧은 시 주고받기를 하여 책으로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콜롬비아의 노벨상 수상 작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백 년 동안의 고독』이란 소설에서 콜롬비아 어느 도시 한 집안의

백년사를 통해 정쟁과 재해와 전쟁, 그리고 변화무쌍한 일상을 현실적이면서도 신화적으로 그렸고, 이 작품은 미술적 리얼리즘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부산의 대표적 소설가인 박정선 작가는 그의 화제작, 『백 년 동안의 침묵』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 대의를 위해 살아간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일대기를 그리며 조국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가문의 희생을 조명하였습니다.

작가는 이래저래 고독과 친하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93세를 일기로 작년 말 별세한 다니카와 순타로 시인은 21세에 첫 시집 『이십억 광년의 고독』을 출간하였습니다. 전후 일본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시를 발표하고 꾸준히 장르를 넓혀 거대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시집 제목과 동일한 시 『이십억 광년의 고독』에서 “만유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고독의 힘이다. 우주는 일그러져 있다. 따라서 모두는 서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고독을 품고 살고 있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독의 힘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에서 비롯되어 모두 서로를 원하게 합니다. 한편, 협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감을 받는 가운데 구원과 사랑의 기독정신을 기저에 둔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그

러져 있는 세상과 우주”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카와 순타로 시인과 신경림 시인이 주고 받은 시 가운데 다
음과 같은 화답시가 있습니다.

신문에서 눈을 떴고 텔레비전 소리도 끄고
뜰에 있는 단풍나무의 어린잎을 바라본다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것을 외경(畏敬)하는 것과
사람의 손이 닿은 것을 무서워하는 것
외경심을 잃어버릴 때 공포가 생긴다

— 다니카와 순타로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것은 갈수록 많아지고
사람의 손이 닿는 것은 갈수록 두려워진다
세상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서
오래 서 있기만 하는
늙은 미류나무가 오늘 따라 서럽다

— 신경림

두 시인은 '사람의 손에 닿는 것과 닿지 못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사유하며, 단풍나무와 미류나무를 매개로 각기 다른 서정을 노래했습니다. 요즈음은 이런 일이 드물지만, 우리의 옛 선현들이 이러한 문학 풍류를 널리 즐겼습니다. 조선 중기 선비 유희춘과 그의 부인 송덕봉이 주고 받은 화답시는 서로를 존경하며 배려하는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우리의 가슴에 찡하게 와 닿습니다. “눈이 내리니 바람이 더욱 차가워 / 그대가 추운 방에 앉았을 것을 생

각하노라 / 이 술이 비록 하품이지만 / 차가운 속을 따뜻하게 데워
줄 수 있으리”라는 유희춘의 시를 받은 부인은 “국화잎에 비록 눈
발이 날리지만 / 은대에는 따뜻한 방이 있으리 / 차가운 방에서 따
뜻한 술을 받으니 / 속을 채울 수 있어 고맙지요”라고 화답하였습
니다.

이것이 문학의 풍류요 즐거움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다시 만
난 작가는 가톨릭 신자로 개신교인인 나와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
이 자신의 작품 속에 어떻게 용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여러 잡지에 정기적으로 시를 연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가 좋고 문학이 좋아 매달 한 번 ‘포에트리 살롱
(Poetry Salon)’을 주재하여 다양한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웃음과 눈물의 시’ 극장을 연출하는 등 문
학을 생활화하는 작가입니다.

나는 “문학을 한다”나 “시를 한다”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시
를 써서 문예 예술지에 발표하고, 문인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만이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단 정치에 들어가
영향력 행사를 도모하는 것은 참으로 부차적인 일입니다. 삶 가운
데 여러 상황 속에서 시 자체를 즐기며 생활화하고 문학의 풍류를
누리는 것이 작가로서의 특혜일 것입니다. ‘시인들이여 시를 하자’
‘문인들이여, 문학을 하자’.

특집

나의 삶, 나의 문학

- 송순임 | 나의 글쓰기 - 꿈꾸는 것처럼
- 전섭태 | 당신은 왜 문학을 하고 있는가
- 왜 글을 쓰고 있는가
- 조현숙 | 가지 않은 길
- 권갑숙 | 퍼즐 외 1편 (디카시)

나의 글쓰기

- 꿈꾸는 것처럼

송 순 임

누군가 나에게 글쓰기를 권했다. 내심 듣기 좋은 말이었지만 막상 그런 권유의 말을 종종 들을 때면 겁부터 났었다. 글이야 민망하지 않을 정도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시를 써본다거나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모 신문사의 신춘문에 공모가 유심히 날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저 펜을 들었다. 사실 나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는 유형이 아니다. 몰래 응모해보고 떨어지면 아무도 모를 테고 당선되면 나에게 글쓰기를 권한 이의 안목에 감사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리라 마음먹었다.



| 송순임 |

서울 마포출생 아동문학, 시인,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정보방송학 전공), 1997년 〈시와 시론〉 등단, 시집 『능소화가 피는 골목』, 동시집 『봄비와 은행나무』, 칼럼집 『터놓고 하는 세상야기』, 한국문인협회회원, 국제펜한국회원, 한국 아동문학회이사, 부산문인협회이사,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이사, 전. 부산여류문인협회회장, 부산남구문인협회회장, 제2회 문학도시작가상.

아뿔사, 심사평에 이름을 올리며 최종심에서 밀려났다는 글과 마지막에 마무리가 작위적이라는 따끔한 질책이 지금도 내 가슴에 선연하다. 이전에 글쓰기를 해두었던 동화를 신춘문에 마감 시간에 쫓겨 서둘러 마무리한 것을 들켜버린 것이다.

다행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국민시인 박화목 선생님께서 ‘거 괜히 신춘문에 병에 걸리지 말고 그렇게 쓰면 돼, 그만하면 됐어’ 라는 말씀에 《시와 시론》을 통해 등단하였고, 동시를 쓰라고 권하셨다. 박화목 선생님은 국민시인이다. 가곡이나 동요로도 잘 알려진 『보리밭』 『과수원길』 등 시나 동시 등의 경계를 두지 않고 주옥같은 아름다운 문학작품을 많이 남기셨다. 고향이 황해도라 우리 부모님과 같은 실향민이셨고, 부산으로 피난 와서 사셨던 기억 때문인지 남포동 자갈치 영도 등에 대한 향수가 남다르셨다. 영도에 사는 딸집에 다니러 가끔 부산에 내려오실 때면 아동문학가인 최 선생님과 함께 자갈치에서 곰장어에 맥주를 드시곤 했었다. 기분이 좋아지시면 남포동 변화가를 셋이서 함께 거닐었고 향촌, 귀빈 등의 찻집에서 짧은 날을 회상하시곤 했다. 나도 인생을 한참 살다보면 저런 날이 올까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얼마나 가까운 미래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늘 온화하게 미소 짓던 모습 뒤로 느껴지던 쓸쓸함.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때부터인 것은 나와 같은 동년배라면 거의 비슷한 경험일 것이다. 처음 엄마

손 잡고 입학하던 날 한 보따리의 교과서를 두 팔로 안았던 그때 기억은 8살 인생 최고의 목직한 선물이었다. 그날부터 가가 거저를 배웠고 얼마 되지 않아 그림으로만 읽어내던 교과서 안의 내용은 글자를 알아가는 기쁨과 함께 끝없는 상상과 재미를 나에게 안겨줬다. 특히 국어와 도덕책 속의 주인공에게 동화되어 깊게 빠져들었고, 글자 한 자도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읽곤 했다. 어린 날 나에게 이런 큰 재미를 주던 책 읽기에 습관이 하나 붙었다. 책을 펼치기 전에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방 벽에 기대앉아 두 다리를 뻗고 책을 올린 다음 책표지와 제목을 한참 동안 보면서 내용을 상상하는 일이었다. 첫 장을 펼칠 때부터 벌어질 장면들의 상상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도 소리가 나면 이야기가 사라질 것 같아 조심조심 들어 올려 넘기곤 했다. 나에게 책 읽기란 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치러야 하는 성스러운 예식과도 같았다.

지금도 책을 펼치기 전 이 습관은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나에게 이런 첫 경험을 있게 한 그 유년 시절의 기억이 글쓰기의 원천인지 모르겠다. 책 속에서 펼쳐지는 세상은 나에게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신기했고 미지의 세계로 느껴졌다. 교과서 안의 세계는 나에게 상상과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히 넓고도 깊었다. 부산으로 전학을 온 후, 두고 온 유년 시절을 내내 잊지 못해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 병은 꿈으로 이어졌고 그때 그 기억들의 파편들은 흩어지지 않고 내 기억을 맴돌았다. 그 꿈을 꾸고 나면 잊지 않으려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곤 했다. 혼자 중얼거

리면서 그리는 그림지도였다. ‘내가 살던 그곳엔 수양버들이 내려다보는 우물이 있었고 우물 옆을 돌아 문방구와 작은 가게들 옆으로 탕자나무가 울타리 쳐진 학교길이 있었고. ... 일요일엔 창수랑 아이들과 어울려 함께 가던 저 높은 언덕 위에 교회당이 있었고, ...’ 포슬포슬한 흙이 깔린 넓은 공터에서 땅따먹기, 비석 차기, 숨바꼭질, 그러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라치면 술래만 남고 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렇게 똑같은 꿈은 25살이 되도록 이어졌고 기억의 창고에 깊이깊이 넣어 두었다. 그리고 드디어 난 그 길을 찾아 나섰다. 글쓰기의 시작이었나 보다.

〈꿈속의 고향〉

난 오랫동안 꾸어온 꿈이 있다.
밤이면 동그란 눈 속에서
빛이 나오는 자동차가 신기하고

낮이라도 거기 가면
문둥이가 아이 잡아간다고
철길 건너 보리밭에도 못 가고

눈이 내려 장독을 뒤덮는 겨울이면
양지쪽에 명분이와 돌이 앉아
한 뺨 되는 대바늘로 실뜨기를 했다

그런 명분이가 보고 싶어
부산으로 이사 온 뒤 매일 울었고
그곳이 환히 들여다보는 꿈을 자꾸자꾸 꾸었다.

그 꿈을 꾸지 않는 날은 허전했고
커가면서 드문드문 꾸었던 그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 되도록 이어졌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난 아이였고
명분이 친구였고 보리밭의 보리는
내 키만 하고

청아한 보리 너머 잭크와 콩나무가 살 것 같은
유년의 그 곳은 깨어지지 않는 비밀처럼
아직도 내 꿈속에 살아있다.

난 어릴 적 그곳을 두 번 찾아갔다. 학교 가는 길에 있었던 우물의 기억은 나의 길 찾기의 단초이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부터 거꾸로 길 따라 우물을 찾던 그 설레임은 빌라들이 즐비한 동네 앞에서 사라진 우물에 대한 아쉬움과 상실감으로 바뀌었고, 우물이 있었을 것 같은 자리를 열심히 찾아 주시던 그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 앞에서 난 서럽게 울고 말았다. 그 후로 다시는 같은 꿈을 꾸지 않았다. 며칠 전 40여 년이 지나 다시 찾은 그 곳을 담담하게 길 따라 걸어 보았다. 8살 아이와 25살의 청년과 마주하고 세월의 옷자락을 잡고 서 있는 그녀는 이제 울지 않았다.

고향을 이북에 두고 온 아버지는 내 유년의 그곳을 거쳐 부산에 정착해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다 부산 땅에 몸을 누셨다. 우리에게 여건 이방인처럼 낯설다고 하시던 어머니는 이제부터 이곳이 고향이라고 말씀하셨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씨가 땅속에서 굳게 자리

잡고 싹이 돋어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전 생애에 걸친 이야기다. 그 씨가 어디서 날아왔던지 땅속에 뿌리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다.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어도 언제나 발돋움하며 산 너머 아득히 눈길 가 있던 우리 가족의 디아스포라.

이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곳에 부산에 첫발을 디뎠던 그 봄날을 기억한다. 그건 아마 바람 때문이었을 거야. 흙먼지 섞여 있던 바람이 일렁이면 난 발바닥이 간지럽던 기억을 한다. 야윈 뿌리가 근질거린다. 난 펜을 들어야 해. 꿈꾸던 그때처럼.

당신은 왜 문학을 하고 있는가

-왜 글을 쓰고 있는가?

전 섭 태

‘문학을 왜 하는지’ 라는 화두를 두고 우리는 여러 모양의 문학 장르를 생각하면서 왜 많은 사람이 계속 글을 쓰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 글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중에는 직업적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지정된 분야의 글을 매일 쓰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은 글 쓰는 것이 좋아서 그냥 시간 나면 쓰고 있다.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각자의 삶을 타인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의 발로이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



| 전섭태 |

-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취득.
- 토요일단으로 약15년동안 경성대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함.
- 부산문인협회 희곡 『가면을 쓴 가족』으로등단.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희곡작업; 방송스킷드라마극, 인형극, 정극, 뮤지컬창작

고 싶다는 것. 시인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타인의 감성을 자극하여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는 문학(글)을 하는 것이 자아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모양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던가!

우리는 문학을 포함한 예술 작품이나 행위를 보면서 아름다움이나 기쁨, 즐거움이나 용기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작가의 의도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간혹 작품(문학, 그림, 조각, 무용, 영화나 연극 등)을 접한 뒤 우리의 정신세계가 멍해지면서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황폐해질 때가 있다. 그 작품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허해지고 피폐해진다든지 아니면 충동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과연 그러한 작품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개인의 주장이나 취향이 사회를, 개인을 더 황폐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과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사람의 작가 마광수씨를 언급하고 싶다. 배설문학이라는 미명하에 빠뜨려진 성애를 적나라하게 서술하면서 이를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배설문학이라고 하였다. 비밀스럽고 은밀한 사랑의 행위가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남아야 함에도 하나의 놀이 문화로 전락되고 말았다.

또 다른 개인은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 뿌

리를 내리게 하고 싶어 하는 영웅들이 있다. 내가 주장하는 철학을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나타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철학과 신념에 동조하도록 하여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이는 내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서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렇게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자신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도 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문학을 정부 주도로 관리 통제하는 행위, 즉 규제가 그것일 것이다. 구 소련의 역사를 보면 1930년대 숙청의 공포 아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수용하지 않는 작가들은 고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1962년 부터는 엄격한 검열이 시작되므로 작가의 자유는 깡그리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국가가 어떠한 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가의 자유를 무시한 행위일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노벨 문학상 관련한 예를 우리 사이에 드러내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여 감히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강 작가가 질곡의 한국사를 주제로 그들을 위로하는 작품을 써서 이전 작품과 함께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지나간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만의 시각과 잣대로 판단하여 역사적인 팩

트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작품 속에 기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는 그러한 질곡의 역사를 자의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 이는 그들을 위로한다는 미명 아래 또 다른 작가의 의도가 노출되고 말았다고 생각된다. 진정 그들을 위로하고 싶다면, 그들의 피치 못할 사정과 피할 수 없는 위력 앞에서 소시민의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심정을 순수한 마음으로 묘사하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던 선하고 다정한 심성과 그들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과의 사랑, 부부애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어야 할 것이다. 굳이 위력을 행한 저들을 악마화하여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은 동시대를 경험한 독자들과 공감할 수 없는 의도된 작가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나는 대학 진학을 연극 영화과로 가고 싶었다. 그 이유는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의 삶으로 주어진 여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연극영화과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나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체험해 보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다. 물론 그 이전 나의 일상도 또 다른 삶을 체험하고 싶어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 왔는지도 모르겠다. 독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타인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나의 인생관과 다른 저들의 삶을 체험하는 즐거움에 빠졌었다. 내가 저들이었으면 어떠한 삶을 영위했을까 하는 끊임없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도 작가가 되어서 나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얘기하고 싶었다. 그때부터 습작을 시작하였는지 모르겠

다. 그러나 가정 사정으로 원하는 공부를 하지는 못하고 말았지만, 그 후 나이가 들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해보고자 극단을 조직하고 대본을 직접 쓰고 직접 연출하면서 무대공연을 시작하였다. 경성대에서 14번의 정기공연을 비롯하여 십 칠 팔 년 남짓 즐겁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지금은 희곡 작업에 몰두하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또 다른 삶을 경험하는 즐거움에 빠져 보고 싶다.

나는 내가 살아보지 못한 또 다른 삶을 그려서 내가 그 얘기의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은 변함이 없다. 종종 카페 등, 만남의 장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혼자서 그들의 인생 스토리를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즉 저들의 삶을 가만히 상상 속에서 훑쳐보는 것이다, 그래서 작품 속에 또 다른 나의 삶을 연출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종종 유명한 작가들의 일생에 대한 전기나 자서전을 접하면서 아! 그들도 나와 같이 또 다른 자신의 삶을 문학작품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죄와 벌’ 을 쓴 ‘토스토예프스키’ 의 일생을 보면 그는 한 때 도박과 환락가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었다. 그러면서 작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황폐한 삶과는 다른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을 그려보고 싶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희랍인 조르바’를 쓴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인생관과는 전혀 다

른 삶을 살아가는 작품 속의 인물 ‘조르바’를 얼마나 흠모하면서 소설 속에 그를 그려 내었을까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즉 인생은 한 번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 재도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므로, 내가 살아가는 삶과 다른 삶을 얘기로 풀어서 그 속에서의 나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다.

가지 않은 길

조 현 숙

미국에서 음악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종신 교수라서 정년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이쯤에서 그만 퇴직을 할까 망설이는 중이라고 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직도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자유롭게 훌훌 세계 일주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데 막상 그만두려니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단다. 그러면 이미 몇 년 전에 교직을 그만둔 명퇴 경험자로서 내 생각이 궁금하다는 것이다.



| 조현숙 |

《시선》 등단(2017), 부산문인협회 편집위원, 새부산시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수상: 제31회 부산문학상(2024), 《문학도시》 작품상(2022)수상 외 다수. 시집 『미로역에서』, 『상처가 상처에게』

하지만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에 내가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문화와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았다. 다만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새길로 들어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우리는 외출할 때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식당에서 선택할 메뉴며, 물건을 살 때는 어떤 것을 고를 것인지 등,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직장이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까지, 매일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어쩌면 인생은 매번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로 이어진 여정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의 내 삶은 그 선택의 결과일 터이다.

젊은 시절 한때, 과거에 대한 회한으로 못 견디게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다.

그때 그를 외면하지 말 걸, 그때 꿈을 포기하지 말 걸, 그때 과감하게 떠날 걸, 그 일을 거절할 걸, 다른 길을 선택할 걸.....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는 안타까움에 꿈속에서도 아파하곤 했다. 그래서일까.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의 시 「가지 않은 길」이 유독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박힌 것은. 그 시를 떠올릴 때마다 내 속에는 깊은 회한이 우물처럼 고였다.

고교 시절 처음 국어 교과서에서 만난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은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인 피천득의 번역시였다. 여러 사람의 번역이 있지만 나는 프로스트를 처음 만나게 해준 피천득의 번역에 마음이 끌린다. 생전에 프로스트와의 교류가 있었던 피천득이기에 더욱 그를 사랑하고 잘 이해하지 않았을까.

가지 않은 길

피천득 역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The Road Not Taken

Robert Frost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fair,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한때 ‘순간의 선택이 십 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카피가 널리 유행한 적이 있다. 가전제품 하나도 한번 사면 십 년간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리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늘 망설였던 것 같다.

생각해 보면 내 앞에 놓였던 무수한 길 앞에서 나는 발자국이 적은 길보다 많은 사람이 걸었을 법한 길이 안전하다고 믿지 않았을까. 실패할까 두려워 택한 길은 과연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었을까.

걷다가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나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생각으로 후회하며 아파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좀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며, 놓쳤을지도 모를 무수한 기회를 안타까워했다. 가슴에 늘 강물이 출렁거리던 시절이었다.

젊어서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로 이 시를 가슴에 담았다면 요즘 다시 읽는 이 시詩는 좀 더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온다.

사실 원문을 통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자話者는 풀이 무성하고 사람이 덜 걸어간 길을 택했다고 하지만, 두 길은 똑같이 아름답고 낙엽을 밟은 흔적이 없는 비슷한 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오래 망설인 것은 두 길이 다 마음을 끌었기 때문이리라. 둘 다 가보고 싶지만 한 번 선택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어떤 사람은 이 대목에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선각자의 용

기와 결단에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나는 다른 각도에서 이 시를 읽게 된다. 어쩌면 화자는 자기 선택에 확신을 갖기 위해 좀 더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다고 의미부여를 하려 한 게 아닐까. 그러고도 그는 먼 훗날 한숨을 쉬며 말하리라는 것이다. 그때의 선택으로 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더라도 우리는 가끔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 결국,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다.

나이가 드니 이젠 인생에서 만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도 젊은 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그 치열했던 고민과 갈등도 조금은 사그라들었다.

예전에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과 후회로 아파했다면, 이제는 이 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다.

누구나 갈림길을 만나면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지도 모를 실패를 두려워한다.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는 삶이니 망설임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비록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단단히 붙들면 모든 상황이 바뀌리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내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바른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도 내 삶이 계속되는 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리라. 두 길 다 아름답고, 비슷해 보여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후회 없이 기쁘게 걸어가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중략)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퍼즐 외 1편

제각각 다른 조각들이지만
마음을 모으면 하나가 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완전한 그림이 된다
지금 너와 나도 그렇다



존재의 틈

나는 단단하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밟아서 낸 틈보다
나 스스로 낸 틈이 더 굵고 진하다
균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천천히 자란다

“피즐”이라는 제목의 디카시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피즐조각은 원래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끈기와 차분함으로 마음을 모으면 결국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채로도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자 했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갈등을 넘어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과정이 진정한 통합과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이 시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논쟁과 갈등을 주로 피했지만, 최근 들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뉴스에서 여야 양당의 대립을 바라보면서, 양측 모두 일리가 있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물어뜯는 모습을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각자 자신이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모습을 보면 결국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답답합니다.



| 권갑숙 |

-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감사, 문학중심작가회 회원
- 수필 <로렘나무를 꿈꾸며>

그런 갈등 속에서 마치 퍼즐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너와 나도 그렇다”는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결국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를 통해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자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의 작가

최방식 | 작가의 말

그리운 옛집

작품평

Christian Literature 2025

인근 공원에서 홍매가 피었다고 핸드폰에 영상이 떴다. 봄이 왔으니 꽃구경 오라는 신호다. 반가움에 홍매를 보러 갔지만 바깥은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었다.

작년 11월 첫 수필집을 출간하고 연말과 겹쳐 분주했지만 어느 해 보다도 뜻있는 한 해를 보냈다.

그날 이후 출던 겨울이 지나가고 홍매는 피었지만, 녁 달이 지나도록 글 한자 쓰지 못하고 어영부영 허송세월을 보냈다. 선배 문우 중에서 책을 한 권 출간하면 일취월장 필력이 쌓이게 된다고 독려까지 해 주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오히려 책을 출간하기전보다 더 글쓰기가 어렵고 운을 떠울 수 없으니 이 침묵의 기간이 한 겨울 동면하고 있는 것 같았다.

표고버섯의 움이 동면에서 깨어나라고 나무동치를 망치로 때리듯 나에게도 영감의 망치에 한 방 맞아야 깨어날 모양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몇 자 적어 놓고 보면 시시하고 양념을 하지 않은 반찬 같아서 나의 궁핍한 어휘실력을 탓했다. 그리고 무위도식하며 한



| 최방식 |

- 남구 용당동 출생
- 2017년 『부산크리스천문학』 등단
- 2018년 『문학도시』 등단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 향토지 『용당동의 빛과 어둠』 수필 『함께 뜨는 손가락』

량처럼 지냈다.

삼월 중순, 편집회의 때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으니 시작노트와 함께 사월 이십일까지 작품을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다.

춘삼월이 되어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준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필부들은 높은 곳에서 하명이 발등에 떨어져야 몸을 움직이는 버릇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책을 출간하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작품에 조금 눈을 떴는지 전보다 글을 보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은 사실이다. 무슨 일이든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확인하는 나로서는 이제 봄이 왔으니 받을 갈 준비를 하고 종종 걸음으로 나섰다.

나의 작품 『함께 뜨는 손가락』은 여행을 주제로 쓴 글 이외는 대부분 기장의 농장일과 나의 고향 용당동이 주 무대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아내와 만나 결혼을 하고, 이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퇴임을 했다. 퇴임을 하면서 등단을 하고 지금까지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다.

가끔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의 안부전화가 온다.

“친구야, 고향 잘 지키고 있나?”

“그래 잘 지키고 있다.” 고향 지키미 행세를 하며 웃으며 이야기할 때가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 아버지의 고향은 이북이다. 실향민인 아

버지가 고향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친구로부터 들었다.

6.25동란 피난민으로 이곳에 정착하여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유년시절을 잊지 못해 간간이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 보면 고향산천의 정경을 주야장천 누리며 살고 있는 이는 행복한 것 같다.

유년시절과 비교하면 동네의 모양과 지도가 너무나 변하여 옛 모습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살던 옛집 근처에 오랜 세월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정겨운 돌담이 남아있다. 우리 집 거실에 걸려있는 1952년 7월에 미국 중군기자 존 리치가 찍은 동네사진에도 이 돌담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다.

해마다 끈덕지게 불어오는 바닷가의 비바람과 강한 태풍을 견디며 오늘 날까지 그 장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반갑고 경이롭기까지 했다.

— 최방식 『돌담』 중에서

유년시절부터 동네의 골목들이 눈에 익었고, 다정한 친구들과 고향사람들, 아름다운 추억이 책속에 그려져 있다.

슬럼프 되어가고 있는 쓸쓸한 이 거리,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머무는 까닭은 직장이 이곳에 있었고 여기서 좋은 세월을 다 보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운 옛집

최 방 식

사람이 한평생 태어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생각해 보았다.

고향 선산을 지키는 나무는 키가 작고 굽어지고 못생긴 나무들이라는 옛말이 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고향에서 나름대로 올곧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고향 선산을 지키며 살아가는 굽어지고 못생긴 나무 인지도 모르겠다. 오래전 교통도 편리하며 학군이 좋고 병원과 시장이 있는 환경이 좋은 옆 동네로 이사를 해볼까 베풀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나는 갯마을이었던 용당동 바닷가 오두막집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사를 두 번 하였다. 그것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용당동 안에서 이사를 두 번 하였다. 첫 번째 이사는 결혼 3년 후 284번지에 이층 슬라브 집을 신축하여 이사를 하였다. 이 집의 나무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담한 화단에 자목련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자목련은 장인께서 결혼 1주년 기념으로 교통도 불편한 그 시절에 멀리

구포 장에서 힘들게 사 오셨다. 원래는 먼저 살던 집에 심어져 있었던 것을 신축을 하면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이곳에 옮겨 심어 놓았다.

장녀인 딸을 시집보내고 평소 별로 말이 없으신 장인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자목련 한 그루를 심어 주고 가셨다. 꽃말을 찾아보니 고귀함, 자연애였다. 결혼식장에서 딸을 사위의 손에 넘겨주고 그 날 장인은 많은 눈물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숙연 했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출가시키고 그림고 애석한 마음에 뭔가를 남겨 주고 싶어서 기념식수를 했다고 말했지만, 사위가 딸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잘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장인에게 좀 더 살갑게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있다.

해마다 이른 봄 자목련이 꽃을 피울 때, 장인은 계시지 않지만 탐스러운 꽃을 보면 장인의 애뜻한 마음이 생각났었다.

어머니는 예쁜 손주들의 재롱을 지켜보며 10여 년 동안 이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1991년에 돌아가셨다. 집안은 오래 동안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 있는 것 같았고 추운 겨울에는 거실의 남쪽 창가에는 항상 푸른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러다 2005년 현재의 아파트로 두 번째 이사를 하였다. 이사를 하기 전 아파트는 분위기가 삭막하고 이웃 간에 인정이 없다며 이사가기를 싫어했지만, 살아보니 단독주택 보다 편리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손수 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주위가 깨끗하며 전망이 좋고, 아침저녁으로 마당청소와 문단속 안 해도 되고, 한밤중에

길 고양이들의 영역 다툼에 잠 깨는 일 없고, 외풍이 심하다고 잔 소리를 안 들어 좋았다. 그중에서도 외관 페인트며 보일러, 배관, 전기, 크고 작은 집수리 안 해도 되는 것이 너무 좋았다.

옛날 내가 태어난 바닷가 우리 집은 검은 루뽕 지붕으로 된 판자 집이었다. 루뽕은 두꺼운 종이에 검은 코르타르 같은 것을 코팅하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서 만들어졌다. 여름에는 폭폭 찌는 찝질방이요, 겨울에는 코끝에 고드름이 얼 정도로 외풍이 세었다. 집안에서 미닫이문을 열면 바다의 갯냄새가 풍겨오고 해안의 모래와 푸른 바다가 훤히 보였다. 선창에는 서너 척의 고기잡이배들이 한가로이 떠 있고, 밀물 때는 집 앞 도랑까지 바닷물이 올라와 작은 치어들이 놀고 있는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추석날 아침 사라호 태풍으로 루뽕 판자 집은 강풍과 파도에 힘없이 완파 되었고, 그 후 함석집으로 바뀌어 비가 오면 토당 토당 빗소리가 들었다. 지금 생각하니 정겹고 운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림다. 이웃집과 나무 판자로 만든 담이 세워져 있었는데, 나무 틈사이로 들여다보면 마당이 훤히 보였다. 여름이면 아침을 먹은 후 집 뒤 명석에서 방학 숙제를 하였고, 팔베개를 하고 누우면 새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중학교에 입학하자 함석집을 철거하고 단층 슬라브 집을 지어 횃집을 경영하였다. 어머니가 만든 초장이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난 탓인지 장사가 잘 되어 2년 후 2층을 증축 하였다. 증축을 할 때 용도대로 짓지 않았다고 구청 철거반들이 몰려와 무자비하게 해머로 2층 옥상에 큰 구멍을 하나 뚫어 주고 갔다. 뚫린 천정에 하늘이

보였고 드러난 흉물스러운 철근을 보고는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한동안 집밖에 잘 나오질 못했다. 얼마 후 집을 완공 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 처음부터 순조롭게 집을 짓지 못하여 찢기고 부서졌지만, 그래도 어렵게 집이 완공이 된 후에는 우리를 푸근히 감싸 주는 집이요 즐거운 우리 집이었다.

마당의 대문 옆에는 깊지 않은 우물이 있었다. 봄철에 우물결의 등나무가 자주색 꽃을 피울 때는 참으로 보기가 좋았다. 여름철에는 잎이 무성하여 우물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마당 한가운데 조그만 타원형의 뜰이 있어 맨드라미, 봉숭아, 사루비아, 백일홍, 국화꽃들이 계절마다 예쁘게 피어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 볼 수 있어 삶의 여유를 누리곤 했다.

결혼 후 방 2칸과 거실이 딸린 안채를 신축하여 단란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다. 마당은 시멘트 포장을 하여 단순하고 소박했던 뜰은 사라지고 안채 남쪽 창문을 따라 조그만 하게 조성된 화단을 만들었다. 여기에 자목련을 심었고 딸과 아들이 이 집에서 태어났다.

며칠 전 귀소본능 인지 오래전에 삶의 흔적이 있는 고향집이 그리워 일부러 찾아가 보았다. 지은 지 50년이나 되어 너무 낡고 허름했다. 가끔 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이층집의 전면은 타일을 붙이면서 설치해 놓은 가설 구조물이 몇 년 전 부터 세워져 있었다. 집수리는 언제 끝이 날려는지 구조물 때문에 공사장처럼 보였다.

우리 집은 옛날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외벽의 페인트칠도 퇴색

되어 너무 낡았고 바깥 화장실 벽도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웅하게 보였다. 사람이나 집이나 가축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한다. 집을 둘러보니 지나간 세월 속에 삶의 애환이 배어있고 집도 늙고 나도 늙고 변하지 않은 것이 없어 서글펐다.

집을 돌아 골목길에 들어서자 아련하게 지나간 추억들이 떠오른다. 뒷집 형수님이 지나갈 때는 언제나 간헐적으로 껴억~ 하며 트림을 했다. 갑원 누님 말은 언제나 정겹고, 말소리만 들어도 누가 누구인지 다 안다. 대견 이와 구슬치기 하던 곳도 이 골목길이다.

마당에 들어서자 장어와 생선들을 횃감으로 만들며 비린내가 감돌던 우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화분 서너 개가 볼 품 없이 놓여 있었다. 마당과 담벼락에는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보기가 흥했다. 잡다한 물건들로 비좁은 마당에 쌓여있고 언제 심었는지 키 큰 감나무 한 그루가 갑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젊은 날 신혼생활을 하며 보냈던 안채의 형태는 세월과 함께 퇴색되었다. 한 여름 마루에서 아이들이 낮잠을 자기도 하고, 등나무 그늘의 우물을 바라보며 식구들과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여유를 부리던 푸근한 쉼이 있던 곳이다. 안채 옥상으로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니 다닥다닥 붙은 이웃의 스투트 지붕들은 초록색으로 단장을 했지만, 오랜 세월을 보낸 흔적으로 슬림화 되어 가고 있었다. 함께 놀던 친구들과 다정했던 이웃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그림다.

넓은 세상 중에 부산의 갯마을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하여 자식들을 낳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떠들며 사랑했던 시간들. 이웃에 살던 술을 좋아했던 자형을 미워하고 갈등했던 시간들, 이제는 이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뒤 돌아보며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그 옛날 내가 놀던 뒷동산을 바라보니 언제 들어섰는지 높은 건물에 가려 일부만 조금 보였다. 뒷동산에서 친구들과 미끄럼을 타고 선후배와 병정놀이 하던 그곳은 산업화의 물결에 사라지고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웬지 허전하고 쓸쓸했다.

진솔한 사랑의 실체를 훑쳐 보다

- 최방식 수필집 『함께 뜨는 숟가락』의 작품 세계 -

공기화 | 시인, 수필가, 부산교대 명예교수

수필을 붓 가는 대로 써지는 글이라고 했다. 그것을 마음 내키는 대로, 또는 심심풀이로 종이에 끄적거리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적 문학이다. 문학은 문화, 역사, 예술, 철학, 언어 등과 같이 인간을 탐구하는 인문학의 한 분야이다. 수필은 언어를 도구로 하여 작가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체험, 표출하고자 하는 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표현하는 예술 행위이다. 수필은 문학의 한 분야로서 인간다움을 탐구하고 이해하게 한다. 수필가는 그의 글에서 인간다움, 인간미를 묘사하여 독자에게까지 삶을 풍부하고 아름답게 하므로 그 역할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최방식의 수필 『좋은 만남』에서 언급되었지만, 『남구 향토사』를 편찬할 때 용당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곳에 가서 용당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인 그를 만나 그가 건넨 자료로 향토사를 쓸 수 있었다. 그 연유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출간한 용당동의 향토사인 『용당동의 빛과 어둠』을 읽다가 그에게 문학적 자질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의 글을 『부산크리스천문학』에

소개하여 수필가가 되게 하였다. 이후 『문학도시』의 신인상을 받으면서 그의 글은 일취월장하고 있다.

그의 수필집 『함께 뜨는 손가락』에 총 46편으로 엮어져 있는데, 그의 글은 용당동과 친우에 대한 글에서 고향과 유년기의 추억을 되살려 주고 있으며,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아내 등 가족 간 관계에서 사랑의 본질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그가 정년퇴임 이후에 다양한 취미 생활과 농장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는 일상사를 소재로 하여 쓴 수필은 우리를 따뜻하게 한다.

1. 용당동 지킴이의 향토애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다. 실향민이라 하더라도 고향은 영원한 종교와 같이 그리워하는 곳이다. 최방식은 누구보다도 고향 용당동을 사랑하였다. 1960년 이후 용당 사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을 떠났으나, 그는 고향을 지키며 용당동 향토사를 쓸 정도로 사랑하였다.

우리 집 거실에는 1952년 7월에 고향 마을을 찍은 컬러사진 두 점이 걸려있다. 한 점은 서쪽 마을을 배경으로 해안가에 해초들이 파도에 밀려와 모래톱에 널려있고 팬티조차 입지 않은 아이가 수영하고 있다. 초가집이 있는 해변 끝자락엔 부서진 폐선이 서너 척이 보이고, 어릴 적 친구들과 뛰놀던 민둥산의 뒷동산이 보인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자그마한 우리 집도 보여 소중한 애착이 가는 사진이다. 또 한 점은 그 반대편의 배경으로 지금의 부경대 용당 캠퍼스가 있는 야산에서 신선대를 찍은 사진이다. 파란 바다와 U자형의 해안, 신선대의

송림과 조도가 보이고 동네 한가운데를 가르는 두 갈래 길의 비포장 도로가 해변으로 실타래처럼 이어져 한적하고 아름답다.

— 「한 권의 책」 중에서

용당만의 바다는 연못이요, 신선대는 우리의 정원이라고 이야기 하던 시절도 있었다. 유년 시절 모래사장에서 해수욕하고 잘피며 조개를 캐던 아름답던 바다와 울창한 신선대의 송림이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베어졌다. 내가 놀던 뒷동산과 신선대 산의 밑자락은 깎이고 파여서 바다를 매립하여 신선대 부두가 되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신선대 하면 긴 송림 숲이 유명했다. 송림이 시작되는 신선대 초입에 1908년에 준공된 3층 목조건물인 검역소檢疫所가 있었다. 이 건물은 1912년 이전에 지어진 부산의 주요 목조건물 연표에 올라 있는 건물이었다... 1960년대 중반 친구들과 가끔 신선대에 놀러 가기도 했다.

— 「신선대」 중에서

최방식은 누구보다 용당동을 사랑한다. 혼자 용당동의 역사, 문화, 산업, 명승지, 인물 등을 망라한 『용당동의 빛과 어둠』라는 향토사를 발간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김한근 부산사료연구소 소장이 소장하고 있는 1952년에 미군이 찍은 용당동 사진 2장을 그의 거실에 걸어두고 사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고향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

용당동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마을이었다. 매립되기 전만 하더라도 마을 앞에 연못처럼 잔잔한 바다, 바다 잔디 사이에 야생화가 피었던 마을의 방파제이자 모래톱인 부레(불), 신선이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는 신선대가 있는 곳이었다.

그는 지금도 신선대(부산시 지방문화재 제29호)와 그 앞에 있는

긴 송림을 잊지 못한다. 백운포로부터 이어진 해식애와 해식동으로 만들어진 갯바위는 신선대부두와 군사시설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해방 후 부산 시민들의 유원지였던 검역소의 긴 송림과 방파제 등은 동명목재상사의 확장과 바다의 매립으로 사라졌고 어장도, 풍어제도 사라졌다. 그는 남부여대하여 떠난 마을 사람과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용당동의 지킴이인 최방식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한 수필가, 남구의 향토사학자이다. 한때 그의 사무실은 용당동 사랑방이었다. 떠나간 용당동 사람이 찾아오면 고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식을 나눴던 곳이었다. 그는 신선대 아래 다다목의 검은 몽돌이 센 물살에 구르면서 부르는 노래처럼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고향의 이야기들을 서정적인 글로 남기고 있다. 이것은 분명 소리 없이 흐르는 그의 애절한 노래이다.

2. 태의 본향을 찾다

자식에게 어머니는 열을 주고, 아버지는 빛을 준다고 하였다. 최방식은 보기 드문 효자였다. 어부였던 그의 부친은 바다에 나가 조업하다가 풍랑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유복자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와 누나의 사랑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아버지 대신 생활 전선에서 소금, 생선이나 해산물 등을 이고 나가 팔며 일하였던 어머니와 그를 등에 업고 키워준 나이 차이가 많은 누나에 대한 효성과 사랑은 지극했다.

오랜만에 바닷가의 추억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남해의 큰 몽돌들이 심술을 부렸다. 해송 숲 사이에 놓인 평상에 앉아 밝아오는 아침의 검푸른 넓은 바다에 떠 있는 하얀 고기잡이배를 바라보니 어부였던 아버지 생각에 잠시 아련한 슬픔과 그리움에 잠기고 말았다. 아버지는 바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이었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 바다가 종착역이었다. 아침 바다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노도와 같은 파도를 숨겨놓은 아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새벽에 화창한 봄 날씨가 아침이 되자 갑자기 먹구름과 함께 비바람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강하게 불었다. 바다는 짐채만 한 파도가 일었고 커다란 너울 속에 거센 바람과 풍랑 앞에 조그만 돛단배는 망망대해에 일엽편주였다. 그날 이후 세 명의 어부들은 육지를 밟지 못했고, 나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5개월이 경과하고 있었다. 어부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망연자실하였고, 지아비 없는 세상에서 혹독한 가난과 모진 세월의 아픔과 설움을 참고 살아야만 했다.

— 「아버지의 바다」 중에서

부모는 자식의 근원이다. <아버지의 바다>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풍랑이 거친 바닷가를 거닐다가 바다를 바라보며 사진 외에 본 적이 없는 아버지, 풍랑을 만나 가족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아버지가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어머니 태중에서 겨우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는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다. 바다는 가족을 부양하였던 아버지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기에 거친 바다를 보면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는 지금도 바다 바라보기를 좋아한다. 그가 보는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의 바다>이기에 사랑하나 보다.

아내가 어느 날, 어머니 살아생전에 마당에서 무언가를 불에 태우

시기에 가보니 사진들을 태우고 계셨단다. 깜짝 놀라 “어머니 왜 사진을 태우세요?” 했더니 “야야 다 지나간 세월이다. 이제 하나씩 정리할 때다. 여기 누구도 죽고, 아무개도 갔다.” 하시며 30대에 별세하신 한 장뿐인 아버님 사진마저도 함께 태워 버렸다고 했다. 아버지와 결혼하고 일찍 혼자되어 애뜻한 사연은 소중하겠지만, 이제 흘러간 세월이 그걸 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미련 없이 기억을 지우는 모양이었다. 사진은 삶의 흔적과 추억을 남기는 것인데, 그때는 정말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어머니는 다음해 초여름에 세상을 떠셨다. 일찍 사고사로 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태워버려 나는 내심 놀라워했지만 아무 말도 못 하고 침묵했으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졌다.

— 「가족사진」 중에서

아이에게 어머니는 전부이다.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에게 헌신하다가 모든 것을 다 주고 귀천한다. 예전의 노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사진을 불태웠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였다. 최방식의 어머니는 한 장 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사진까지 불태웠다. 어머니 삶의 흔적인 사진을 없애는 게 자식으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어머니는 어떤 것도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려 않으려는 듯하다. 유대인 격언에 “신은 도처에 다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라고 한다. 그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다. 지아비 없이 혹독한 가난과 모진 세월의 아픔으로 살았던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

최방식과 그의 아내는 사진을 불태우는 어머니의 행동을 만류하지 않았다. 지나간 자신의 기억과 사연을 다 버리려는 어머니를 이해하며 숙명의 의식을 받아들였다. 그의 부부는 ‘어머니께서 좋

아하신다면...’라며 곁에서 지켜보는 그들의 태도는 평소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그대로 반영된 것이리라.

사진은 시각으로 담을 수 있는 가장 또렷한 영상이지만, 지워지지 않는 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사진보다도 더 또렷할 것이며,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사진을 태우는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에게 빛바랜 영상 대신 더 영원한 흔적을 간직하라고 하는 것 같아 우리를 숙연케 한다.

결혼 전 누나는 화장을 조금 짙게 하였고 나는 짙은 화장을 하는 누나를 싫어했다. 마침 선을 보러 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 당시에는 관습인지 모르지만, 처녀가 선을 볼 때에 아버지나 오빠나 남자가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사촌 형님을 부르기도 어렵고 동생인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범생이인 나는 짙은 화장과 매니큐어와 속눈썹을 붙이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누나는 몇 번 나를 달래고 설득하였지만 소용없자 하는 수 없이 매니큐어도 지우고 기초화장만 하여 선을 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저런 옛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했던 지난날도 덧없이 지나가고, 아등바등 힘겨운 삶을 살았던 세월도 다 지나갔다. 격량의 순간들도 문혀 지나갔으니 모처럼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며 아름다운 추억의 노트를 한장 한장 넘기고 있다... 자주 만나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음 만남은 기약도 없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가 자주 만난다 해도 몇 번이나 함께 숟가락을 뜨겠노?” 말하던 큰 누나의 말이 귀전에서 맴돈다.

— 「함께 뜨는 숟가락」 중에서

최방식은 어릴 때부터 남자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였다. 작은누나가 선보러 갈 때 누나의 화장을 간섭한 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리

나 가정의 풍속을 지키는 것도 남자의 책무였던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준다.

가족 간의 사랑은 인륜의 기본이다. 그는 연령차가 많이 나는 누나와 우애가 두터웠고, 어머니처럼 섬겼다. 평소에도 그들과 자주 만나 그들을 즐겁게 하였다. 코로나 중에 자제하였으나 누나들과 정을 나누려고 모임도 자주 가졌다. 어느 날 모임 후에 귀가 중에 큰누나가 “우리가 자주 만난다 해도 몇 번이나 함께 손가락을 뜨겠노?”라고 말했다. 그 말을 수필집의 제목으로 삼아 『함께 뜨는 손가락』이라고 한 것은 얼마나 누나를 사랑하였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용당동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 대신 동생을 돌보아준 큰누나는 평소에도 막내 남동생에게 집안의 사소한 일을 부탁하면 그때마다 그는 마다하지 않고 집안일을 거들어 준 것은 누나에 대한 사랑의 빛 때문이었으리라.

3. 아내와의 사랑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경상도 남자는 흔하지 않다. 아내를 자랑하는 것도 팔불출 중 하나라고 욕하기도 한다. 그의 수필에서 아내를 자랑한 <아내의 뜰>은 예외인 것 같다. 그의 글에서 내조자인 아내를 그를 돕는 현숙한 동반자로 은근히 내비치는 것이 부럽다.

아내는 꽃 가꾸기를 좋아하여 아파트 발코니는 여러 가지 나무들

과 꽃들이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는 아내의 작은 뜰이다. 때때로 따뜻한 햇살이 창가로 비칠 때 모든 것을 잊고 정성스럽게 나무를 손질하며, 물을 주고 바닥을 닦으며, 꽃을 가꾸는 생활에서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런데 뜰에 있는 나무들과 꽃들, 그리고 다육이를 보면서 아내가 꽃가게에서 구입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에 버려진 꽃나무를 가져와 큰 대야에서 화분 갈이를 하고, 흙들을 채우며 몇 시간 동안 정성을 드리는 걸 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하나 사라고 말해 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며 생명을 살리는 과정이 힘들지만 즐기는 것 같고, 그것들이 살아서 꽃을 피울 때는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되는 모양이다. 산스베리아, 행운목과 인도고무나무, 바키라도 아내의 손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잘 키운 산스베리아는 다섯 번이나 분가하여 이웃집에 시집을 보냈다고 아내는 은근히 자랑한다.

- 「아내의 뜰」 중에서

가끔 농장에 돌아오는 최방식 부부를 만날 때가 있다. 초등학교 동기생이자 용당교회에서 함께 자란 그의 아내의 모습은 친구나 오누이같이 닮아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연령차가 많은 두 시누이를 곁에서 모시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녀는 교회 권사로서 깊은 신앙심으로 속을 삭이고 인내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그의 아내는 꽃을 좋아한다. 남이 버린 죽어가는 꽃이나 나무를 다시 살리는 재주가 있다. 그녀의 정성에 감복하여 다 죽어가던 식물도 살리는 명의(名醫)이다. 살린 식물을 남에게 선물하니 이웃과 관계도 좋을 것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랑과 정성이 필수적이다. 식물도 감정이 있으며,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과학

적 사실이다. 식물은 가꾸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녀는 사랑은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의 사랑은 비단 식물뿐이겠는가?

독자는 <유품 중에서>을 읽으면서 시어머니를 잘 이해하고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한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아내의 딸> 외에 아내를 자랑하는 글은 없으나, 그녀는 남편 못지않게 시어머니와 올케들을 잘 모셨으니 효성스러운 여인임에 틀림없다. 최방식은 앞으로도 친구이자 오누이 같은 아내를 더 아끼며 사랑했으면 한다. 그리고 아내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4. 또 다른 나를 찾으며

해방 직후만 용당동은 남구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마을이었으나 아쉽게도 그곳은 교통이 불편하여 하나의 섬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을 사람들은 한 가족과 같아 정이 두터웠다. 최방식은 아버지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선비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듯하게 자랐다.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나는 누나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천성이 착한데다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도 잘하여 인간관계가 좋다. 그는 마을의 어른들과 선배들을 존경하며 사랑하였다.

아 형님은 싸움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쩐지 돌이 형님이 갑자기 타임을 요청할 때 머뭇거리는 행동이 이상하더니 그때 얼추 걸

정했었구나. 형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싸움의 승리보다는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머리 회전이 빨랐다, 졌다고 패배를 인정하는 유연성도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있던 수수께끼 같은 궁금증이 풀렸다. 형님은 나약한 겁쟁이가 아니며 성곤 형님 입지도 생각하고 있었다. 점심을 먹은 뒤에도 흘러간 유년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유년 시절에 마을 뒷동산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은 나에게 큰 의문이었으나 또한 큰 교훈을 주었다. 인생이란 생을 다할 때까지 싸움이 있는 곳이다. 때로는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하고, 질 때도 있어야 한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그 싸움에서 이긴다 하여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형이다.

— 「아름다운 시절」 중에서

용당동에는 당쪽의 숲에 산당을 두어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다. 유복자로 자란 최방식은 마을의 어른을 부모와 같이 섬겼고, 선배나 친구들과 우애와 정을 나누며 반듯하게 자랐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됴됨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친구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친구들이 많다. 그가 정이 많고 따뜻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는 놀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유년 시절을 일생 잊지 못한다. 아이들은 산길을 따라서 꽤 먼 거리에 있는 감만동의 동향초등학교에 다녔다. 마을 아이들은 함께 모여 학교를 오갔고, 학교 후에 마을의 아이들은 다 모여 놀았다. 가끔 편을 갈라 경쟁하는 때도 있다. 짝을 정하여 ‘고상받기’를 하다가 대장끼리만 겨누기도 하였다. 어느 날, 대장끼리 겨누는 싸움에서 유리하게 전개하던 자기

편의 대장이 돌연 패배를 선언했다. 그 일이 궁금하였는데 몇십 년이 지나 그에게 찾아온 대장에게 물었다.

“리더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대장은 싸움에서 형제가 많은 상대에게 이기면 그와 그의 편에게 가해질 피해를 예견하여 패배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페어 플레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앞을 내다본 대장의 선택을 어린 심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현명한 선택했던 대장과의 대화는 동심으로 돌아가게 한다. <아름다운 시절>은 용당동 사랑방인 새마을금고에서 만난 두 사람의 정겹고 아름다운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 온다.

<상애원의 추억>의 글은 매우 진지하다. 최방식은 주위에 친구가 많다. 남자 친구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회에서의 여자 친구들도 그를 좋아했다. 초등학교 동기생이자 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영애는 한센병 환자의 ‘상애원’ 출신이었다. 그가 자신의 결혼 잔치용 돼지를 사러 상애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보건소 간호사인 그녀를 만났다.

이 글에서는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던 친구에게 동정심보다 사회적 문제점을 제기한다. 우리 사회는 전염성이 없는 음성나환자를 이웃으로 받아주기를 꺼린다. 최방식은 친구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긴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상애원의 추억>을 통하여 나무라고 있다. 친구가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친구와 함께 아파하는 인간미가 넘치는 그의 심성이 따뜻하다.

5. 여가선용

최방식은 천성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젊음을 다 바쳐 일한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다른 직장으로 갈 기회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초보 농사꾼이 되어 기장에 있는 작은 농장을 가꾸기를 좋아한다. 그는 선배 농사꾼에게 배워가며 농사에 익숙해져 이젠 과일이나 채소와 버섯 등을 수확하면 가까운 지인에게 나눠 주기도 한다. 그의 수필에 가장 많은 내용 중 하나가 여행이다. 여행은 일상생활에서 일탈하여 새로운 경험을 쌓기도 하고 동행인과 정을 나누는 기회이. 그는 농사일이나 여행뿐만 아니라 수필과 시와 같은 글쓰기를 하며 생활을 즐기고 있다.

작년 봄 사월 초순 여기에 왔을 때, 눈부시게 하얀 꽃 이화梨花가 활짝 피어 봄바람에 가늘게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하얀 꽃이 순수하여 한동안 다정한 눈길을 보냈다. 이화의 청초하고 우아한 모습에 정신이 팔렸고, 물결처럼 흔들리는 이화의 향연을 즐기며 봄을 만끽했었다. 별건 대낮이지만 이조년의 ‘다정가多情歌’라도 읊조리고 싶은 분위기였다. 야트막한 언덕 위에 하얀 이화의 배경을 그려보고 그날 이른 봄밤의 서정적인 분위기에 취하고 싶은 감상적인 분위기를 느낀 적도 있었다... 농장 주위의 나무들이 연두색으로 물들어 갈 때, 자연의 섭리는 어김없이 찾아와 눈부신 하얀 이화가 피었다. 따스한 봄 햇살에 아름답게 피어 봄바람에 흔들리며 소복단장을 한 여인처럼 나의 곁에 다가왔다. 아름다운 이화가 나의 동산에 피어서 내가 손을 벌치면 언제나 닿을 곳에 있었다. 이화가 피어있는 동안 언제나 마음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였다.

— 「초보 농부」 중에서

태풍 전과 후의 바람결은 확연한 온도 차이를 보이며 시원함이 묻어 있었다. 강한 비바람이 지나간 후인지라 모기 없는 시원한 저녁이다. 한낮에 따가운 햇살 속에 간간이 이름 모르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새 소리 소문도 없이 가을이 온 것 같다. 밤이 되자 황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새로운 계절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곡이 시작되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풀벌레들의 합주는 이미 산속의 적막을 깨어버렸다.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는 단원들의 음악은 감미롭게 이어졌다 끊어졌다 반복하며 그칠 줄 모른다. 어디가 무대며 어디가 객석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가을을 맞이하는 축제의 향연 같기도 한데 입을 간절히 부르는 소야곡 이란다. 어찌면 찌는 무더운 여름 한 철은 짧지만 화려한 계절을 살아온 생과 사랑, 종족 번식을 위해 최선의 악기로 연주하는 풀벌레들의 처절한 몸부림인 줄 모른다.

— 「농막에서 하룻밤」 중에서

최방식은 부지런하여 일을 사랑한다.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초보 농부라고 하면서 그의 부인과 함께 농장으로 간다. 그는 봄이 되면 바쁘다. 특히 배 농사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는 배꽃梨花가 필 때를 좋아한다. 봄바람에 흔들리며 눈부시게 하얀 꽃 이화가 활짝 피어 가늘게 떨고 있는 꽃의 모습이 아름다워 감탄한다. 천하대본 天下大本人 농사는 이른 봄부터 시작된다. 초봄에 전지해둔 배나무 가지에서 꽃눈이 싹이 터 배꽃이 만발하면 꽃들은 봄을 맞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초보 농부>를 읽노라면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로 시작되는 이조년의 시조를 읊고 싶을 만큼 흥이 난다. 하얀 배꽃이 가득 핀 농장을 그린 그의 글은 이효석의 <매밀꽃 필 무렵>

을 읽듯 글의 서정성에 빠져들어 간다. 마치 꽃이 핀 농장을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봄을 연출한 시를 읽는 듯 아름답다.

베란다에 화분에 상치나 고추를 심어 가꾼다는 것과 달리 농장에서 자연에 순응하여 흙을 가꾼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 농막에서 지내면서 태풍이 지난 후의 정경을 글로 나타내었다. 태풍일과후颱風一過後라 자연의 고요함을 노래할 만하다, 그는 태풍이 온다는 뉴스를 듣고 농막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태풍이 지나간 후 농장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기온이 시원해졌고 강풍에 숨 쉰여 있던 못 풀벌레 울음소리가 오케스트라 음악소리로 묘사한 그의 자연에 대한 관찰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감미로운 소리 가운데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듣는 감성적인 그를 만날 수 있다.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이라고 했다.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에 순응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니 그는 사람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 그 순리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간을 제대로 사랑하리라. 우리가 선 자리가 안정된 자리 같지만 어떤 때는 속에서 태풍이 불 때도 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식물을 사랑하는 농부야말로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일 것이다.

이윽고 동녘이 붉게 달아오르는 황홀한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멀리 작은 섬 사이로 솟아오르는 붉은 해는 경이롭고 장관이었다. 바다는 거대한 한줄기 붉은 빛의 길을 만들며 열광하는 손길들과 합장하는 손길들의 환대를 받으며 역사는 내가 새로 쓴다며 솟아오르고 있다. 붉은 해는 장엄하고 위대했다. 어둠을 쫓아내고 주위를 빛으로 장

식했다.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붉은 해를 향해 존재의 의미를 감사하고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감동하게 했다. 희망의 새해다...

— 『욕지도 해돋이』 중에서

최방식은 주로 가족이나 처가 식구들과 여행하며 즐겼나 보다. 여행수필은 자칫 일기문이나 감상문으로 흐르기 쉽다. 부산 시티투어 버스를 타기도 하고, 욕지도, 사랑도, 군산, 선유도, 제주도 등을 여행하면서 꼼꼼하게 글로 써서 남겼다.

<욕지도 해돋이>나 <여행 그 아름다움>은 연말을 가족과 함께 쇠거나 새해 해돋이를 맞는 내용이다. 그에게서 여행은 단지 견문을 넓히려는 것만이 아닌 것 같다. 연말연시에 일상에서 일탈하여 가족끼리 여행하기를 즐긴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의 화합이다. 그는 가족 단합의 한 수단으로 여행을 이용하는 듯하다. 가족과 여행하면서 그만의 유익만 바라지 않고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그만의 인간미를 맛볼 수 있다.

6. 마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자 인간미가 없어져 간다. 남을 대접하지 않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역설적이다. 사회가 삭막해져서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인성이니 인격 등과 같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현대인은 성공 지향적 삶을 사노라고 방황하다가 인간이 살아 가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과 인간을 잃어버렸다. 최방식의 글은 한마디로 따뜻하고 정이 물씬 풍기는 인간미가 있다. 이는 수필의 장점이자 인문학의 결정체인 인간미를 새삼 느끼게 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최방식은 독서를 즐긴다. 많은 책을 읽으면서 등단하기 전부터 시나 수필 적어 왔기에 그의 글에서 수작이 많다. 그의 수필의 제재는 참신하고, 사소하고 평범한 삶에서 그것을 잘 선택하여 작품화하였다. 내용은 그의 성격대로 꼼꼼하게 전개하였고, 글의 서술은 감성적이고 은유적이다. 또한 그의 글은 사람이나 사상을 비판적이거나 날카롭게 평하지 않은 인간적이어서 좋다.

최철호는 “수필에는 무형식성, 산문성, 자기 고백성, 창조성과 문학성과 같은 수필의 5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서정적인 최방식의 수필은 이들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그의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과장하는 일이 없다.

고향, 부모, 형제, 아내와 친구를 사랑하고 일상사를 즐긴다는 것은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특별한 사랑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최방식의 첫인상은 선비와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고향과 친구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누나에게 효성과 우애가 깊었으며, 농촌을 사랑하는 최방식의 삶은 <전원일기> 드라마와 같다고 하겠다. 어른을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여가까지 즐기는 그의 삶이 부럽다. 그가 실천하고 있는 따뜻한 사랑의 결정체를 곁에서 오랫동안 훑쳐보고 싶다.

글을 쓴다는 것은 사물을 관조하고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다. 그는 또 다른 초상화를 그리려 할 것이다. 수필가로서 좋은 자질을 지닌 그는 앞으로 독자들이 즐겨 읽을 수 있는 글을 많이 남기길 기원한다.

기획특집

대구기독교문인회 초대작품

Ⅰ 대구기독교문인회 소개 | 남택수(회장)

시 | 여혁동, 이주하, 조무제, 허정자

시조 | 리강룡, 이상진

동시 | 권영세, 최 진

수필 | 김혜숙, 신재일

대구기독문인회 소개

- 씩씩한 청년의 대구기독문인회 -

회장 남택수 (장로, 수필가)

대구기독문인회는 2005년 4월 25일, 18명의 회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립 첫해 12월 3일, 회지 《대구기독문학》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지난해 제20호를 펴냈습니다.

한국현대문학사를 보면 창간호가 폐간호로 바뀐 문예지도 적지 않은데, 《대구기독문학》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0호까지 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문인은 문학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장르의 회원 8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우리 문인회는 회원 9명이 작품집을 발간했고, 15명이 스물한 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씩씩한 활동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기독문인회를 이끌어오신 역대 회장과 현 임원을

소개합니다.

초대 회장 송영목 장로(평론)

2대 회장 박용규 장로(수필)

3대 회장 김익환 변호사(수필)

4대 회장 조삼도 장로(시)

5~6대 회장 권영세 장로(동시)

7~8대 회장 이상진 장로(시조)

9~10대 회장 리강룡 장로(시조)

11대 임원 회장 남택수 부회장 조무제 여혁동 허수현 감사 이상진

사무국장 신재일 편집국장 김혜숙 재무국장 이주하

끝으로,

“스무 돌을 맞은 대구기독문인회가 씩씩한 청년의 걸음으로 눈
보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푸른 깃발을 높이 들고 힘주어 걸어
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여혁동

교만의 머리 치켜세운 바벨탑
 오만의 침탐 높고 높은 하늘 찢러대어도
 베들레헴 낮고 낮은 말구유로
 우릴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사악한 마귀
 온 세상 두루 다니며 우릴 삼키려 해도
 영생의 천국 문 활짝 열어 주신
 구원의 구세주, 그리스도 주 예수여

의인 열 명 없던 소돔과 고모라
 그날처럼 패악의 도시 멸하시려나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메시아, 다시 오실 주 예수여



| 여혁동 |

《시선》 신인상 등단, 시집 『홀로 다 채운 허공』 『아버지의 목시록』 『영등이로 잡고 무릎으로 본다』 외, 한국장로문학상, 시선 시문학상 외, 대구문인협회 부회장, 이상화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대구기독교문인회 부회장, 대구생활문인협회 수석 부회장, 국제펜한국본부 대구시지회 이사, 한국장로문인협회 이사, 한국크리스천 문학가협회 이사, 《대구문학》 편집주간, 《시인시대》 편집위원장, 《시인부락》 편집인.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리오니
한없는 주의 자비로 우리 죄 사해 주시고
끝없는 이 땅의 탄식 소리 거두어 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 온 땅 덮어주시옵소서!

외로운 달걀

이 주 하

달걀은 너무 달라붙어 있어 외롭습니다
아침밥 대용으로 삶아놓은 달걀
톡톡 쳐 껍질 까 보지만

여전히 달라붙어 있는 당신과 나

남편과 아내는
늘 붙어있어도 외로운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노란자도 제 공간만 떠도는 걸요

외로움을 잊으려 닭장 같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장 공간만 차지하는 외로운 시작詩作들



| 이주하 |

대구 무태(無怠) 출생. 2013년 『시에티카』로 등단. 시집 『호박 잘라보셨나』, 동화집 『선생님 동화 맛있게 들려주세요』 외 환대(歡待)와 관련된 다수의 글이 있다. 대학 강단에 섰다(1989~2022), 대구기독교문학회 재무국장

‘시집을 내어서 무엇하냐’는 아내의 말에
부화도 되기전에 삶겨버린 달걀이야

달걀 까서 먹으려니 흰자위가 푹 떨어져나갔습니다

부활의 꿈

조 무 제

지난 겨울 내내
산봉우리 가로지른
무도한 삭풍에

당신의
손, 발, 옆구리
다 내어주었건만

장난삼아 씌운
창모자 끝자락에
연신 떨어지는

당신의
선명한 용서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 조 무 제 |

《문학예술》2002 신인상 등단, 시집 『풀잎인생』, 미주한국문인협회 백일장 장원, 경북공무원문학회장 역임, 대구기독교문인회 부회장

그 눈물로

다시 찾아온
봄 언덕에서

철없는 한 아이가
말없이 들고 서 있는
주홍 글씨를 봅니다

“부활의 꿈”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

需炫 허정자

하루가 열리는 새벽이다
아파트 층層마다
이집 저집 주방과 거실에
분주한 하루를 여는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
주섬주섬 문 앞에 놓인
신문을 주워 들이며

밤사이 아무도 몰래 붙여놓은 광고지들
힘들었을 그 누구의 손길을 보며
꿈과 희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오늘 하루도 지치지 않게
모두에게 힘을 주소서

움츠리고 있는 듯하나
새봄을 위해 준비하는



| 허정자 |

2004년 《한맥문학》 등단, 2015년 허난설헌문학 문화상, 2016년 송강문학 예술상, 2022년 9월 시서화 개인전(경산역갤러리), 시집 『고요속의 행복』, 대구문인협회, 국제펜대구지부이사, 대구기독교문인회 부회장, 대구여성문인협회회원

나무들의 비밀을 탐구하는 지혜와
쉬지않는 그들의 무한無限노력도 보게하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잔을 들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려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가을 산책 11

- 잠언을 읽다

리 강 룡

놀 빛 앞에 앉아 잠언서를 읽습니다
책갈피 흥건히 젖도록 이르는 말씀
길 떠날 준비하여라, 돌아보아라, 살피라

하마 시련의 계절 바톤 터치를 준비하는
태풍 전 고요 같은 청량한 햇살 아래
한 들판 널린 알곡들 수장收藏하는 가을날

책 덮고 곧추앉아 등을 끄고 눈감으면
순 은빛 달빛살의 엄숙한 명령 듣습니다
떠났다 돌아올 그 날 준비하며 살아라



| 리강룡 |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조문학》천료, 시조집 『신지리』 등 6권, 시조평론집 『잔잔히 보기, 뜰어보기』 등 2권, 수필집 『삶과의 악수』 등 2권, 논문집 『한국시 조각가론』 외 다수, 조연현문학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기금 수혜 외, 대구기독문인회 회장 역임, 중부신문 논설위원

내려놓음, 비움

이 상 진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들이
어쩌면 더 적을듯한 그 경계 삶 속에서
조금씩 내려놓을 때 아, 비로소 보입니다

온종일 생명체에 빛과 열 나눠주던
태양도 하루 끝에 지평 넘어 쉬러 가듯
인생의 노율이 올 때 평온한 맘 됩니다

아침의 출근길
한낮의 삶의 무게
뭐 그리 여유 없어 하늘을 잇고 살아
찬란한 별이 뜨는가 경건한 밤 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높이 오르려고
한 치도 빈틈 없이 치열하게 살아온 삶
더 비움 은발銀髮의 지혜 다가섬을 봅니다



| 이상진 |

1990년 『시조문학』등단, 육사백일장 장원, 나래시조문학상 수상, 제25회 대구시조문학상 수상, 제26회 한국장로문학상 수상,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부회장, 대구문인협회 부회장, 대구펜문학회 부회장, 대구기독교문인회 회장 역임, CBMC 대구중앙지회 회장, 시조집 『南道 가는 길』(2000), 『하늘이 푸르른 날』(2021), 『내려놓음, 비움』(2024)

생존의 권리

권 영 세

나는 작은 날벌레 한 마리와
늘 숨바꼭질을 한다.

내 방에 들어온 지 꽤 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작은 벌레

가까이서 깜죽대며
“나 잡아 봐라!” 놀리는 듯할 때는
얕땀기도 하다.

그럴 때마다 손바닥으로 단번에
때려잡고 쉽지만 어느 틈에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린다.



| 권영세 |

1949년 경북 고령 출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행정 전공), 1980년 계간 《아동문학평론》동시로 등단, 1981년《월간문학》신인작품상 동시 당선, 동시집 『겨울 풍덩이』, 『참 고마운 발』, 『동배나무가 웃다』, 『권영세 동시선집』외, 창주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한국동시문학상, 한정동아동문학상, 대구시문학상(문학) 등, 대구시독문인회 회장 역임

온갖 잔피를 부려 잡으려는 것을
고 작은 벌레도 아는지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궁금할 때도 있다.

잊은 듯하면 다시 나타나는 작은 벌레
분명 나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생존의 권리가 있다는 걸까.

봄의 시작

최진

봄이
언제 오는 줄 알아?

따뜻한 햇살 부리가
- 땅을 콧콕!
- 나뭇가지를 콧콕!
- 강물을 콧콕!

그래서
- 땅이 부스스.....
- 나뭇가지가 움찔움찔.....
- 강물도 하느작하느작.....

바로 그때 오는 거야.
푸른 향기 실은
바람과 함께.....



| 최진 |

2005년 <아동문학평론>, 2008년 새벗문학상(동시)으로 등단. 2011년 한국동시문학회 <올해의 좋은 동시집> 선정, 2012년 한국아동문학인 협회 우수작품상 <하늘 고치는 할아버지>, 2013년 영남아동문학상 등. 동시집 『선생님은 꿀밤나무』, 『빗방울의 말』 『칭찬해주세요』

위로와 감사, 기도

김혜숙

3월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이 영향을 받았고 산청 언양 지역이 동시에 산불이 나 안타깝고 멍한 상태로 TV에서 들려 오는 뉴스만 바라보았다. 열흘이 지나서 주불을 많이 진화되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을 생각하면 내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생각을 한다.

소식에는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소방과 구조대와 많은 사람들이 총력으로 대응한 결과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발표해서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 김혜숙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시와 의식 신인상 당선(1985) 수필집 『남은 것에서 다시 이루어』 발간(2013), 대구육수초등학교장 역임, 대구여성문인협회, 대구수필문학회 회장 역임, 대구기독문인회 편집국장

글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이번 산불은 우리가 신문과 TV로만 본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 아직 산불이 진행 중이라 안심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도 소방관들은 지친 몸으로 잔불을 끄기 위하여 현장에서 사투 중이다. 크고 작은 불이 경상도를 비롯해 전국 27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산불 때문에 어디 곳의 진입로 차단되었다고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는 안전 안내문자가 수시로 오는 것을 보면 소방관들이 지금까지 사투를 벌여야겠다는 생각에 참담하고 답답하였다.

산불이 진화되고, 이제는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되고 산림 피해 조사가 시작했는데 처참한 산림은 검게 불탄 숲은 복원에만 수십 년이 걸리고, 어린나무가 자라 숲 생태계가 복원되기까지는 적어도 30년이 걸린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곳 곳곳이 검게 변하여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어 비참한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울창했던 숲은 시커먼 재로 뒤덮였고, 야생동물도 거센 불길을 피하지 못했다. 소나무와 참나무 대부분은 줄기와 잎이 모두 불에 탔다. 뛰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불쌍한 나무들이 진액이 부글부글 끓는 옛 가마처럼 쏟아내면서 대부분 나무가 불에 타 죽어 갔다.

한평생 살아온 생의 터전을 순 식간에 잃어버린 수많은 이들의 안락했던 보금자리가 잿더미가 되었다. 집을 잃고 대피소로 향한 사람들은 가장 소중했던 일상과 안식처와 추억을 잃었다.

온 하늘과 땅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과 맞서 싸운 소방관을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며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까? 나의 입으로는 다 모자라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린다. 일주일 전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회가 될 때마다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기를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다.

소방관들의 사명감이 헬기로, 몸으로 사투를 벌이며 막아낸 결과 주불은 다 진화되었다고 했다. 그들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았을까? 불길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이산 저산을 바람 따라 날아다니는 비화(飛火)의 순간에도, 죽음이 코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열흘 넘게 불과 싸우면서 탈진한 상태로 들것에 실려 나오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간다. 그 부모 가족이 된 심정이 되어 애가 탄다. 소방관들의 하루는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다. 장비를 챙기고 훈련을 하고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식사를 하다가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 목숨을 걸고 국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다. 젊은 소방관들이 이번 산불에서도 희생을 당하였다. 뉴스 속의 화면과 자막으로 한 줄 비쳤다가 우리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젊은 꽃들이 우리의 형제이고 자녀인 인데 작은 부주의로 불을 내어 전국을 뒤집어놓은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다.

산불을 진압하기가 너무 힘들다. 꺼지는가 하면 바람이 다시 살려 놓기를 반복하고 나무와 식물은 불에 너무나도 취약해서 쉽게

불이 붙는 불쏘시개 같다. 산악이라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소방 헬리콥터 정도나 제대로 진입할 수 있으나 헬리콥터 보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시야를 가리는 연기, 멈추지 않는 강풍,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고립된 구조대와 소방관의 심정이 어땠을까?

산불 현장에 마주 서 있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공포에 휩싸여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압해놓으면 재발화가 계속되고, 소방대원들이 밤샘 작업과 산불의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화상을 입고 검게 그을리고 치아만 빼고 검게 변한 얼굴과 몸으로 극한의 피로를 견디어야 했다.

결국 진화 중 고립되어 심정지로 사망한 소방관의 소식도 들렸다. 그리고 헬기 추락으로 숨진 소방관의 소식도 들린다.

산불 사고 후 결론을 “꽃다운 청춘을 바친 그들은 영웅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잊는다. ‘영웅’이라는 말로만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우리는 반성하면서 빨리 고쳐 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혈투는 가까운 시간을 진실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국민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자기 몫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안타깝다”는 말만 반복하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길보다 무서운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무관심일 지도 모른다.

- 하나님 아버지!

타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거센 불꽃 속에서도 산불 진화에 나선 많은 분들을 지켜 주소서. 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상을 당한 분들도 주님의 손길로 만지셔서 속히 그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 곳곳에서 불길에 산과 들을 태우고,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 회복할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이 땅에 비를 흠족하게 내려 주셔서 불길이 속히 꺼지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불에 타버린 숲과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는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재난이 진정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신재일

몇 년 전 갑자기 부산과 인연이 깊어졌다. 큰 딸이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부산에 갈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딸을 돌봐주러 거의 매달 가야 했다. 이전에는 1년에 한번 가면 많이 가는 편이었다.

주로 토요일에 갔다. 가서는 딸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는 집 청소나 집정리를 해주었다. 그리고는 오후 늦게 대구 집으로 돌아오는 패턴이었다. 가끔 금요일에 가게 되면 자고 오기도 했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KTX를 타거나 대구-부산 간 민자고속도로를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이다. 나는 아내



| 신재일 |

문학박사(스토리텔링 전공), 대구기독교문화 사무국장, 대구중앙교회 안수집사, 경북도청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역임, 2021년 한국 산림문화회 수필 등단

와 같이 갖고 짐도 있어서 차로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갔다. 딸이 처음으로 살던 집은 명륜역 인근 온천장 근처였는데 차로 갈려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 부산은 시내 교통상황이 복잡하다. 상습정체 구간이 많다고 한다. 특히 만덕터널을 통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보니 대구에서 부산 입구까지 가는 시간보다 부산입구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릴 때가 많았다.

초기에는 지리를 모르니 네비게이션에 의존해야 했다. 나는 휴대폰에 앱으로 깔려있는 네비게이션 보다는 차에 고정된 네비게이션을 선호하는데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가기는 어려웠다.

그러다가 딸이 숙소를 부산대역 근처로 옮기게 되어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노포 톨게이트로 진입하니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는 금정산 터널이 길었다는 것 외에는 딱히 막히는 곳이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노포 톨게이트를 통해서 갔으면 거리는 약간 멀더라도 빨리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 생각없이 네비게이션에 의존하다 보니 다른 길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딸이 숙소를 옮긴 후에도 네비게이션을 잘못보고 대감분기점에서 외곽고속도로로 갈아타지 못하고 직진하여 어쩔 수 없이 만덕터널을 통과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초기에는 다녀오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방문이 반복되면서 오가는 길은 즐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 10년 전 인사발령으로

약 2년간 서울에서 근무할 때 주마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면서 중간에 경치도 보고 도시분위기도 즐겼던 기억을 살린 것이다. 당시 일부러 이곳저곳 들렀다. 주로 대전과 인근지역이었다. 가끔 수원과 천안에도 들렀다. 시간은 많이 소요되었지만 일부러 갈 수 없는 도시에 큰 돈 안들이고 가본다는데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대구-부산간 거리는 서울 대구의 거리보다 짧고 하루만에 오가는 일정을 모두 마쳐야 하니까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또한 혼자가 아니다 보니 내 취향에 맞춰 맘대로 할 수도 없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산속에 놓여 있는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이다. 운전이 지루했다. 중간에 휴게소도 하나밖에 없다. 장거리를 운전하면 휴게소에 자주 들르는 편인데 계속 한 곳에서만 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터널도 많은데 잘 가다가도 터널 앞에서 갑자기 막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다른 루트를 이용해보기도 했다. 경부 고속도로를 몇 번 이용했다. 경부고속도로는 휴게소도 많았고 터널도 몇 개 없었다. 또한 예전에 많이 이용해서 익숙한 도로다. 하지만 엄연히 먼 거리를 돌아가는 것이기에 자주 이용할 수는 없었다. 울산을 거쳐 해운대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기도 했다. 명절을 앞둔 주말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 우회한 것이다.

그러다가 부산에 혼자 다녀오는 일도 생겼다. 부산의 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논문 지도나 심사를 받기 위해 대학에 자주 갔다. 부산에 간 김에 딸의 집에 들를 수도 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다. 딱 한번 물건을 갖다 주러 딸의 집까지 전철을 타고 간 것이 전부였다.

혼자 갈 때는 열차를 타고 갔다. 기차 안에서 논문을 다듬거나 글을 썼다. 차를 몰고 가면 가는 도중에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차도 처음에는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갔지만 길을 알게 되면서 구포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탔다. 이 방법은 운임도 절약되고 볼 것도 많고 글을 쓰기도 좋았다. 시간도 별로 차이가 안 났다. 기차가 물금역에서 정차했는데 이를 보고 SNS로 불금(불타는 금요일)이지만 물금역에 있다는 농담도 했다.

대구와 부산을 다녀가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냥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방식이라면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차로 갈 때는 대구를 벗어나는 출발지점과 부산에 도착하는 지점이 모두 다양하다. 대구나 부산이 손바닥만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행을 즐기는 편이다 보니 나름대로 이런 저런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모든 방법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국도를 통해 가는 방법은 끝내 시도하지 못했다. 도중에 울산이나 경주, 밀양 등과 같은 도시도 구경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포기했다.

올해 초 딸이 졸업을 하고 나도 학위를 받게 되면서 부산으로 가는 일이 없어졌다. 그동안 수십 번 부산을 다녀갔지만 부산을 즐기지는 못한 것은 아쉽다. 나같이 여행을 즐기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

였는데 그냥 날린 것이다. 앞으로 부산에 갈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딸의 추천으로 해운대 구경을 두 번 한 것이 전부이다. 부산에 구경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핑계 같지만 여유가 너무 없었다. 딸의 숙소가 부산의 북쪽지역에 있다 보니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 또한 다음날인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하긴 지금 살고 있는 대구에도 많은 구경거리가 있는데 다 본 것은 아니다.

부산과 대구를 오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이 두 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첫째와 둘째 가는 도시다. 그러나 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인프라도 부족하고 변화도 적은 것 같다. 두 도시간 교류는 비슷한 거리라고 볼 수 있는 대전이나 세종시간의 교류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 그러다 보니 두 지역을 오가는 교통에 대하여도 배려가 부족하다. 그냥 서울로 가는 길에 중간 경유지일 뿐이다. 여행자들이 도중에 즐길만한 시설들이 빈약하다.

지방도시간 교류의 차원이 적나라하게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정기적으로 부산을 다녀오지는 않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어 부산을 다시 가보고 싶기도 하다. 로망도 하나 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완주해 보고 싶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구경해보고 싶다. 지난해 연말 퇴직하였기에 시간이 남는다. 적당한 시점에 한 번쯤 시도해 보리라 생각한다.

시

- 감윤옥 | 나의 혈루증 외 1편
강위석 | 채석강
곽병길 | 부활 외 1편
권영숙(어미새) | 바다 외 1편
김경희 | 오월의 노래 외 1편
김복단 | 등불을 끄고 외 1편
김숙희 | 내게 아침이 있다면 외 1편
김혜영 | 감물에 물든 엽서 외 1편
류정희 | 성 금요일에 쓴 시 외 1편
박인자 | 굴뚝 속의 담쟁이들 외 1편
배혜숙 | 목련 외 1편
손정란 | 시린 봄날 외 1편
송정우 | 은혜 외 1편
신 선 | 춘분 외 1편
신현숙 | 꽃잎에 쓰는 편지 외 1편
양왕용 | 예루살렘에서의 보름 외 1편
양윤형 | 안부 외 1편
이가연 | 그땐 몰랐지 외 1편
이경옥 | 눈 내린 승학 산 외 1편
이귀선 | 눈물 외 1편
이들자 | 동백나무 식탁 외 1편
이선화 | 몽돌 외 1편
이승훈 | 하루살이 외 1편
임병주 | 별처럼 살고파라
정명진 | 고난이라는 터널 끝에는 외 1편
정연원 | 아름다운 이별 외 1편
최귀례 | 앙리마티스의 눈물 2 외 1편
최만공 | 오월의 나무 외 1편

나의 혈루증 외 1편

감윤옥

새벽 이슬에 새벽 하늘이 다 젖도록
힘한 벼랑을 느릿느릿 걷는 무거운 그림자

날마다 무너지는 하늘 아래
청춘은 부러지고

흑백 사진처럼
어두운 시간 속에 갇혀
상처 입은 울음소리가
꽃무늬로 자라나고 있는 무거운 밤

피울음이 깊을수록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내 옷에 손을 대어라”
“내 옷에 손을 대어라”
“내 옷에 손을 대어라”



| 감윤옥 |

- 2009년 기독교 문예로 등단
- 수영로교회 은퇴전도사
- 인생의 길동무(유투브)운영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사무국장
- 저서 『그 숲에 가면 1,2』

니느웨 항구에 어둠으로 눕는다

짜락눈이 날리는 어스름 밤

작은 바위처럼

어둠 속에 누워 있을 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화들짝 놀라 침묵의 절벽 끝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요나

오금이 저린 얼굴로

파도치듯 들이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삼일을 시달리다가

옷 벗고 눈에 젖은 나무처럼

니느웨 항구에 어둠으로 눕는다.

채석강

강 위 석

부안 격포항 닭이봉

이태백이 눈에 묻은 수만 권 늙은 책들이

굳어져 켜켜이 포개진 층리 위에

붓으로 그은 흘림체 같은 후박나무 잔가지에도

내소사 범종소리가 하얗게 흔들린다

저리도 그윽한 은유가 내게는 없어도

단애 아래 영원보다 더 검은 적막을 열고

몸매를 푸르게 틀 것 같은

흐르지 않는 시간을 보았다

마른 강에 범람하는 물소리만 둥글어지고,

그렇다 그렇다

채석강에 흐르지 않는 것은 물 뿐이 아니었다

휘모리장단 같은 남도 파도



| 강위석 |

- 월간모던포엠 시 등단
- 새부산시인협회이사, 부산문인협회회원, 사) 부산시협회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청마문학회회원, 남부문학회회원
- 제7회 청마문학제 심사장, 부산시단 17호 작가상, 월간 문학도시 2019 작품상, 부산시단 26호 작품상, 제36회 시의날 부산문인협회장상, 부산시단 35호 작가상.
- 시집 『나는 강가로 나선다』 『길을 버리며』 『산속의 어부』

껍질이 말라붙은 편마암 틈새마다
노오란 달 내음이 찰랑거리는 彩石江
변산반도를 품고 명상중이다

부활 외 1편

곽 병 길

바다에 파도가 친다는 것은
그 속에도 어둠이 산 채로 고통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회오리바람으로 뒤집어 엎어 버린 그 속에는
퇴적 되어온 원망이 내려가지 않았다가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같이 떠가네

미어지는 아픈 가슴을 가져 보았는가
속이 깊지 못해 늘 안고 살았던 근심 걱정이
친구처럼 내 가슴에서 마음껏 노는 모습을 보았는가
희망은 골이 잘 진 지붕에서 빗물, 눈물로 다 씻겨가고
내 몸에서도 골이 파여 피를 흘리고

이제는 아무 말 말고 기다리자
지나가는 눈물 바람이라도 잡지 마라
지쳐서 땅을 파고 올라올 힘이 없더라도
한 줄기 피어오를 잎새에 못 박지 말자



| 곽병길 |

- 2014년 《수필과 비평》 수필 등단, 2015년 《문학도시》 시 등단
- 부산광역시문인협회 회원, 부산 (사) 시인협회 회원
- 부산 수필 문인협회 회원, 수필과 비평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풀잎 하나 떨림으로 지축이 흔들리고
꽃을 피워 내는 하늘의 푸름이 태양을 올려
사뿐히 걸어가는 것을 보면

날아 올라라
순간순간마다 땃힌 마음
모질게 붙어있던 숨은 죄
이제는 꽃처럼 피어서 올라간 하얀 치마처럼
내 속에 숨겨둔 사랑으로
요동치는 가슴에서 끄집어내어 날아오르자
다시 뜨거워지자, 새봄을 위해

십자가

고요한 물결 위에
생각을 놓는다
떠난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내가 품고 기다려야 할 사람
언제나 내 생각 속에 있기에
너의 무게는 아무도 모르게 무겁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나누어 들 수 있는 무게였는데
혼자서라도 걸어가야 할 길
그때까지만이라도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아무리 언덕이 높아도 가슴 치며 돌아보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시간일까
너는 돌아와야 하고
많은 말을 침묵 속에 가두며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견디면서까지
오지 않는 너를 위하여 내 안의 시간을
홀로 너에게 떠나보내야겠다

바다 외 1편

권영숙(어미새)

세상의 물이란 물은 모두 바다로 모인다는데
산에서 들에서 물이란 물은 모두 바다로 모인다는데
강이란 강물은 모두 바다로 모인다는데
바다는 언제나 그 무게 그대로 있네
바다는 언제나 그대로 짝 물이네

| 권영숙 |



경북 안동에서 출생. 부산크리스천문학 백일장 詩 (가을 유리창)장원. 신인상 당선.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부산문학중심 작가회 이사, 부산남구문인협회, 오륙도문인협회 이사, 부산예술인협회 삼양회 감사. 부산문예시대 작가상, 부산문인협회 작품상. 시집 『어미새』 『꽃처럼 눈 뜨는 아침』 『풀꽃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나뭇잎 시처럼 떨어진다』 『새들도 그리워서 산을 넘는다』 『창가에 핀꽃』 『생물같은 시가 흐른다』. 스토리 텔링집 『꽃은 한을 먹고 핀다』. 장편소설 『양들의 분노』

만수산 싸리 꽃

만수산 먹구름 검게 내려앉고
비를 잉태한 바람이 불지만
싸리 꽃 헉헉 숨을 몰아신다
올까 말까 애를 태우더니
굵은 눈물처럼 푹푹 비가 떨어지고
확 소나기가 쏟아진다
고열에 시달린 어린 싸리 꽃
작은 입을 열고
흠뻑 비를 받아먹고 있다
빗속에 붉게 핀 싸리 꽃
고향 생각,
유년 생각이
싸리 꽃처럼 활활 피어난
우중의 만수산 증턱

오월의 노래 외 1편

김 경 희

이제쯤
잘 익은 오월의 농주 맛은
달디 달게 하늘을 주름잡을 듯 퍼질 것이다
진중일 고단한 허리는
이팝나무 그늘이 만져주니
우듬지 앉아 짓궂게 노래하는
까마귀도 어여뻐 보이는 오월

이리도 화려한 오월을 만들어 내게 주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면서
사랑으로 아침 열어주시는 풍성함이 감사해서
이팝나무
그늘에 앉아 휘파람 읊조리며 심을 노래한다

이제
내 익은 심장을 흠치다 들킨 오월의 노을을 건져
그 옛날 소쩍새 등에 업혀 배 주렸던
그녀 불우물에 연분홍 눈물로 고이게 하리라



| 김경희 |

- 2008년 《새시대문학》(시, 수필) 등단, 경성대 평생교육원 경임교수
- 현대문학작가연대 부이사장, 한국 PEN문학 부산지회 부회장
- 부산시사위문화예술협의회 회장,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회장, 대통령상 수상
- 시집 『시는 멜로디를 타고』, 『꽃물 손 끝에 지던 날』 『그대 입술에서 꽃이라 불리던 내 이름』 외 다수

천로 역정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그리고 제가 그 의를 믿지 않으면 저는 멸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는 하늘 같아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지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하시어 당신의 크신 은혜를 보여 주십시오 아멘”

전하지 못한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 부친다
수은등 가로등 불빛에
영글지 못한 내 모습이 수전증 앓는 바람잡이가 되어
시간 속 여린 통증으로 남는다
내가 가는 길에 가득했던 덧과 구덩이
함정 그물이 어리석고 무가치한 나를 가두고
떨어져야 하는 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나
오늘도 가을 산을 향하여
순수 향기 건져 올리니 이 아니 은혜가 아니리오
세상은 말라가고 궁한 내 오늘의 오아시스인가 그대는
어깨에 걸친 새벽에 하나님 빛이 선명히 드러난다
그 이름 천로 역정이어

등불을 끄고 외 1편

김복단

깊은 밤 두 손 모으고
고귀한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없이 다가와 어루만진 손
내 안에 어둠까지도 감싸 안은 채
빛으로 다가온 사랑
문밖에 소리가 멀어질수록
가슴에 맑은 어둠이 퍼지고
함께 한 숨결이 머뭍니다

등불을 끄니 별빛이 켜지고
불빛 속에 꺼내지 못한 말들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읊트면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마다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신 손길
내 숨결이 닿는 곳마다
당신의 손길이 머물게 하소서



| 김복단 |

- 문장 21 봄호 시 등단
- 부산문인협회 회원
- 부산 시인협회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그림나무회원

개구리노래에 봄이 눈을 뜬다

풀잎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이
달빛을 머금을 때
뒤안길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가
풀잎을 춤추게 하고

어둠 속에서 짝을 찾는
개구리노래 끝에
봄이 한 뼘 더 자라면
비에 젖은 흙내음에 풀잎이 입을 연다

밤이 깊어갈수록
논배미 어귀에 숨어있던
떼창으로 쏟아낸 목소리들이 밤새
이불을 밀어낸다

달빛에 솟아오른 초록 목소리
사랑 찾는 개구리들 노래가
내 선잠을 깨운다
봄이 한 번 더 눈을 뜬다

내게 아침이 있다면 외 1편

김 숙 희

기지개로 눈을 찾았다
유리창 일과표가 일렁인 순간
시침은 바쁘게 건너 뚫다

꿇가에 땀돌던 초침 소리가
침묵으로 쳐다본다
옛그제 같던 날개 달린 손

일을 놓은 손이 강물을 만든다
흑백 사진이 된 물결들이
두 손 높이 휘파람을 분다

물 한 잔이 목을 넘어가며
환한 아침을 건네고
나누지 못한 미소를 찾는다



| 김숙희 |

- 시인 수필가 (문예사조2013시등단) (부산크리스천문협2020수필등단)
- 대전지방법원근무 동화구연가
- 부산문인협 새시협 외성문학 사하문협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시집 『오래된 사랑읽기』, 『푸른처방전』

안부를 묻다

나를 둘러싼 온기가 깊어진다
삼년 전부터 내 사는 맛이 궁금한 지
이틀마다 입맛, 잠맛, 걷는 맛을
물어오는 이들이 있다
가끔은 새길만한 잠언과 함께
골 깊은 곳에 곱게 쌓인다
이름을 들추며 안부할 이들을 찾지만
이젠 거꾸로 돌려진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해 달려온다
누구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나눌까
나이테를 보니 몇 밤이나 지내야
다 셀 수 있을지 어지럽다
굽은 허리를 곧추 세워
내게 강물 맛을 물어 오는 이들에게
온기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린다

감물에 물든 엽서 외 1편

김혜영

차 한잔 여유가 그리운 날

여자의 허영일까

뜨거웠던 여름을 도둑맞은
허전한 마음

나를 시샘하는
이 가을

감물에 물든 엽서 한 장
날아든다.



| 김혜영 |

- 〈문예시대〉 시 등단(2011)
- 부산크리스천 문인협회 부회장
- 부산남구 문인협회 부회장
- 가림문학회 이사
- 수상 : 남구문인협회 오륙도 문학본상 수상(2024)
- 시집 : 『춤추는 목각인형』 외6

청춘을 흠치다

빈티지 묻어나는
좁은 골목길

고물 같은 이야기

꼬리치며 감아올리는
깃털 구름

코끝 스치는 헤즐릿 향
통유리 속 불빛

청춘을 흠치다.

성 금요일에 쓴 시 외 1편

- 성찬식

류 정 희

그리하여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니

나직이
속삭이네

그대 살 떼어
내 안에 있어

내 피 뽑아
네 혈관 속으로
흐르고 있나니

마침내
먹고 마시는
생명의 뿌리



| 류정희 |

- 경남 거제 출생
- 91년 월간문학 신인상
- 시선집 『당신은 지금도 오고 있다』 외 다수
- 현 한국시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상임고문
- 부산 사직동교회 출석

영원한 언약
그칠 줄 모르리

빌립보서를 읽고

- 바울서신

그에게는 한계가 없다
한계 없으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복음 전도
또한 거침 없다

인생 가운데
고난은 필수 과목

죽어 가는 땅
가파른 계단
오를 때마다

바닥을 치면
바닥에서 보이던 하늘

나는 보았네
가두었으니 열리던 몸
죽이려 했으나
샷는 기쁨
발자욱마다 애끓는 서신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여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니

그 중에 으뜸이 있나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이라

돌아 보아
이 또한
한계 없어라

굴뚝 속의 담쟁이들 외 1편

박인자

뜨겁고 캄캄한 굴뚝 속에서
절망을 던고 일어서는 씨앗들
저 높은 곳에 한줄기 빛을 보았다
그 빛을 향해 어둠 속에서
어두움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어두운 굴뚝 속을 기어 오른다
너무 힘들다며 손을 놓고
포기하려는 동료의 손 꼭 붙잡고
함께 어두운 굴뚝 속을 오르고 또 오른다
혼자가 아니어서
함께라서 더 아름다운 담쟁이들

마침내 빛이 환한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가 서로 축복하는
그 밝은 빛 가운데 올라서서 함께 손 흔든다



| 박인자 |

- 《시와수필》 (2013 가을호 수필 등단)
- 《문학도시》 (2023 2월호 시 등단)
- 시집 『내 마음의 창』 (2021)
- 부산문인협회, 신서정문학회, 부산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봄의 전령사 매화꽃

겨울이 떠나기 싫어
발버둥치며 하얀 눈이 내렸던 자리
매화꽃이 활짝 피어 웃고 있다
어둡고 추운 사람들에게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

꽃은 그냥 피지 않는다
한겨울의 찬바람 견디며
눈비 맞으며 다져진 내공
인고의 세월이 매화꽃으로
찬서리 제치고 달려와 봄을 알린다

아직도 얼어붙은 길 위에서
방황하는 마음과 마음에게
봄을 알리기위해 숨가쁘게 달려와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믿음을
계절이 바뀌었다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목련 외 1편

배혜숙

뜰에
목련을 심으며
설레입니다

잎 푸른 여름 지나
긴 겨울 무성한 눈발 이겨내면
첫봄 싸늘한 기운속에서
봉우리 터트리겠지
성숙한 여인처럼
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뜰에
목련을 심으며
설레입니다

그 아름다움 그 환희의 날엔



| 배혜숙 |

- 목사 (부산 희망의 교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시집 : 울고있음은 (규장), 꽃처럼 불처럼 (규장), 사랑하는 이여 그대앞에 (규장)

흰무리 꽃밭에 서서 노래 하리라
찬 겨울 아픔은 씻어버리고
봄우리 티트리느 우아함 곁에서
나도 성숙되고 싶어라
나도 아름답고 싶어라

봄바람

봄바람
생명의 바람

봄바람
꽃피우는 바람

봄바람
사랑의 바람

봄바람
부활의 바람
환희의 바람

시린 봄날 외 1편

손정란

달음박질하던 봄 향기 거실 끝에 머문다
백화점에서 사 온 보랏빛 인조꽃 한 아름
난초 가꾸던 남편이 던지는 웃음소리

“온통 조화 투성이, 여기가 공동 묘지인 줄 알겠네”

거실 뚫은 울창한 고무나무 내리치자
숫구친 흰 피를 흘리며 넘어진다
그래야만 했지,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곁에 있던 이가 별되어 떠난 시린 오월
길을 걷다가도 얼룩지는 핏빛 눈물자국
손뜨개하다, 설거지 하다 맏히는 방울들
언제부터였지 혼잣말 하는 버릇은



| 손정란 |

- 시인, 수필가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부산 문인협회 회원,
- 새 부산 시인협회 이사, 그림나무 시문학회 부회장, 노마드 문학동인
- 시집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암호를 푼다』

강물과 어깨 한 이팝나무 아래 꽃이 진다
바람 흔들자 그댈 향한 서러움은 요동치고
띄워 보낸 꽃잎 편지 바람에 날다 멈춘다

유월 무르익은 화창한 날에
수국 바구니 가득 채운 설렘 안고
그대 산에 올라 수채화 물감을 푼다

오일장

‘어린 시절은 봄날이었제,
항시 내 오른 팔인 아버지는 얼음도 녹였지’

아홉 살을 토렴하는, 질편한 장터 국밥집 순이
후한 국물과 구수한 살코기에 침이 넘어 간다

오시개 시장은 오라하지 않아도 온다
서랍장과 화장품,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온기가 많고 물건도 많은 오시개 시장
구경 가든지, 먹든지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

옷 장사들은 지나가는 멋쟁이를 부르고
유리창 안, 꽃 화분 웃음소리 내다 본다

‘등산 양말 천 원, 수면 양말 이천 원’
트럭 위 녹음기는 돌아가고
바람에 매달린 양말도 돌아간다

손이 열 개, 남다른 몸짓으로 발자국 찍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이 눈에 부시다

모두 오시개, 오시개 시장

은혜 외 1편

송 정 우

개들은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미들은 맨땅에 떨어진 꽃잎을 핥는다

허공을 향해 까악까악 하는 까마귀
동백 꿀을 훔친 동박새가 수다를 떠다
찌지리 찌지리

큰잎 벌려 햇빛을 받는 떡갈나무 아래
땅딸나무 흘러내린 빛 방울방울 줍는다

아, 해안가 고층 숲 먹그늘에도
수면이 나누어주는 빛이 스민다



| 송정우 |

〈문학도시〉 등단.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 부산문인협회 이사, 국제PEN한국
본부 재정위원,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전기 『청보리 언덕에 핀 페이지』, 시집
『계절풍이 분다』외 2권, 산문집 『길에 창을 내다』(2020 ARCO문학나눔도서 선정),
국영문시화집 『꽃피운 한 걸음』, 산문집(e-Book) 『시간과 공간의 변주』 등

월동화 越冬花

선한 농부 마당에
해갈이 양털이 쌓인다

광야에 유배되어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홀로서기

잃어버린 길에서도
걸음 멈출 수 없다

빛나는 하얀 대지
암흑 같은 동정 童貞
순결이 꽃망울진다

춘분 외 1편

신 선

자목련이 말을 걸어온다
어린 이슬은 풀잎 위에서 나뭇잎고
영롱한 햇살이 쬐는 하프 속으로 나비들이 날아든다
비비추난초가 포롭한 입술을 내밀자
해시계는 암호를 풀어낸다

블라인드가 이마를 걷어 올리면
푸른 하늘은 새털구름 한 자락 잘라내고
나는 풍금의 페달을 밟는다
부풀어 오르는 그리움이 포물선을 그릴 무렵
눈부신 아침은 종종걸음 친다

내 안에서 무수히 피어나는 봄날
양 떼들은 초원을 게워낸다



| 신 선 |

- 〈봄의 현상학〉 외 다수,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고문
- 부산시인협회 본상 수상, 부산크리스천 문학상

강물이 일몰을 스케치하는 사이
언덕은 봄 물살을 흔들고
빗살무늬가 바람의 어깨를 휘감는다

잘 익은 어둠이 기억 한 장 꺼내면
안테나에 감긴 터널이 이정표를 펼력인다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별들은
젖은 눈시울을 닦는다

수산 지나며

거미줄에 휘감긴 빈집들이
떠난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담벼락에서 떨어지는 추억들이 흙덩이를 떠올리고
돌담은 지탱할 수 없는 근력을 다진다

가로수는 마른 기침을 하고
비포장도로가 덤블링을 한다
분주한 그림자들이 영토를 변경하는 동안
거친 길의 무릎이 아려온다
하루살이들 웅성거리며 모여들자
허리 휘어진 골목이 휘돌아 선다

마을에 들어서면
해쓱한 이정표가 정지된 적막을 적신다
햇살들이 뛰어다니는 동네 어귀에서
포장도로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이 투덜대고
비가 다녀간 후 땅바닥의 가슴팍이 꺼져 있다
길을 잃은 벽은 허공에 매달린다
유년이 떠올리는 기억 속으로
흐린 안개가 자욱하다

꽃잎에 쓰는 편지 외 1편

신 현 숙

목련 꽃잎이 촛불처럼
봉긋이 눈 뜨는 아침
사랑하는 그대 위해
나는 기도 합니다
새벽 같은 푸른 기운이
그대 슬픔 덮어 주기를

겨우내 시달린 가슴앓이
손끝만 닿아도 멍이 드는 여린 가슴에
봄별 일어서는 눈부신 정오

찢어진 백지처럼 꽃잎 흩어진
목련나무 아래서
꽃잎에 편지를 씁니다
내 맘이 꽃잎처럼 찢어집니다



| 신현숙 |

- 창조문에 등단
- 창조문인협회 회원, 부산시인협회 회원,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시집 『상처는 향기가 난다』

하얀 눈물이
꽃비로 다 떨어지는 날
그대 얼굴에는
만개한 웃음꽃 피어나겠지요

무엇으로 남으리

창밖에 새 한 마리
베란다 앞을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생각할 겨를 없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어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니 까마득합니다
저만치 떨어져 간 시간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목적지 모를 세월은
어느 날 나의 정거장에 내려줄텐데
오늘이 어제 되고 내일이 오늘 되는
지금 여기에서
나는 무엇으로 남으리

아쉽지 않은 것 있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것
머물지 않는 오늘을

향유 부은 여인처럼
그대 발등에 부어 주는 것
따스한 눈빛
다정한 말 한마디
그대에게 향기로 건네주는 것

오늘이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슬라이드 화면처럼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보름* 외 1편

- 바울행전 14

양 왕 용

예수 믿는 자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떠난 지 3년여 만에
몰래 숨죽이며, 이 도시 다시 왔노라.
어린 소년 시절 다소에서 이곳에 와
가마니엘 문하에서 공부한 나를
산헤드린의 반열까지 올려준 이 도시
이제는, 주 예수의 공생애 자취
제자들과 함께 걸어보기 위해 왔노라.
그러나 그들 모두
다메섹으로 떠났던 내 모습만 기억하며
만나기를 꺼리는구나.
그 때 구부로 사람 떠나바가
다메섹에서의 나의 회심을
아나니아로부터 들었다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소개시켜

| 양왕용 |



1943년 경남 남해군 창선도 출신. 진주고, 경북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동 대학원 국문과 졸업(문학박사). 1966년 김춘수 시인 3회 천료(월간 시문학)로 데뷔. 시집 『천사의 도시, 그리고 눈의 나라』외 8 권. 연구논저 및 비평서 『정치용시연구』, 『한국현대시와 디아스포라』 『김춘수평전』외 8 권. 시문학상 본상, 부산시 문화상(문학 부문), 한국크리스천문학상(시 부문), 부산시인협회상 본상, 한국현대시인협회 국제교류 대상 등 수상. 부산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등 역임. 현재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재>복음장학회 이사, 한국현대시인협회 명예이사장, 동북아기독교작가회의 한국 측 회장,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고문

보름 동안 그와 침식을 같이 하며
주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을
날날이 들으며
머물었던 장소도 방문하였노라
비아 돌로도사 그 길 걸을 때에는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내 자신의 다메섹 이전의 행동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노라.
생전에는 육신의 형님으로만 생각한 야고보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변화한 경과 들으며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난
주 예수님의 큰 뜻 되새겼노라
그래서 주체할 수 없어
내 회심의 과정을
유대 회당에서 간증하고 또 간증하였노라.

*사도행전 9장 26-30절, 갈라디아서 1장 18-19절 참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 바울행전 15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떠날 때
내 당당한 모습 부러워하던 유대인들
도대체 내 말 듣지 않노라.
스테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나를 본 그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내 말 듣자
오히려 더 흥분하여
나를 돌로 쳐 죽일 궁리만 하는구나.
주여 도대체
이를 어찌하오리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노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 예수의 말씀 순종하려 할 때
바나바와 많은 형제들
가이사랴로 가 배 태워
내 고향 다소로 떠나보내노라.
내가 떠나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할지니 눈물을 머금고
고향 다소로 떠나노라.

*사도행전 22장 17-21절, 9장 29-31절 참조

안부 외 1편

양윤형

내가 살던 옛집 앞을 지날 때
담벼락에 올라 목젓을 드러내고
잘살고 있다고 손짓하는 능소화

그래 반갑다
오가며 너를 보려고
햇살을 가르고 대문 앞에 묻어 둔 지가
몇 해더냐

이사 가는 날 칭얼칭얼
따라갈래 따라갈래 앞장서며
덩굴 넝쿨 늘어지더니
염천에 보름달 같은 얼굴을 하고 반기누나

그래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란다



| 양윤형 |

- 2001년 《한국시》 등단
- 시집 『숲으로 가는 길』 외 4권
- 야생초 연구가, 산야초 효소원 운영
- 2017년 문화예술부문 부산시장상
- 2017년 영호남 문학작품상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장

좋은 사람

눈 내리는 날
황홀한 빛 속에
아름다운 슬픔이 있어
차 한잔 나눌 사람 그리웠다

살다보니
첫눈 오지 않아도
바닷가 찻집에 앉아
그 사람 눈망을 속으로
파도 소리 듣는다

노을을 건너
서로의 마음 더듬어보는
내게 우산 같은 사람
서로의 추위를 안아주며
행복하라 기도할 수 있어
좋은 사람아

그땐 몰랐지 외 1편

이 가 언

대구로 전학 가던 그해 여름
책가방에 시골 매미 몇 마리 넣어 갔지

피란민들이 살았다는 동네
온통 새까만 아이들만 오종종한테
얼굴이 하얀 아이 하나 있었지

새카맣게 구운 매미 한 마리
부끄럽게 손 내밀 때

기겁하며 달아났던
영영 친구하지 못한 아이

그땐 몰랐지
그 아이 왜 그러는지



| 이가언 |

- 경북 경산 출생, 2024년 월간 《문학도시》 시 등단
- 부산문인협회, 문학중심작가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명예교수

윤슬 예찬

물빛 용단 위에서
태양이 안무하는

수천 마리 은빛 나비 떼의
찬란한 몸짓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꿈틀거리게 한다

눈 내린 승학 산 외 1편

賢智 이 경 옥

굽어 도는 강물이
삼각주에 다다르면
너의 품이 포근하여
떠나가지 못하더니
한 마리 학이 되어
날아 오르는 창공에
어미의 사랑 따라 굽어 돌아간다

하얀 옷 너울 너울
산 자락에 걸쳐 놓고
휘영청 달 밝은 날에
님 그림자 생각하며
행여 바람 속에 들려올까
종긋 거리는 꺾불엔
간지럽히고 가는 빈 바람 소리



| 이경옥 |

- 월간 '한백문학' 시 부문 신인상 등단(2008.1)
- 서정문인협회회원, 부산사하문인협회 편집장,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회원
-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회회원
- 2009년 서정문인협회 대상 수상

양지녘에 햇살만큼
너의 숨소리 반갑구나
질퍽이는 마음속에
씻은 듯한 순결함이
너와 함께 오른 승학산 줄기
마주 보던 눈빛 속에 숨어 들어
땀방울 흘러 내리는 시린 손
청량한 솔 가지 바람에 녹이 누나

다시 그리는 그림이고 싶다

하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린다
산들바람이 분다

지나간 어제의 시간은
까만 밤을 지내며
출렁거리는 파도 위에 놓아 버렸다

부서지는 하얀 물결이
백사장의 흔적을 씻어 가듯이
너의 자리를 보내 버린다

다시 그리는 그림이고 싶다
붓 가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혼동을 두지 않고

채곡 채곡 채워져 갈
수 많은 이야기들이
깔 깔 거리는 보자기 속에 춤을 추며

눈물 외 1편

이 귀 선

연기자의 만든 눈물
참으로 실제같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때
주룩룩 흐르던 눈물

어머니의 임종 시
소리내어 울 때
똑똑 떨어지던 눈물

아들이 선교지로 떠나는 날
비행기가 창공으로 사라질 때
꺼억 꺼억 목구멍까지 차 오르던 눈물

불꺼진 교회당 뒷 자리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계속부르며 흘리던 뜨거운 눈물



| 이귀선 |

- 부산문학 시부문 등단
- 시집 『나를 연주하는 이』
- 부산크리스찬문인협회 회원

더 흘릴 눈물이 아직 있으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해서 흘릴 눈물만 남아다오

단팥 빵

먹음직스러운 단팥 빵
겉 붙은 뽕지르르
갈색으로 잘 익은 너

교회 오래오래 다닌 자
어디 가도 간판은 멋지다
중직자로 내세울 만한
충분한 신앙경력

단팥 빵처럼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누구에게나 인사 받는 사람
아무렴 당연하지

주님이 빵을 드시려
잘라보니
아뽕싸
뽕이 가득 들어 있네

동백나무 식탁 외 1편

이 둘 자

아기 동박새

꽃밥 먹는다

반짝이는 잎사귀 식탁보 위에

차려진 밥상

놀다가

먹다가

먹다가

놀다가



| 이 둘 자 |

- 2016년 《문학도시》 동시 등단.
- 부산문인협회, 부산아동문학인협회, 부산광역시 남구문인협회, (사)한국편지가족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 동시집 2019년 『민들레의 재능기부』, 2024년 『꽃밥』.

초대장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가만히 옆에 있어야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살짝 만져 봐야지
조용히 식사기도 들으며
제일 먼저 무슨 음식 드시는지
남기지 않고 밥은 다 드시는지 봐야지
아픈 아빠는 어떻게 대하는지
간호하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지
외출할 때도 따라가야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표정 짓는지
타고 내리는 사람들과 인사하는지도 봐야지
전화 받을 때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목소리도 들어야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알아볼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하나님
하루만 우리 집에 오세요
소문내지 않을게요

몽돌 외 1편

이 선 화

모가 나서 잘나서
내 생각이 옳아
이사람 저 사람
가슴에 상처를 준다

어느 날
모진 폭풍우 몰아치고
비바람 속에 길도 보이지 않아
광야 길을 달려간다

낮아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니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
길가는 걸인이 부러워진다



| 이 선 화 |

- 경남 사천 삼천포 출생, 시낭송가
- 가림문학회, 부산문인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영도문인회 회원
- 한국가림문학상 수상
- 시집 『인생은 바다』

몽돌처럼
매끈하게 다듬어진 동그라미
삶의 무게를 알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은
무게를 달 수 없이 무한하다
창조한 그날부터
우주에 가득히 채워져 있었다

사랑을 뺏으려고
생명을 잃어가면서
피로 물들이는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 먼 하늘만 바라본다

사랑의 강물이 넘치는 곳에는
잔잔한 호수가 되며
폭풍 속에도 파도를 타지 않으며
미소로 손짓하며 희생을 한다

사랑의 힘은
아가페 사랑의 줄이
우주 공간에 가득 담겨져
하늘 문이 열리며 소망을 심는다

하루살이 외 1편

이 승 훈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고마웠던 기억으로 살려고 했다

동역자에게 화살을 쏘았다
돌이키지 못해 내 탓이요 자책했다

성도가 아프다는 기도문이 올라왔다
히스기야의 이기주의를 지워버렸다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붉은 노을을 통해 비로소 알 수 있었다



| 이승훈 |

- 경남 함안 출생
- 부산가야교회 안수집사
- 前 법무부 교정공무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신인상 수상(2020년)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서기

재개발 지역

당아새 고슴도치 산다는
이사 간 교회 앞으로
흰머리 할머니
보잉기를 힘겹게 밀고 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라진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면
비밀을 간직한 녹슨 대문이
빼꼼 열려 있다

담벼락에 새겨진 붉은 글씨
모질게 살아온 김씨 아저씨
상처를 닦았다

살을 후비고 뼈를 갈라치는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면
뿔뿔이 도망간 사람들
살아서 다시 돌아오겠지

별처럼 살고파라

임 병 주

새싹 파릇 움 돋고
꽃들 불긋 피어나고
봄은 은근 돌아온다

물레방아 물을 안고 돌 듯
미련들을 움켜쥐고 구른다

세사의 누더기 벗어 던지고
높푸른 하늘로 뿔박질하여
은하수 별처럼 살고파라



| 임병주 |

- 경북 달성 출생
- 대구 계명대학교 철학과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우리글 문학 신인상 수상 등단 (시부문)
- 부산크리스찬문인협회 회원
- 해운대 새생명교회 담임목사(현)

고난이라는 터널 끝에는 외 1편

정 명 진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항상 붙들어 주신 주님

가늘고 긴 끊이지 않은 뗏줄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끈으로

깜깜함 속에서
멀리 보일 듯 말 듯한
호흡의 빛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깊숙이 떼어본다

그 끝이 올 수 있을까
저 빛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 정명진 |

- 2018년 부산문학 문학도시로 시 등단
-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시사위 문화예술회 회원
- 시낭송가
- OCEAN JADE SHIPPING 실장

끝끝내 마주한 터널의 끝 지치고 터진 내 심령 위로
새로운 생명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승리에 실린
보잘것 없고 연약한 우리의 고난

고난을 응원하며 빛으로 가는
그 길을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아직도 우리 아빠는 공사 중

- 25.03.30 주일 강단 말씀

내 두 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음이 있다
살아 움직이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귀한 마음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지금은 내 두 손에 있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내가 살려내야만 하는

나의 뜨거운 눈물이
답아내야만 하는

아빠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기대할 수 없는
차갑게 식은 마음

바나바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만 보이는

살려내야만 하는
뜨거워져야만 하는
위로받아야 마땅한

하나님 심장에 있는
아빠의 마음이다

아름다운 이별 외 1편

글향 정연원

화사한 봄날 오후
60대 머리에 흰눈 쓴 딸이
90대 엄마를 부축해
횡단보도를 강처럼 건넌다

곱게곱게 키워
시집 보낸 딸이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함께 걸어간다

길섶에 떨어진 동백꽃
푸른 하늘을 보며
더 빨강게 울음 운다

마지막 봄이 될지도 모를



| 정연원 |

- 『문학도시』(2016) 시 등단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상담 석사
-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천문인협회 회원
- (사)자살예방전국학교연합회 부산시 부회장(생명존중 전문강사)

늙은 엄마 손 꼭 잡고
동백꽃이 뭍겨 누운 길을 천천히 걸어간다

한 생이 저물어간다
길옆에 툭툭 떨어진
저 붉은 동백꽃보다
더 아름다운 이별이
저멀리서 손짓하고 있다

못내 아쉬운 인생소풍
함께라서 고마웠다고
엄마와 딸이라서
정말 행복했노라고

고로쇠물을 마시며

10년 전 땅끝마을 여행길에 마셨던 달짝지근한 고로쇠물!

그맛이 그리워
택배로 시켰더니
빛의 속도로 달려왔다

젊은 시절 미처 몰랐던
엄마의 곡진한 사랑을
고로쇠물을 마시며 깨닫는다

엄마의 봄날은
너무 짧아 추억조차
슬프고 빈곤하다

엄마 인생의 9할은
찬바람 윙윙 울던
혹독한 겨울이었다

그 인고의 겨울날 흘린
엄마 눈물이 고여
고로쇠물이 되었다

달짝지근한 물을 입속에
넣고 엄마의 겨울을 찾다
이내 뜨거운 눈물을 만난다

당신의 뼈를 깎아
자식의 뼈를 키웠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너무 일찍 별이 되신
엄마가 그리워 밤하늘을
가만히 올려다 본다

고로쇠물처럼 맑은
은하수가 눈물강이 되어
흐른다
가슴 한가운데로

앙리마티스의 눈물 2 외 1편

최귀례

낙숫물에 뒤섞인 곡소리
화살나무는 살풀이춤을 춘다

빗물은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줄행랑치고
바람이 밀어
열리지 않는 창과 벽 사이에 낀
은빛 나신이 건네는 전문은
숨 가쁘게 급물살을 탄다

다 읽어 낼 수 없는
낮은 경륜이 요동치는 저녁
일그러지는 바람의 소견대로 넘어진다
파장을 일으키며 투신한다
안타까운 시신들의 영정은
상두가의 슬픈 가락에 끌려 나가고



| 최귀례 |

- 2003년 『문예한국』 등단, 2021년 『창조문예』 등단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고문
- 시집 『폴 세잔느의 여행』 『타인들의 마을』 외

빛을 잃은 흔적은
더디게 질질 끌리어 뒤따라간다
적막의 여운과 함께 떨어지는
앙리 마티스의 눈물은 주홍색으로
채색 된다

컴퓨터 앞에서

내가 사유를 비워내는 동안
차 한 잔을 놓고 자판을 두들긴다
테이블과 의자 사이에는 공간이 없다
거울을 보듯 아담한 집 한 채를 떠올린다
워드 치는 오른손가락은 굳어있다
나는 팔꿈치를 고정해 채
전신을 버려두고 가출한다
모니터에서는
오리무중의 혼돈이 지속되고
내 혼절한 회로들을 끊어낸다
이쯤에서 경계를 그어야 한다

나는 한 시대를 거슬러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의 눈을 스쳐간다
라파엘로의 아름다운 성모상은 침잠해 있다
나는 어긋난 시간을 통해 만난
찰나를 구축 한다

오월의 나무 외 1편

최 만 공

아린 통증으로 가지가 부르티고
둥치에는 아픈 기억의 혹들이 드문드문해도
오월의 나무는 초록의 무성한 잎들로
희망을 속삭여 준다

나무는 어머니의 품 같으니 나 어릴 적
기대어 눈물짓던 흐느낌도 받아주었고
오늘 늙은 나의 메말라 가는 심정에
새로운 눈물도 잉태하게 하니

오늘도 네 그늘에서 참된 지혜에 눈 뜨고
모진 풍파에도 새 계절이 되면 환호하는
너의 웅혼함에 나도 소망의 기도를 읊조린다

나무로써 만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새소리로 바람 속에서
소리로 움직임으로 초록 색깔로
우리를 보듬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 최만공 |

- 부산크리스찬 문인협회 이사
- 청옥문인협회 이사
- 부산문인협회 회원
- 청옥문협 등단(2016)
- 시집 『신비한 성좌』 『들꽃처럼 뭇별처럼』

리 캐니언의 눈발

사막의 도시 네바다 뜨거운 땅 변방 찰스틴 산맥
그의 머리와 가슴엔 하얀 눈발이 신비롭다

이 손짓에 이끌려 리 캐니언 로드를 따라
해발 팔천 피트의 고산 도로를 오르고 오른다

리 캐니언 썰매 타는 언덕 눈발엔 이르면
모여든 가족들과 어린아이들
하얀 천국에서 눈부시게 행복을 즐기고 있다

옛 에덴동산이 봄날의 꽃동산이었다면
리 캐니언의 동산은 하얀 눈발의 겨울 에덴 같아라

* 리 캐니언(Lee Canyon)은 네바다 주 변방의 찰스틴(Charleston) 산맥에 있는 협곡으로 그곳의 한 비탈엔 썰매장이 조성되어 있다. 해발 2400m의 고산 지역에 한 번씩 비가 올 때에는 이곳에 눈이 쌓여 베가스 도심에서 보면 만년설처럼 하얀 눈이 쌓여있기에 신비롭게 보이기도 한다.

시조

김민주 | 주님 주신 달란트 치유은사 외 1편

모정희 | 쓰르라미 울던 날 외 1편

윤평원 | 언약의 신뢰자 갈렙 외 1편

윤현수 | 포도원 품꾼 외 1편

임병주 | 당신과 나

허성욱 | 남천동 빛꽃 구경 외 1편

주님주신 달란트 치유은사 외 1편

- 신앙간증

김민주

인내는 쓰다 결과는 달콤하다
학문에 코 박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달려온 한평생 인생길 돌아봐도 후회 없네

때론 화려한 그림으로 살았고
때론 고상한 시인으로 살았지만
세계 속 주님주신 달란트 “빛과 소금 박사”

이웃사랑 돌아보고 병든 자 아픈 자 위해
30여 년 치유은사 간절한 소망 기도
무지개 눈부신 금빛 넘쳐나는 날이여라.



| 김민주 |

- 1999년 경남문학 시 부분, 시조문학 시조등단
- 작품집: 그리움은 바다가 된 다. 그 사랑은 걸작 품 외
- 현: 무지개 연구소 운영 (상담, 치유, 교육)경영학 박사&칼라테라피

“빛과소금” 칼라테라피 치유닥터가 되기까지

새벽통증 시작되는 김붉은 동녘햇살
여인의 산고 끝 자궁이슬 피 흐르듯
천.지.인 인간과 자연 쌍의 원리 하나라네

“열정”의 어원은 신을 품은 자
영성의 영안 일억 오천거리 열어 주시매
태양 속 무지개 생명의 빛 춤추듯 일렁이네

“빛과 소금” 주님주신 언약의 비밀 캔
3,40년 치유임상 세계 속의 최초 논문
인내의 칼라테라피 치유닥터 축복의길

“너는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 하였고
오직 아바 아버지 품안에서 기도 손끝
범사에 신뢰 인정하라 너를 지도 하시리라”

쓰르라미 울던 날 외 1편

모 정 희

눈꺼풀을 비집고 들어온 새벽이슬
사라질 마디마디 물빛으로 꺾낸다.
병어리 저린 가슴판 자음모음 수를 놓고.

상자속 파닥이는 투명날개 숨을 쉬나
쓰레기라 버리라는 양갈진 목소리에
무릎에 가닿은 눈물 상자문을 열어간다.

시간의 물빛소리 부끄러움 더해가나
우듬지 빛난 자리 새벽달이 남았기에
가을을 재촉하는 쓰르라미 더욱 운다.



| 모정희 |

- 2011년 《시조시학》 여름 신인상 시조 등단
-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재무
- 유엘인교회 전도사 · 부산구치소 교정위원(교육)
- 저서 『노을강 붉은 매화향』 외 2권

퇴근 후

식은 밥 곁절이에
참기름 팍팍넣고

너털 너털 하루해
질경 질경 씹어본다.

구멍난 양말 끝자락
푸르맹맹 엄지발톱

언약의 신뢰자 갈렙 외 1편

산돌 윤 평 원

정탐자 열두 명 중
여호수아 갈렙만이
여호와 언약 믿고 자신감 넘치누나
만유주 그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이기리라

확신하는 갈렙 눈엔
아름다운 가나안 땅
네페림 후손인들 두려울 게 뭐 있으랴
여호와 그가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들이시리

온전히 신뢰하여
능력 받고 힘 얻어서
노구老驅에도 강건하여 곤비困憊치 아니하니



| 윤평원 |

- 거제 출생, 부산대학, 고려대학에서 수학, 부산사대부고 교장
- 부경교회사 연구회 지도위원, 크리스천경남 편집위원, GMP부산지역 이사,
- 한국언어학회회원, 한국전문용어연구회원 역임,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 수필집 『석등무니 인생』(2012.4), 『이런 교회가 있었네』(2012.12), 『나이야 가라』(2020.11), 시조집 『정감이 물어나면』(2019.10, ebook 2020.4), 『아무렴, 감사하지요』(ebook 2021.2)

언약의 헤브론 산지
기업으로 받았었네

여호와 함께 하니
그 누가 당할 건가
언약의 신뢰자요 믿음의 표상이라
독수리 날개 침 같이
훨훨 날아 올랐도다

* 시작의 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यो,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40:30-31)

하늘에 걸린 사다리

돌 골라 베개 삼아
흔곤히 누웠더니
버림받은 아픔에다 외로움이 돋쳐나고
어둑발 이불이 되어
하늘 꿈을 꾸는구나

잔피가 대수더냐
이내 인생 끝장이니
무엇을 바라고 살까 절망하며 잠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꿈속에서 보았구나

하늘 닿은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이르는 말
허락함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 이르는 말

두렵다 이곳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이 돌로 야웨 집 짓고
주신 은혜 보답하리

* 시작의 변

야곱이 벳엘에서 꿈을 꾸어 이야기에서(창세기 28장 10~22)

포도원 품꾼 외 1편

多才 윤현수

누구나 내게 오라
무조건 청하시니
제각각 대응하고
믿음의 선후先後바뀔
하나님 무한한 사랑
변함없이 부르심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의 크신 사랑
죄인을 찾으셔서
공활을 배 푸시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4 말씀



| 윤현수 |

- 아오 다재多才
- 광안생명교회 은퇴장로, 현재 (주)영남교통 전무이사
- 2018년 11월 계간(청옥문학) 시,시조 등단
- 청옥문학협회 시조분과 회장, 석교시조문학 이사,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저서 : 시조집 『마음에 담은 세월』, 석교시조22인 선집 외 다수
- 수상 : 2021년 석교시조 우수상 수상

매미의 외침

멤멤~멤 나도 한번
외치네 속 후련히

태평은 어딜 가고
나라꼴 왜 이럴까

사람들
교만 방자함
동방예의 역주행

당신과 나

임 병 주

인류의 악한 죄를
껴안고 가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랑을 다 하시려

당신의 양어깨 위로
지고 가는 세상 죄

우리는 남의 죄를
비웃고 비방하며

자신의 실수 허물
감추며 살아간다



| 임병주 |

- 경북 달성 출생
- 대구 계명대학교 철학과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우리글 문학 신인상 수상 등단 (시부문)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현)
- 해운대 새생명교회 담임목사(현)

죄악과 거짓에 묶인
주체자가 바로 나

대속의 살과 피를
먹었고 마셨었다

이전엔 십자가를
잇은 채 살았지만

작금엔 당신과 내가
하나 되는 십자가

2025. 4. 14. 월. 밤

남천동 벚꽃 구경 외 1편

허성욱

명광교회 지나가는 봄소식 한 자락이
상가 옆 벚꽃 나무 방문객 손잡으며
여기서 부이(V) 그리며 사진 한 장 남기잔다.

배고픈 유체역학 대기를 건드리고
꽃잎들이 나을나을 춤을 추며 날아가면
아가가 아장거리며 그 뒤를 따라간다.

만나는 나무마다 아는 척 눈길 주며
휴대폰 들이대는 아마추어 사진작가
잠시도 한눈팔 줄 모르고 셔터를 눌러댄다.

문 닫고 떠난 주인 애타게 기다리는
수영장 스쳐 가는 승용차 엔진소리
한 블록 더 지나가라고 길 안내를 하고 있다.



| 허성욱 |

1984년 시조문학 전료, 시조집 『월포리 사설』 외 3권, 산문집 『하나님의 종려장』 외, 성지교회 교사 정년(녹조근정훈장), 크리스천문학상(2021), 거제교회 기관목사, 허성욱심리상담클리닉 원장

삼익비치 가운데 길 남단에서 북단까지
그리고 해변 산책길 찬찬히 걷다 보면
멀리서 다가오는 물결 유람선을 띄운다.

(2025.4.14)

일몰 소견

지하철 구포역의
강변 출구 밖에 서서

강 건너 대저 평야
뒷산 마루 바라보니

온종일 세상 비추던 해가
서산을 넘어간다.

해가 내려갈수록
산마루가 붉게 타고

수직 하방으로
강을 뚫는 금빛 노을

별경계
달귀진 강물의
운슬 따라 흔들린다.

수필

강신구 | 반지

공기화 | 다섯 악동을 떨어뜨리려고

구애순 | 천사는 세상에서 고생한다

김은희 | 봄날의 노을 냄새

김해용 | 21년 만에 한 사람 전도하고 농촌을
떠나오다

노장현 | 나무들의 변화

명인숙 | 신앙의 봄을 만나다

성윤자 | 모심기

이준우 | 배움의 날개

전진경 | 그때의 나는

조광순 | 하루 여행

한인환 | 여우가 나타났다

반지

강 신 구

손가락이 허전해서 보니 무엇이 없어진 것 같다. 놀린 자리만 있고 반지가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이게 어디로 갔나. 허둥지둥 뒤졌다. 아차 당구장 장갑에 끼여 빠졌구나 싶어 서둘러 달려갔다. 벗어놓은 장갑 상자를 열어놓고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려 살폈다. 나타나지 않자 치던 자리를 요리조리 구석구석 알뜰히 찾아봤지만 간 곳이 없다.

주인에게 청소하면서 봐달라 부탁했다. 방안 옷가지 위아래 주머니에 있나 살살이 넣어봐도 있을 기미가 없다. 책상 위와 모서리며 침대 좌우 아래 이불을 들쭉거리려도 감쪽같다. 손 씻을 때 세



| 강신구 |

- 《문학도시》 215호 사랑방 등단
- 성파시조문학상, 부산수필문학상 수상
- 시조집 『을숙도 갈대』, 『갑령의 하나님』
- 수필집 『아아산 기슭에서』, 『밀국수』, 『맹금머리』

제를 써서 미끄러워 빠져나가지 않았겠나 해서 세면대를 둘러봤다. 구멍으로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들어 떨그럭거리니 아들이 도와줬다.

무거운 사기 커버를 들어 올리고 나사를 풀어 재졌다. 꼬불꼬불한 파이프 매듭 쇠를 풀러니 그대로 부서져 바닥에 푹푹 떨어진다. 무슨 쇠붙이가 이러나. 새까만 찌꺼기가 몽글몽글 나온다. 물이 잘 안 빠졌다. 이제야 보니 머리카락과 끈적한 것들이 가득 차서 거의 막혀가고 있었다. 그러잖아도 고치려 했는데 반지 덕분에 잘됐다.

다 엉망으로 버려놨으니 고쳐야 했다. 무슨 쇠가 흙덩이처럼 부서지나. 돌리는 나사가 쇠붙인데 손으로 돌리기도 전에 나무껍질처럼 떨어져 나온다. 보이지 않는 덮어씌운 곳이라고 그런 자재를 써도 되나. 가당찮은 시설이 못마땅하다. 밝고 앞서가는 오늘날인데 이래도 되나. 망가뜨렸으니 이걸 어찌나. 당장 사용해야 하는데 철물점에 들러 부품을 구하고 반지도 찾을 겸 목욕탕을 찾아가 볼 요량이다.

거추장스럽던 옛 것보다 더 좋은 세면 설비가 나와서 샀다. 아들과 엮드려 맞춰보면서 겨우 완성했다. 빼내는 데도 어려웠다. 무엇이 박혀 꼼짝달싹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맞춰놓고 보면 물이 줄줄 새어 다시 손보기를 여러 번이다. 알고 보니 손쉬운데 처음이어서 서툴기 짝이 없다.

그나저나 없다. 여기에 들앉아 있지 않았겠나 여겼는데 야단났다. 다 뜯어내 펼쳐놓고 뒤적거렸지만 찾을 수 없다. 험상궂게 어지럽혔다가 고쳤어도 곧 들통이 날 것이다. 아내가 알면 칠칠치 못하다

한 소리 들을 게 뻔하다. 그런데 요것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보니 언제 없어졌는지도 짐작이 안 간다. 그저 감감하다. 조금 험겨워서 붙어있는 게 전만 못하다. 걸핏하면 나간다. 바람이 났나.

늪바탕에 살이 빠져선가 혈겁더니 스프르 나왔길 잘한다. 늘 차고 있으니 붙어있을 줄 알았지, 이리 몰래 사라질 줄이야 생각이나 했다. 일일이 만져보고 괜찮은가를 무슨 수로 다져나가나 성가시다. 무심코 지내다 이렇게 되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별것 아닌 게 왜 자꾸만 들먹거리질까.

목욕탕에서 반짝거리는 게 있어 웬 금지환일까 하며 주웠다. 보니 내 것이 빠져 굴러다녔다. 또 한번은 등밀이 순번을 기다리며 앉았는데 손이 머쓱하다. 어디로 빠져나갔다. 급히 앉았던 자리를 두리번거렸다. 목욕하던 사람이 놀라 같이 하수구며 의자 밑을 더듬거렸다. 뒷바닥에서 해끗하게 나타나 겨우 찾았다.

조심해서 목욕할 때마다 약지에서 좀 굵은 증지로 꼳았다. 잘 챙겨 나다녔는데 오늘 그만 나를 버린 채 저 혼자 어디론가 떠나고 말았다. 막막한 게 통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며칠 전 리모컨을 떨어뜨려 주우려고 화단을 오르내렸다. 미끄러지면서 헛짚어 나뭇가지에 손가락을 다쳤다. 그때 빠져나갔나 별별 꿈꿈이를 해보지만 미치지 않는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건데 호들갑을 떨까. 부산을 피운다. 명지 레포츠 센터에 들러 대표원과 탕 관리자를 만나 알아봐도 그런 건 못 봤단다. 급한 김에 아무렇게 입고 나왔다가 매서운 영하 날씨에 달달 떨다가 들어갔다. 여기 있네. 깜짝 놀라 소리치는 아내다. 리

모퉁이 소파 구석에 있는 걸 찾았다. 모포 털 때 창밖 13층 아래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처박혀 있을 줄이야. 반지야 그렇게라도 영성하게 나오렴.

아내와 똑같이 만든 한 돈짜리 18금에 팔각 유리를 박은 결혼 35주년 기념품이다. 귀한 보석처럼 빛난다. 유난히 반짝거리려 어찌 그러냐고들 물어본다. 수십 년 끼고 품고 살았으니 그 정이 얼마데 있을 땐 모르다가 잃고 나니 이리 섭섭해 견딜 수 없다. 눈에 아른거리고 자꾸만 손을 만져본다. 똑같이 만들면 되지 그까짓 것을 갖고 그러느냐 할지 모른다.

당구장 소쿠리를 뒤엎고 바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니 왜 그러냐고 주인이 놀란다. 화장실을 들쭉서놓고 바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 방의 옷걸이를 죄다 흔들어 어수선하다. 책상이며 침대까지 다 들춰봤다. 요것이 어디로 갔나. 잠을 잘 수가 없다. 곰곰이 뒤척이다 까라졌다. 아까워서 자꾸만 어른거린다. 짠한 마음이다.

하찮은 무정물이 마음을 사로잡아 갈피를 못 잡는다. 그 바람에 화장실 세면대가 번듯해졌다. 막혀 후줄근하던 것이 속 시원하게 터져 내려간다. 그 안에 있을 거라며 나오리라 여겼는데 시꺼먼 냄새 고약한 찌꺼기만 뒤엎켜 나왔다.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것에 이끌리고 매달려 된통 뒤숭숭한 하루를 보냈다.

다섯 악동을 떨어뜨리려고

공기화

친구가 많은 건 좋은 것이다. 옛사람들은 아끼는 사람이나 물건에 숫자로 나타내어 기렸다. 윤선도는 ‘내 벗이 몇인고’라는 운을 던지고 물, 돌, 소나무, 대나무와 달 다섯이라 하고서 오우가(五友歌)를 지어 자연을 노래하였다. 황제나 선비의 곁에 꼭 두어야 할 물건이 지필묵(硯紙筆墨硯) 즉 한지, 붓, 먹, 벼루로 이를 문방사우(文房四友)라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친구 셋이 되면 삼총사라고 하여 따로 돈독한 우의를 나누기도 한다.

사람은 일생 친구를 곁에 두며 그와 정을 나누며 지낸다.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젊을 때의 친구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건만, 늙



| 공기화 |

땅끝교회, 은퇴장로, 월간문학21에서 수필 신인상(2001), 문학도시에서 시 신인상(2016),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고문), 부산문인협회, 한국장로문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회원, 수필집 『뒷모습을 그리다』 외, 시집 『흔들리며 산다』 외

막에 친해지고 싶지 않은 불청객이 다가와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친구도 있다. 질병과 같은 녀석은 귀찮고 질긴 악동인데 오죽 하면 이를 고질痼疾이라고 했으랴...

2024년 4월부터 다섯 악동 녀석들이 거의 한꺼번에 나에게 찾아왔다. 세상에 다른 것과는 친해도 이 녀석들과는 가까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철칙이며, 그를 멀리하는 것만이 상책이다. 선 살이 넘어 허리가 몇 차례 아픈 적이 있었다. 2022년 코로나에 걸려 고열이 나더니 그 후유증으로 요통이 찾아와 고질병이 되었다. 2년이 지나 총선 전후에 백, 치, 위, 이씨 성을 가진 악동 넷이 차례로 나에게 찾아왔다. 이 녀석들 얘기 좀 들어보구려.

첫 번째 찾아온 요통腰痛이라는 요 씨가 이미 자리를 잡아 떨어지지 않았다. 이 녀석을 떨쳐내려고 자갈치, 영도, 온천장, 김해, 창원 등지의 한방요법, 통증 클리닉, 추나요법, 도수치료를 행하는 병원을 순회하며 허리 치료받았으나 떨어지지 않았다. 끝내 이 녀석은 나에게 지팡이를 짚으라고 권유했다. 이 녀석은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가 치료하면 금방 낫는 등 고분고분 말을 잘 듣다가 이젠 아예 자기가 주인이 된 양 나를 가지고 논다. 그러다가 심술 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나를 찢찢매게 한다.

요 씨를 제외하고 맨 처음으로 나를 찾아와 힘들게 한 악동은 백 내장이라는 백 씨였다. 그가 온 것을 알았을 때 내 눈에서 파리를 한참 뜯 이후였다. 몇 달 동안 교회 스크린의 글이 잘 보이지 않고, 글씨가 두 겹으로 겹쳐 보이기도 하였다. 그가 온 것을 알고도 안

과에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면에 있는 안과에 가서 백내장 수술하였다. 수술 후 눈에서 안대를 뗐다고 하여 다 나온 게 아니다.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여 각종 눈 검사 및 시력 검사한 후에 안약을 넣고서 귀가했다. 다음엔 2주일 후, 그다음은 한 달 후, 다시 두 달 후, 또 서너 달 후에 오라고 하여 검진과 치료받게 하였다. 이 후엔 6개월 후 안과에 오라고 할 것 같다.

백 씨와 요 씨 둘이 맘이 맞아 어깨동무하자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갑자기 이가 흔들리고 아프기 시작하였다. 이제 나이를 보더라도 아플 때가 되었지만 그동안 이런 적이 드물었다. 치통이라는 악동 치씨齒氏가 문제를 일으켜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가 없게 되어서야 치과에 갔다. 평소에 스케일링했던 치과에 가려고 했더니, 치주齒周에 문제가 생겨 아내가 치료받는 치과 병원에 갔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은 후 사정없이 스케일링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급한 김에 잇몸에 인공 뼈를 삽입하는 수술부터 하였다. 며칠 후에 위쪽의 어금니가 흔들리고 아프기 시작하였다.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하길래 먹기도 하고 잇몸에 바르니 잠시 진정시켰을 뿐이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을 유발하는 어금니 녀석을 뽑고서 임플란트의 과정이 길어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 녀석이 더해지니, 악동 셋이 되어 번갈아 가며 요일을 정하여 병원에 가자며 귀찮게 군다. 어느 날 글을 쓰는데 무얼 잘 먹었는지 네 번째 악동인 위통이라는 위씨胃氏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날 점심때 작은형과 친구분들과 함께 주꾸미볶음을 먹었더니 배가 거북스러웠다. 저녁엔 밥맛이 없고 복부에 가벼운 통증이 있었다.

그러면서 검은 변 상태가 영 신통찮아 겁이 덜컥 났다.

친구의 병원에 갔더니 내과 과장이 위에 문제가 있다며 위내시경 검사를 큰 병원에 가서 하라고 권하며 소견서까지 써주었다. 그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찍었더니 가벼운 위궤양이 있다고 하면서 약을 먹은 후 오라고 하였다. 2개월 후에 다시 위내시경을 다시 찍은 후에 약을 먹고서 위와 대장내시경을 찍었다. 주치의가 1년 후에 병원에 오라고 하였다. 대충 치료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인에서 무슨 병이든 완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지난 4개월 동안 위씨에 의한 걱정은 한시름 놓았으나 조심을 다짐하면서 병원 문을 나섰다.

위씨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온 지 사흘 후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어지러질하기에 잠시 바닥에 누우려 했다. 머리가 바닥에 닿기 전에 거실 저편부터 바닥이 천정으로 달라붙는 게 아닌가... 말만 들었던 이석증이라는 이씨_{耳氏}가 나에게 찾아온 듯하였다. 이게 다섯 번째 약동이다. 이튿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날 가르쳤던 김봉희 이비인후과에 갔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게 하여 기계가 비추는 빛을 보게 하고 검사한 후에 왼쪽 귀에 이석증이 있다고 하였다. 침대에 누워 몸을 좌우로 구르게 하는 등 치료받으니 신기하게 어지러운 증세가 덜하였다. 그러면서 “어이 공 교수, 이 증세가 재발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게.”라고 말하였다. 처방전대로 약을 며칠간 먹으니 이 증세가 사라졌다. 이씨는 약질 중에 제일 먼저 나에게서 떠났으나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사실 다섯 악동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쫓겨간 녀석은 없다. 위씨는 1년 후에 보자고 했으니 8월에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 어지럽게 했던 이씨는 나에게서 떠난 후에 아직도 찾아오지 않으니 다행이다. 백씨를 쫓아내려고 인약을 계속 넣고 있지만 눈이 예전처럼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치 씨가 문제다. 평생 치과에 다녀야 할 것 같다. 나이를 먹을수록 치아가 더 좋아질 리 만무하니까 말이다. 임플란트하고 지금도 보강하고 때우고 하지만 “교수님 연세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주 양호합니다.”라는 사무장의 말에 위안받는다.

악질 중에 가장 큰 난제는 요 씨를 달래는 것인데 뽀족한 수가 없어 애태운다. 서울대 대학병원장을 역임했던 친구인 성상철 박사에게 통화했더니 척추 수술을 한사코 말리니 말이다. 누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요 씨 이 녀석을 영구 추방할 방도를 가르쳐주시구려.

늘그막에 다가오는 병은 악동이 아니라 악질이구려. 우리 주위에 질병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말이야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기도 한단 말이야. 친구를 잘 두시구려, 악동이 다가오면 병원에 가든지 다른 방도로 빨리 떨어뜨리구려. ‘괜찮겠지’ 하고 어깨동무하고 잠시 맘 놓고 있다가 큰일 난다오. 그놈은 한순간에 덮쳐버린다고. 나처럼 악동에게 시달리지 말고 걷기 등 운동도 하고 가까운 지인과 자주 만나 잡담도 하고 킁킁대며 웃다가 귀가하는 것도 최상의 약이라오. 잡다한 악동이 물러가길 라파엘(치료의 하나님)께 기도한다오.

천사는 세상에서 고생한다

구 애 순

친구는 지난 몇 년이나 누워있던 다인실 그 병상에 누워있었다. 사 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 전보다 더 해쓱하고 힘이 없어 보였다. 요전에는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로 거의 눈이 안 보여도 시선은 또렷이 나를 향했었는데, 오늘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 ‘누가 나를 면회 왔나?’ 하고 흐릿한 표정으로 말이 없다가, 내가 인사하니까 그제야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식사는 잘하느냐고 물으니까 요즘은 소화 안 되어 죽을 조금씩 먹는다고 했다. 달라진 친구 모습에 무슨 말로 위로해야 좋을지 막막하다. 어디가 아픈지 물어볼 수도 없다. 칠팔 년이나 계속된



| 구애순 |

- 수필가 초록이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
- 등단 수필 계간지 『여기』 2010년 여름호
- 수필집 『아버지와 바람나무』(2011), 『풀마을 잔영』(2021), 『풀마을 소녀』(2022)
- 부산 문학인협회 회원, 김해 문학인협회 회원, 부산 크리스천 문학인협회 회원
- 부산시 문학상 수필 부문 우수상 수상(2012)

병원 생활에 어딘들 안 아프라? 그저 가녀린 손을 잡고 쓰다듬어 줄 뿐이다.

“옛날에 네 손이 참 예뻐했는데 지금도 여전하네.” 하니까 “그래, 옛날엔 예뻐지!” 천천히 입을 떼는데 말하기도 힘든 모양이다.

이런 친구에게 언제 퇴원하나? 라고 물어보는 건 이미 때가 늦었다. 이미 회생이 희박해 보이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근년 들어서 무슨 일인지 자식들이 면회를 잘 안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자식 얘기도 꺼내지 못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요즘 교회는 나가느냐고, 주일 헌금할 돈은 있느냐? 고 물었더니 전에는 젊은 교인의 도움으로 병원 안에 있는 교회로 휠체어 타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최근에는 몸이 더 나빠져서 교회에 못 나간다고 했다.

그 사이에 소리 없이 옆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이 병동을 관리하는 간병인 같았다. 내가 그녀를 창가로 밀어갔다. 병상과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내가 묻지 않은 많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요전에 친구가 심하게 아파서 하마터면 큰일 날뻔했었는데, 광주에 사는 딸에게 어머니가 위중하다고 전화했더니 바빠서 어머니 보러 갈 수 없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러기 전부터 이미 친구는 자식들과 형제가 면회를 끊은 지 오래고, 최근에는 근육이 빠져서 힘을 못 쓰고, 교회에 헌금할 돈도 없고 설사를 자주 해서 예배 참석을 못 한다고 한다.

그녀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말을 덧붙였다. 친구가 언젠가 교회

에 헌금을 백만 원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고 돈만 생기면 이만 원도 내고, 삼만 원도 오만 원도 아낌없이 교회에 헌금한다고 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내가 면회 갈 때마다 필요한 것 사라고 손에 쥐여준 이만 원, 삼만 원씩을 모두 교회에 헌금한 것이다.

오래전에 친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아프기 전에 다녔던 교회와 현재 이 병원 안의 교회에 이중으로 십일조를 낸다고 해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린 적이 있었다. 교회는 돈이 있으면 형편에 맞게 헌금하고 돈이 없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 지나치게 충성하는 사람이라 자식들도 어머니의 지나친 헌금 행위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 얘기가 친구에게 들릴까 봐,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녀에게 물었다.

“저기요, 지금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언가요?”

“먹을 건 필요 없고요. 가만있자, 참 물티슈가 필요하겠네요.”

친구에게 물티슈가 필요한지 물어보니 그렇다고 해서 물티슈 사 오겠다고 말하고 병원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큰 물티슈 두 통을 사고, 만 원을 잔돈으로 바꿔서 병실로 올라왔다. 물티슈를 친구의 개인 서랍장에 넣어주고, 지갑의 돈과 합하여 잔돈 만사천 원을 친구 손에 쥐여주었다.

“너 교회 갈 때 이 돈으로 헌금해라. 내가 너에게 만 원짜리를 주면 한번 헌금으로 끝나고, 이만 원을 주어도 두 번으로 끝나니, 이

지폐로 두 장을 현금하면 일곱 번 할 수 있고, 세 장을 현금하면 네 번 하고도 남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 알았다. 고맙다.” 하며 친구는 내 손을 꼭 쥐었다.

“친구야! 병원에 누워있는 너나, 걸어 다니는 나나 이제 나이 팔십이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 얼마 뒤에 그곳에서 만나자.”

위로인지 자위인지, 자신이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말을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고 서글픈 마음으로 친구와 작별했다.

김해에 사는 나는 부산의 병원으로 병문안 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언제 세상과 작별할지 모르는 친구에게 다시 면회 오겠다는 약속도 없이 헤어져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릴 적부터 마음씨 착한 그 애를 우리 친구들은 천사라고 불렀다. 그 애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미처 다 성장하기 전부터 직장에 다녔다. 그 애는 이십 대 중반에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직장에 다니면서 장애인 시동생을 특수 학교에 보내어, 침술과 안마를 배우게 하여, 장애인 시동생이 그런대로 잘살게 도와준, 세상에서 드물게 착한 사람이다.

친구는 오십 넘어서까지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세가 풀리지 않아서 오랜 세월 고생했다. 그런 형편에도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둑어둑한 시장 귀퉁이에서 배추 두 포기를 못 팔고 앉아있는 노인이 불쌍하다고, 그 배추를 사서 함께 가던 친구와 한 포기씩 나누어 가져갔다는 말을 다른 친구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그뿐이 아

니다. 그 친구는 목욕탕에 갈 때마다 혼자 목욕하러 온 노인의 등을 밀어준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

그렇게 착한 친구가 나이 육십 중반에 버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아서 결국 지팡이에 의지하여 걷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도 신세 한탄이나 누구를 원망하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는 낙천적 성격으로 친구들과 만나면 언제나 “건강해라. 건강이 보배다.”라고 덕담을 했다.

십여 년 전에 그 친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 후 호젓이 살던 친구는 깜빡이는 전등을 손보려고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번에는 꼬리뼈를 다쳤다. 병원에 입원하여 필요한 치료 다 하고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수년 동안 낫지는 않고 허리와 다리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다. 병상 생활 사오 년이 지날 무렵에 친구는 혼자 살던 작은 빌라를 처분하여 병원비로 썼다. 그 후에도 계속 나빠지는 몸을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중환자인 친구가 집을 팔아서 병원비 계산한 뒤에 남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형편에 백만 원 단위의 돈을 현금했다는 사실은 자식들이 환영할 수 없는 처사다. 그 후로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 같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라는 속담처럼 그즈음에 친구는 손전화를 잃어버렸다. 보통 때 같으면 자식들이 전화를 마련해 주었을 텐데, 그때부터 나는 친구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간혹 한 번씩 서면에 있는 그 병원에 면회하러 가는 것을 어렸을 적 친구에 대한 도리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

언젠가 면회 갔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자신이 죽으면 고신대 병원에서 사체를 운구하여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료로 쓰고 남은 몸은 병원에서 화장하여 간단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사체 기증을 서약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례식은 필요 없고 자식도 친구들도 자기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는 거였다.

자신의 장례식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나 마치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이주하듯 얘기하는 그 친구의 사고思考가 아직 삶에 충실한 나로서는 안쓰러운 한편 착하기 짝이 없는 내 친구가 이 시점에서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서러운 처지에 놓인 게 어찌면 자업자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순수하게 착한 심성心性이 생존의 걸림돌이 되는 무한 경쟁사회다. 영리에 밝은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적응하여 잘 사는데, 스스로 현명하게 나아가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 천사 같은 내 친구는 세상살이에 지친 몸으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부르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봄날의 노을 냄새

김은희

하루 중 해 질 무렵을 가장 좋아한다. 해 지는 풍경은 나의 걸음을 멈추어 서게 한다. 잊고 있었던 지구 자전의 진실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동시에 나의 삶에도 언젠가 어둠이 깃드는 시간이 찾아올 거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 노을 지는 시간은 이처럼 나를 철들게 했다. 이 몽환적인 시간은 창작에 불이 붙는 시간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도시의 변두리 옥상에서, 때로는 장독대에서 노을 지는 풍경을 한참이나 지켜보곤 했다. 내가 소행성에 사는 어린 왕자라면 의자를 뒤로 물리며 노을 지는 풍경을 감상했을 것이다. 노을 질 무렵이면 집집이 굴뚝에서 밥 짓는 냄새가 올라오고 놀러 나간



| 김은희 |

- 부산문학인협회 시부문 작품상 (2023)
- 부산문학인협회 수필부문 신인상 (2024)
- 마음 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아이들의 이름이 골목마다 호명되었다. 노을은 이렇듯 집 나간 아이들을 불러들였다. 여러 가지 놀이를 하던 아이들도 놀이를 멈추어 섰다.

낮과 밤의 경계는 참으로 신비롭다. 서녘 하늘빛이 빠르게 움직이며 세상이 어둠 속에 잠길 때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열어놓은 창문으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어둠은 결코 두려운 것만은 아니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집집이 불이 켜지고 어둠의 농도는 희석되기 시작하다가 다시 농도 짙은 어둠에 세상이 잠기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모두가 잠든 밤, 나만의 아지트, 자주 머무르던 어린 시절 다락방은 온갖 세계를 탐구하기 좋은 곳이었다. 책을 읽고 상상하고 글을 쓰던 나만의 창작 공간이었다.

다락방에 수북이 쌓인 누런 책들, 언니 오빠가 읽던 오래된 문학 전집을, 먼지를 툭툭 털고 꺼내 읽으며 문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한국 근·현대문학과 헤르만 헤세와 괴테의 작품 등을 읽으면서 문학적 감수성을 키웠다. 그랬던 소녀가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는 나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니 그저 경이롭기만 하다.

올해는 유독 봄이 몸살을 앓으면서 오는 것 같다. 몇 번 봄옷을 꺼내 입었다가 꽃샘추위에 화들짝 놀라기를 몇 번, 일에 대한 희열과 슬픔으로 지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꽃다운 젊은 나이임에도 염세적인 내담자를 만나면 나도 슬퍼진다. 그와의 마지막 대화가 잊혀 지지 않는다.

“선생님,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사는 건 더 무서워요.”

“얼마나 살아봤다고 그런 말을 하니?” 나는 신음하듯 말했다. 고

통은 주관적인 것이기에 누가 감히 잣대를 댈 수 있을까.

나의 어떤 공감도 그에게 가 닿지 않았다. 나의 어떤 기도도 간증도 마음의 담을 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터널 사고 안에서 오래도록 성을 쌓고 있었다. 그의 이념은 ‘견고한 진’이 되어 누구도 근접할 수 없었다. 그는 ‘반출생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고통도 쾌락도 없는 출생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엄친아 들입에도 말이다.

그를 놓치고 내 몸은 지진이 일어나는 듯 흔들리고 한동안 어지러움과 신열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목숨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지상에서 그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본 자가 되었다. 그 고통의 파편은 나의 심장에 박혀버렸다. 한동안 일상이 정지되었다. 즐겨 치던 베드민턴도, 엉터리로 추지만 즐거웠던 라인댄스도 중단됐다. 푸른 안개 같은 질문에 포박당해 사경을 헤매고 다녔다.

그래도 봄은 왔다. 그를 아는 모든 지인은 영혼의 몸살을 앓으며 봄을 맞이했을 것이다. 걷기 시작했다. 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봄 햇살 속을 걷고 또 걸었다. 한낮에는 보드라운 비단 스카프 같은 바람이 목덜미를 감싸안았다. 숲 곳곳에 진달래가 울긋불긋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팝콘이 툭툭 터지듯 벚나무 가지마다 꽃봉오리가 터지고 있다. 얼마나 진통을 겪으며 봄은 오는가.

가끔 발걸음이 나를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와 있

다. 도서관 마주 보는 추어탕 집, 마치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같은 황홀한 음식을 먹고 도서관 뒷길을 걷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봄바람이 불어온다.

상가 105호 팔순 할머니가 평생 해온 옷 장사를 접으며 상가 앞에서 옷을 팔았다. 꽃샘바람에 옷걸이가 넘어지는 날, 할머니의 쓰러진 옷들을 세워 일으키며 봄옷을 하나 샀다. 가장 봄을 닮은 옷, 연분홍 털실로 뜨개질한 옷이다. 이 분홍 옷을 입고 있으면 봄을 좀 더 빨리 맞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오더라도 움츠러들지 않으리라. 기죽지도 않으리라.

해마다 봄이 오지만 봄은 짧아지는 것만 같다. 청춘의 한 때에는 삶이 허무하게 느껴져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의 마음은 햇볕에 반짝이는 윤슬 가득한 아침 바다 같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숨 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였다. 일방적으로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이후로 진리가 깨달아지고 비전이 생겼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상담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십 년을 달려 온 이 길에서 나는 어쩔 ‘치료적 전능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시 낮아지는 시간을 가진다. 구원과 생사회복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는다.

도서관 숲길을 내려오며 다시 노을을 만난다. 신에게 받은 남은 용돈을 세어보듯 아쉽고도 소중한 하루가 기울고 있다. 어느 드라

마의 마지막 대사가 음악 한 소절처럼 떠오른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 새벽
에 짙은 차가운 공기 /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 또 해 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
다. /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 지금을 망치지 마세
요. / 오늘을 살아가세요. / 눈이 부시게

— <눈이 부시게> 드라마 마지막 대사

21년 만에 한 사람 전도하고 농촌을 떠나오다

김 해 용

저의 집에서 3km로 올라간 외진 골짜기에 3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 한 가정이 이종형수의 집이었다. 이종형수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언제나 일등이었다. 개인 달리기만 아니고 마을 대항에도 언제나 일등을 하곤 했다. 동작이 빠르다 보니 농사일도 남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마을에서는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

내 결혼식 때는 뽕 나무를 한 달구지에 심고 오기도 했다. 이때는 70년대 초라 모두 살기가 어려웠고, 잔치집에 갈 때는 대다수가



| 김해용 |

- 두리원 대표(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SINCE 1987년)
- 저서 : 『프로폴리스의 위력』, 『토양의 병은 육체의 병』 외 10권
- 수필가, 교회 은퇴 장로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국수 5개를 들고 가는 것이 부조의 전부였다. 그런 시기에 나무 한 발은 큰 부조였다.

그렇게 잘 해 주었던 형수가 마을에서 다 죽어간다는 소문이 들리곤 했다. 내가 두 달 전 찾아갔을 때는 그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두 달 사이에 그렇게 나빠졌다는 것은 남들에게 하기 좋은 말이겠지 하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형수님! 저는 요사이 집에 와 있어요, 형수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오시는 걸음 있으면 저의 집에 꼭 한번 들려주십시오.” 했더니 알겠다고 했다. 제 직업이 이동 양봉업養蜂業이다 보니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나가서 생활하고 있었다.

다음날 병원에 갔다 오면서 들렸는데 듣던 말과 하등 다를 바 없었다. 얼굴은 전에 비하면 반쪽이고, 눈은 한 뺨이나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전에 보이지 않던 광대뼈는 왜 그렇게 크게 나왔는지 형수가 지금 넘어지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 있었다. 저런 형수가 살면 얼마나 살까? 두 달, 길어도 3개월은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그동안 병원도 많이 다녔다고 했다. 7시 20분이면 형수님 집 앞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 그 차를 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로써 형수 보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워 보내고 싶었다.

저녁도 얼마 먹지 않고, 식사 후 약을 먹으려 하는데 그 양이 한 줌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었다.

“그 약 다 드십니까?” 했더니

“이 약 다 먹으면 못 견딜 것 같아 절반만 먹습니다.” 했을 때 내가 보아도 잘한 것으로 여겼다.

형수는 뒷방 어머니 방에서 같이 주무시게 되었다. 우리 집은 새로 지은 신축집이어서 뒷방이 있었다.

자고 있는 나를 어머니가 들어와 깨웠다. “너의 형수가 이상하다.” 해서 시계를 쳐다보니 새벽 1시였다. 들어가 형수의 손을 잡으니 냉혈 동물에 닿은 것 같아 섬찟했고, 눈은 완전히 고정된 상태였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집에서 초상 치르게 되었다는 생각과 갈려고 했을 때 붙잡지 않고 보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몹시 후회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 나는 건강 서적 수십 권 읽은 건강 지식을 갖고 있었고, 건강에 관한 책도 저술했다. 그런 지식으로 인해 연탄불 위에 있는 뜨거운 물을 갖고 와서 거기에 타올 2개를 담궈 찐 뒤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내가 팔 위에 올려 놓고 주무르게 했다. 그리고 나는 두 다리를 들고 형수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셋 사람이 힘을 합쳐 큰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나는 힘껏 흔들었다. 한참 흔들고 나니 이마에는 땀이 흘러 내렸다. 팔을 주무르고 다리를 흔든 것은 모세혈관의 70%가 팔다리에 있어 이 부위를 제2의 심장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뛰지 않고 있는 심장이 박동하기를 바라면서 힘껏 흔들었다. 그렇게 하자 다리에 약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 어쩌면 죽지 않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제야 형님께 전화를 했다.

“형님! 형수가 이상하니 빨리 내려오십시오.” 했더니 부자가 경

운기를 타고 금방 내려왔다. 눈을 보니 고정되어 있자 손으로 힘차게 뺨을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왜, 집 놓아두고, 남의 집에 와서 죽으려 하느냐? 하면서 큰 소리를 내어 울기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5남매를 두었지만, 하나도 결혼시키지 못한 상태였고, 형님에게는 3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은 공직公職에서 나와 어렵게 살고 있고, 둘째 형은 객지에서 상처 후 혼자 살고 있다. 거기에다 자기 아내까지 죽으면 형제가 상처喪妻하는 꼴이 되니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을에 있는 트럭으로 병원에 갈 때는 2시 반이었다. 병원에 가서 살게 되었지만 병원에서는 “10분만 늦어도 죽을 사람이었다.”고 했다. 3일 뒤 퇴원해서 우리 집에 먼저 찾아왔다.

“도련님 나 때문에 그날 수고 많았습니다.”

“형수님! 우리 집에 오지 않고 바로 집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했더니

“보나 많아 죽었겠지요. 그 시간에 누가 나를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응급조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병명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고혈압, 협심증, 간, 신장 이상에다 잡다한 병까지 있어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돈도 많이 들었겠습니까.”

“큰딸이 간호사인데 자기 엄마 병 고치겠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쓴 돈이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 두었던 3백5십만 원 다 썼고,

집에 키우든 큰 소 판 8십만 원까지 다 써서 이제는 쓸 돈도 없습니다.”

“형수님을 오늘 이렇게 뵈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여깁니다.”

“제 방법대로 해서 형수님의 병이 낫게 된다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병만 낫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제 방법대로 해 봅시다.”

“체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약을 써도 약의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몸에 남아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약을 써도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는 것은 몸을 도우면서 병을 이기게 하는 것이므로 병원 약은 모두 끊고 제가 주는 것만 드셔 주십시오.”

꿀에 꽃가루를 넣어 발효시킨 것은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질이고, 거기에 혈액순환과 항균(抗菌), 항염작용(抗炎作用)하는 프로폴리스(propolis)를 첨가해 주면서 하루 3번씩 공복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뒤 주었다.

준 지 6일째 주일 아침에 일찍 우리 집에 와서는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배에는 복수가 차서 경운기를 타면 배가 출렁거리 타지를 못 했는데 먹은 지 3일째는 하루에 3번 소변을 받아내자 배가 쑥 들어갔고, 항상 가슴이 떨렁거리며 답답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 이제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기 위해 일찍 내려왔습

니다.”

“내가 준 그것만으로 좋아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아진 것입니다.” 하는 말도 해주었다.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목사님과 장로 몇 분이 심방을 갔다. 방 한구석 위에는 시주단지가 있었다. 이것은 임의로 손 댈 수 없었지만, 가족의 동의를 얻어 목사님이 치우게 되었다.

몰랐던 일이지만 형수님은 매일 물을 떠 놓고 두 손 모아 빌던 특별한 곳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었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8년 뒤에는 영천시 고경면 도암1리 도암교회에서 권사가 되었다.

나는 두 달 뒤 ‘행림출판사’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이 출간되면서 시골에 들어간 지 21년 만에 부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때가 1986년이였다. 부산으로 이사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내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떠나오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종형수 한 사람이라도 전도함으로 이것이 해결되었다.

낯선 곳에 와서도 기반을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책을 보고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종형수의 친정 식구들이었다.

형수의 친정은 경주시 보문이었다. 이 지역이 보문관광단지로서 개발되면서 모두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친척들까지 다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 사돈은 많은 친척들을 데리고 전포에 와서는 “우리

딸을 살려준 선생이라면서 딸이 먹었던 것 달라”면서 모두 사 갖고 갔는데 그 상품명이 『꿀프로킹』이다.

21년간 앓았던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친 것이 바탕이 되어 『류마-21』이라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두리원”을 창업하게 되었는데 벌써 35년이 되었다. 『류마-21』이라는 상품명을 붙이게 된 것은 21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던 사람이 개발했다는 뜻에서 붙인 상품명이다. 『염을 잡아야 류마티스 관절염 고칠 수 있다』는 책을 썼는데 정형외과 한 의사는 대단한 책을 썼다는 말까지 해주었다.

두 달 전 어머니 산소에 가면서 형수님은 전동차를 타고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60대로 보였다. “형수님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고 항상 기쁘게 생활하다 보니 남들도 모두 얼굴이 좋다고 합니다.”

“전에는 6km나 되는 교회에 수요일예배도 참석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어 주일에만 갑니다.”

잡신을 믿거나 이단에 열심이었던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남보다 더 열심이라는 것을 형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나무들의 변화

노 장 현

봄이면 조금씩 뼈죽거리며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고 여름이면 햇살이 울창한 숲을 만들어 화려하게 빛나는 영역을 과시하고 가을이면 온갖 색의 옷을 입고 모든 나무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물들여 주고 겨울이 오면 원래 이랬노라 말하듯 언제나 그렇듯이 묵묵히 울창한 숲을 이루고 제 길을 가고 있다.

유달리 뜨거웠던 올해 여름은 가려는 듯이 머뭇거리며 늦여름은 오래 지속 되었다. 누구나 지친 여름이면 가을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시원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아침에 맺히는 영롱한 이슬방울이 그리워지며 안개가 피어오르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한다.



| 노장현 |

- 《에세이문예》 수필 등단.
- 뉴에이지문학, 효원수필문인회, 부산수필문예, 한국에세이문인협회.
- 부산문인협회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부산시단〉 신인상 등단.
- 시집 『아직 길은 손바닥에 있다』 『시월노을』

매봉에는 따사로운 태양이 다름없이 환하게 솟아오른다. 한낮에는 여전히 태양빛이 뜨겁게 비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이는 서서히 달라짐으로 저녁에는 불그스레한 석양빛을 띠게 된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면 나도 모르게 쓸쓸한 가슴을 저리며 우울한 기분이 차오른다.

나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만 수없이 많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음은 분명한 일이고 매번 나무는 엄청난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왔음에도 미동도 없이 평정을 유지하고 자란다. 이들은 요란하지 않게 호흡하듯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한결같이 이어왔기에 변화보다 뿌리를 내려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것으로 생의 빛을 펼치다 가을 낙엽 되기 위해 나날을 엮어가는 것이다.

가을 향기 구름 따라 그림 되어 수를 놓는다. 코끝으로 바람이 전해주는 언어가 외로움으로 메아리 되어 맑은 하늘을 마신다. 늦가을에 잠겨든 그늘들이 목마름을 외치고 서러운 눈물을 흘린다. 산천을 물들이고 잎들은 제각각 온몸에 불을 태우며 산천은 오열로 장식한다. 찬바람에 무지갯빛 잎새 벗어 던지고 들국화는 짙은 향기 코끝을 자극한다. 물서리에 놀란 잎은 고개 숙이고 별빛을 등에 업고 가지 끝에 매달려 수를 놓는다. 언제나 가을 향기는 그림고 이별의 슬픔이 새로운 희망을 준다. 가시덤불 같은 세상 붉은 동백처럼 시련을 넘어 더욱 밝은 세상에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 가을 산은 아직도 푸른 나무가 생기에 차있다. 구상나무, 사철나무 등 낙엽지 않아 녹음이 짙게 드리우고 있거나 곧 떨어져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라버린 밤나무 잎은 누렇게 변해 바

삭 메말라 바람에 부딪혀 바스락거리며 노래를 부른다. 산기슭에 아카시아 나뭇잎들도 꽃과 같이 떨어져 예리한 가시가 나무를 지키고 있다. 계곡에 서있는 바람나무는 잎이 떨어져 밧두둑에 잎이 쌓인다. 매실 밭에는 가지에 겨울눈이 매달려 곧 피어날 듯 눈망울이 좁쌀처럼 달려있다. 땅에 쑥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 말라서 웅크리고 있으며 민들레 잎도 추위에 탈색되어 겨울 준비를 한다. 여름에 생기로 자랐든 모든 식물은 물기를 가득 머금고 풀 냄새와 꽃향기 아름답지만 지금은 모든 식물들이 메말라 시들고 뻗뻗하게 죽어 있다. 시들어 굳어버린 풀과 나뭇잎들이 바람에 바삭 마른 것이 서로 거칠게 부딪쳐 소리를 낸다.

가을 산을 오르면 연녹색 물감을 칠한 것 같으며 봄여름과 달리 산마루에는 거대한 황색 갈색 홍색의 바다 물결치듯 넘실댄다. 변화무상한 소나무 잣나무는 계절의 변화에도 굳게 자신을 지키는데 작은 잎을 달고 있는 단풍나무는 가을 햇살 아래에서 현란한 색깔을 연출한다. 때가 되면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자유의 알몸이 되는 것이다. 가을 산은 찬바람에 반죽하여 낙엽 지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들을 내려놓는 일이다. 무언가를 비워야만 새로운 것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가을은 나를 돌아보는 계절로 지난 생의 모든 불필요한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삶의 시작으로 마음에 설렘이 일어난다.

겨울 산마루에 우뚝 선 외로운 소나무는 사계절 변함없이 투명하고 굳굳하게 자기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높지만 한데 차가운 눈발까지 어지럽게 휘날리는 겨울에도 영혼 깊숙한 곳 까지

밝고 따뜻하게 해주는 귀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에서 산에는 각종 버섯을 채취하는 것을 보았다. 쉽게 찾기 어려운데 그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몸을 낮추어 호미를 짚어가며 살피더니 버섯이 자라고 있는 곳을 찾아 채취를 한다. 가을 소나무 밑에서 자라는 송이버섯과 참나무에서 자라는 능이버섯 그 외에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채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숲이 우거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내면적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 삶이 행복스럽게 보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산천초목이 인간들의 삶의 보금자리요 행복의 터전이 아니겠는가?

연산군의 시 한수를 생각해 본다. 서정시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고 한다.

아리따운 나무 꽃을 토해 비가 붉게 내리고
주렴에 버들개지 날아들어 바람 하얗게 놀라네
누른 빛은 새벽 따라 버들잎에 푸르게 퍼지고
내리는 꽃가루 소나무 위에 눈으로 쌓이네

이와 같이 오늘에도 나는 나무의 아름다움과 그 자체의 품성을 생각한다. 이처럼 나무의 미덕과 온기, 그 넉넉한 품을 노래한 시는 인간의 끝없는 갈증과 절절한 열망의 노래를 표출하는 것이리라. 인간은 불가피한 본성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침묵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향기가 넘쳐나는 가을 나무를 바라보면 수액이 나의 몸

속에 흘러내림같이 갈증과 욕망을 해결해 주는 절의로서 기쁨과 만족을 해결하며 말없이 지켜보는 것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감싸 주는 나무들이다.

신앙의 봄을 만나다

명 인 속

알싸한 바람 속에서도 3월 훈풍이 피부로 느껴진다. 감나무밭 풀들이 어느새 파랗게 물이 올랐다. 아직 꽃샘추위에 새벽 기온은 영하를 오르내리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봄이 와 있다. 산수유는 노랗게 피었고 홍매화도 달콤한 향기를 품고 하나둘씩 피기 시작했다. 개나리는 꽃봉오리가 곧 터질 듯이 부풀었다.

지난 겨울에 경남 지역은 가뭄이 심했다. 새봄이 와도 맑은 날씨만 계속되고 있으니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리는 것이다. 땅을 파면 딱딱한 지표면이 바짝 말라 있다. 물을 흠뻑 주고 나무를 심고 다시 물을 충분하게 주어도 이틀만 지나면 흙이 말라 버린다. 그런



| 명인속 |

- 2014년 <문학도시> 수필등단, 부산문인협회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감사, 문학중심작가회 회원.
- 한국해양문학상 최우수상, 해운대미래교회 권사
- 수필집 『가벼움으로 가는길』, 시집 『오래된 길을 걸으며』출간

데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대니 메마른 대지는 더욱 갈증을 느낀다.

봄이 되면 새로운 나무를 심고 이미 심은 나무들 중에 몇 해가 지나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나무는 다시 터를 잡아 옮긴다. 농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나무와 사과나무가 그런대로 잘 자라고 있지만 가끔은 옮겨줘야 하는 나무들이 있다. 식물이나 사람이나 좋은 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과수나무들을 관리하면서 더욱 실감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부산에 와서 교회를 정하고 다닌 것이 햇수로 45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 번도 해운대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왔으니 오로지 한 교회만을 섬겼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 서 목사님은 세 번 바뀌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만났다. 전염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펜데믹을 선포했고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하필 나는 그때 심장 부정맥이 악화되어 심방세동이 왔고 기관지와 간에도 이상이 생겨 한 달간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전되지 않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좀처럼 기가 꺾이지 않고 전염이 확산되었다. 마스크는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고 명절이 되어도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현수막이 붙을 정도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만나 뵙지 못하였다. 머지않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해가 세 번이나 바뀌도록 코로나19 비상시국이 계속되었다. 다행히 내 병세는 차츰 차도가 있어 통원을 하게 되었고 한 달에 두 번 가다가 한 번으로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으로 차츰 줄어들었다.

그러는 와중에 한 건설회사가 내가 다니던 교회 주변 건물들을 매입해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삼거리 코너에 있는 우리 교회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줄지에 7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던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다. 200명이 채 안 되는 교인들이 눈물의 기도와 정성어린 건축헌금으로 지어진 교회가 불과 27년 만에 없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에 교회는 달맞이 언덕 위의 어느 오래된 음식점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신축을 하지 않고 내부 리모델링만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그 당시 교인들은 교회 건축 후에 새로 들어온 신자들이 중심인 목사 편과 교회를 건축한 장로들과 신도들이 뭉친 구파 이렇게 두 개의 파로 갈라져서 주일마다 고성이가 오는 전쟁터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사실 목사도 교회 건축 이후에 부임해왔기 때문에 구 교인들의 애뜻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해가 바뀌었다.

퇴원을 하고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갈급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새로 달맞이 언덕으로 이사한 교회로 갔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주위를 둘러보고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이윽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하철이 가깝고 대로변에 위치했던 교회가 생각나 가슴은 답답하고 슬픔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이다. 예배실로 올라가 문 앞에 서니 더 이상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예배 인원이 열 명도 되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보니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다는 목사

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원망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올라왔다. 그대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와버리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은 전부터 목사는 교회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장로들을 설득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 왔다는 것이다. 나는 그 후로 교회를 가지 않았고 목사 편과 반대편이 치열하게 다툼을 할 때 나는 반대편에 서명을 해주고 겉으로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그렇게 속앓이를 일 년 넘게 하다가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우리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알아보았다. 아담한 해운대미래 교회를 선택하여 새벽예배에 나가 보았다. 처음부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었다. 주일예배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주일이 기다려졌다. 교인들이 친절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럼에도 손님 같은 어색한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어찌다 이렇게 나그네 신세가 되어 낯선 교회 새 신자 대접을 만나 하는 복잡한 감정이 떠나지를 않았다.

어느 날 새벽예배 기도 중에 누군가 살그머니 책을 두 권 주었다. 집에 와서 보니 목사님의 신앙집이었다. 읽어나갈수록 빠져들게 되었다. 그리고 목사님의 책을 남편이 읽게 되었다. 프로필을 보던 남편이 깜짝 놀랐다. 목사님은 남편이 재직했던 고등학교 제자였다. 또 남편의 고등학교 동문이었다. 기막힌 인연이었다. 남편은 목사님 책을 정독했다. 그리고 주일이 되자 남편도 나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게 시작했다. 설교말씀에 은혜를 받은 남편은 기쁨에 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다. 그 후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다가 드디어 우리는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등록을 하기 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다. 45년을 다니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인생 황혼 길에 들어서 새로운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지난 수십 년 세월이 허무하기도 했다. 새로 등록된 교회에서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화평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수없이 기도했다. 4년이 넘도록 코로나19와 병치레로 신앙 생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이제라도 마음에 든 교회를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렸다.

막상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끝에 등록을 하고 나니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 남편이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은 살아 오면서 처음이었다. 나도 영적인 안정이 되고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그래서인지 건강도 나날이 회복이 되었다. 집안일을 전혀 하지 못하던 내가 절반은 하게 되었다. 남편이 혼자 다니던 농장도 같이 가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다. 남편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다. 코로나19 때에는 농장에 가면 주일예배를 대부분 가지 못했다. 지금은 농장 일이 쌓여 있어도 토요일에는 반드시 부산 집으로 돌아와 주일예배를 드리고 다시 의령 농장으로 간다. 농장에서 일을 할 때 전에는 음악을 들어도 팝송 아니면 가곡을 들었는데 지금은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크게 틀어 놓고 일을 한다.

말씀 체험이 있기 전에는 몸이 건강하면 다 된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에 적합한 땅을 찾아 심

어야 하듯이 신앙도 교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 체험으로 알았다.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 대학교는 좋은 데로 가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위한 교회는 고민 없이 가까운 데 아무 교회나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인데 뭐 어떠냐고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지 모른다고 했다. 신앙생활을 위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교인들의 분위기도 보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한 지도 일 년이 넘었다. 처음에 낯설고 어색하던 것들이 익숙해지고 교인들과도 많이 가까워졌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이 기대가 되어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새봄처럼 경쾌하고 즐겁다. 나보다도 남편이 더 신이 났다.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일예배를 기다린다. 그렇다, 우리 부부는 신앙의 새봄을 만났다. 지금 삼라만상이 생생하게 푸른 초록으로 덮여가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푸르러 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별을 고한 교회, 내가 45년간 섬겼던 그 교회도 어서 회복이 되어 신앙의 새봄을 맞이하기를 이 봄에 간절히 기도한다.

모심기

성 윤 자

오월의 푸르름이 집 안 가득 들어온다. 우리 집 발코니에는 여러 개의 작은 화분에 상추, 배추, 케일이 자란다. 지난가을 황금빛 벼 알갱이들이 고개를 숙였던 장소이다.

지난봄이었다. 모내기가 막 끝난 농토 길을 자동차를 타고 지나 가게 되었다. 삭막했던 겨울 들판이 흰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었다. 모내기를 끝낸 물 논이 하늘에 비칠 정도로 거울처럼 빛났다. 이양기로 심어 놓은 벼모가 바늘같이 어느 방향으로나 가지런히 꽃혀 있었다.

싱그러운 들판을 구경하며 서행하는데 논둑 저만치에 우뚝하게



| 성윤자 |

- 경남 하동 출생
- 2003년 『한맥문학』 시 등단, 2016년 『문학도시』 소설 등단
- 2017년 『크리스천문학』 수필 등단
-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김해문인협회 회원,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 김해중앙교회 권사(현)
- 시집 『옛집에서의 하루』 외 4권

뭉쳐 있는 게 보였다. 연듯빛 들풀로 보여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갔다. 들풀은 아니었다. 모심기하다 남은, 시루떡같이 반듯한 벼모상자였다. 아주 많았다. 아직 물기가 촉촉하고 싱싱하여 이앙이 가능한 상태였다.

한 알의 벼 알갱이를 싹 틔우기 위해 수고와 물질을 아끼지 않았을 농부가 안타까웠다. 결실하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 버릴 벼모가 아까웠다. 유년 시절 고향에서 모심기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농촌의 모심기는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였다. 그만큼 중요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늦봄에 보리타작이 끝나면, 아버지는 씨레와 쟁기를 지게에 짊어지고 소를 몰고 들판에 나가 보리논 같이를 하셨다. 소 등에 쟁기를 걸고 오른손에 고삐를 쥐고 소 뒤를 걸으며 호령했다.

“이라, 자라, 워, 워.”

‘이라’는 앞으로 가자는 뜻으로 소고삐를 탕탕하게 잡아당기며 하는 말이다. ‘자라’는 왼쪽으로 가자는 신호로 소의 오른쪽 배를 고삐로 살포시 치며 하는 말이다. ‘워’는 멈추라는 뜻으로 고삐를 위로 잡아당기며 하는 말이다. ‘워, 워.’하면 소가 고삐에 이끌려 머리를 치켜들고 그 자리에 멈춰 선다. 사람과 소, 소와 사람 사이의 언어 소통이다.

며칠간의 논갈이가 끝나면 바짝 말랐던 보리논은 부드러운 진흙탕 논으로 변하고 이어서 모심기가 시작되었다.

모심기 철의 모찌기는 새벽이나 밤에 이루어졌다. 모판에 엮드

린 모꾼들은 벼모를 뽑아 서너 움큼씩 묶어 한 단으로 만들었다. 바짓단을 등등 걸어 올린 종아리에 거머리가 송송 붙기도 했다. 달라붙은 거머리를 떼어 내면 장판지에서 피가 흘렀다. 그렇게 어렵게 찢은 못단을 모심기할 진흙탕 눈에 듬성듬성 던져 넣었다.

모꾼들이 잠시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다시 논으로 나오면 본격적으로 모심기가 시작된다. 모를 심는 논둑 양쪽에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못줄을 탕탕하게 잡는다. 모꾼들은 맨발로 물 눈에 엎드린다. 순식간에 못단을 풀고 벼모 한 움큼을 왼손에 쥘다. 오른손으로는 벼모 대여섯 낱을 푹푹 뜯어 한 포기로 잡는다. 포기 잡은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칼처럼 쭈뼛하게 세운다. 못줄에 듬성듬성 붉은 꽃매듭마다 진흙 속에 푹푹 꽂으며 게처럼 옆 사람을 향해 몸을 움직인다. 반복되는 그 자세로 옆 사람과 서로 만나면 한 줄의 모심기가 끝난다. 그때 논두렁에서 못줄을 잡고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외친다.

“자아, 못줄 넘어가요.”

모꾼들이 허리를 펴고 일어선다. 논둑의 못줄꾼 두 사람이 동시에 못줄을 빈 논으로 출렁 넘긴다. 그 사이 모꾼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엎드린다.

모꾼들은 모심기 중에 바짓가랭이를 걸어 올리고 모두 맨발이다. 그루터기도 무서워 아니하고 높낮이가 가파르고 험한 논둑을 오르내리기도 한다. 모꾼은 숙련된 사람만 할 수 있었다. 서툰 사람이 모꾼에 섞이면 일의 속도가 떨어지고 옆 사람이 힘들다. 모심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못줄을 잡거나 못단 나르는 일을 하였다. 이

른 새벽부터 어둠이 들판을 덮을 때까지 모심기가 끝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작업 중에 비가 쏟아져도 중단하지 않았다.

모심기 작업 중에 벼모가 부족할 때가 가끔 있었다. 그럴 때는 다른 논에 버려진 벼모를 주워서라도 모심기를 이어갔다.

버려진 벼모는 두 종류였다. 물논에 담가 놓은 벼모는 뜬모용으로 다시 사용한다는 뜻이다. 논둑에 버려진 못단은 그야말로 쓸모 없어 버려진 것이다. 나는 논둑에서 노랗게 말라가는 벼모를 양손 가득 들고 부모님이 모내기하는 우리 논까지 맨발로 뛰어다니며 벼모를 나르곤 했다.

유년 시절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벼모가 내 앞에 버려져 있다니! 논둑에서 말라버릴 것을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바람과 태양, 물과 흙이 있는 곳이면 자랄 수 있는 벼모가 아닌가. 어쨌든 몇 포기라도 살려 보고 싶었다. 아주 싱싱해 보이는 벼모 한 판을 골라 차에 싣고 집으로 가져왔다.

두꺼운 비닐 쌀 포대에 물과 흙을 채웠다. 그 안에 벼 몇 포기를 심어 발코니에 두었다. 언뜻빛 모종은 점점 초록색으로 변했다. 도시의 좁고 작은 포대 논에서도 잘 적응하며 여름 동안 풍성하게 자랐다.

가을이 다가오니 벼는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논도 아닌 고층 아파트에서 어린 벼모가 병충해 하나 없이 자라 곡식이 영글다니 감격스러웠다. 황금빛 벼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훌륭한 농부라도 된 것처럼 자부심을 느꼈다.

이 알갱이로 쫘득쫘득한 찌쌀을 만들어 고소한 맛을 느끼며 한 입 가득 오돌오돌 씹어볼까. 아니면 한알 두알 껍데기를 까서 영양가 많은 현미밥을 고들고들 지어 먹을까. 하루하루 익어 가는 벼 이삭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어디에도 비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앞 공원에서 작은 새들이 발코니로 날아들어 황금빛 벼 알갱이를 쪼아 먹기 시작했다.

“후여, 후여!”

새를 쫓아 봤지만 허사였다.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새가 날아들지 알 수 없었다. 노랗게 고개숙이고 영글어가던 이삭들은 순식간에 새들의 양식이 되고 허연 껍데기만 뜨물처럼 말랐다.

내 속이 타들어갔지만 한편으론 괜찮았다. 집에서 벼를 길러 농부의 수고와 인내를 한 번 더 느껴 봤고 어린 날 추억을 재생해 보았다. 그것으로 되었다고 위안했다. 배고픈 새들의 배를 불러 주었으니 그것으로도 족하다. 식물의 정직함도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보았으니, 좋은 경험을 한 셈이다.

도시의 벼도 가을이면 고개를 숙인다.

배움의 날개

이 준 우

새벽 두 시, 미명의 시간이 찾아오면 때로는 불청객이, 때로는 반가운 손님이 내 마음을 두드린다. 오늘은 유난히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가슴이 두근거리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글을 쓴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과 함께 나는 한 대학의 디지털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학문의 길을 다시 밟기엔 늦은 나이라 생각했지만, 배움의 갈망은 세월을 뛰어넘었다.

첫 강의에서 만난 연세영 교수님. 그는 ‘겨울연가’의 테마곡을 작곡한 음악인이자, 피아니스트이며, 기자와 문인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예술가였다. 그를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 이준우 |

- 경남 함천 출생
- 2014 문예시대 시 부문 신인문학상
- 2023 상반기 크리스천문학 수필 부문 신인문학상

감동이자 행운이었다. 그는 단순히 이론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었다.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이었다.

강의 중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글을 쓰려면 삶의 깊이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멍멍해졌다. 남다른 삶의 철학과 체험이 그의 예술을 빛나게 만든 것이었다. 빛나는 문장은 결코 책상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삶 속에서 부대끼고, 때로는 낮은 곳에서 바라보며 길어 올려야 하는 것이었다.

늦깎이 대학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학기 초부터 부득이하게 결석했고, 결국 대체 수강으로 출석을 채워야 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시를 짓고,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모습이 경이롭게 느껴졌다. 강의가 끝난 후, 교수님이 그 작은 손에 장학금을 쥐여주는 모습을 보며 그의 따뜻한 인품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중후한 인상의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H반이신가요?”

“아닙니다. 결석해서 땀질하러 왔습니다.”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순간 내 말이 천박하게 들렸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

뷔페식당에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향이 가득했다. 음식을 담고

자리를 잡았다. 마침 교수님도 음식을 들고 내가 앉은 자리로 다가 오셨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따뜻하게 울렸다. 식사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 환경미화원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깊었다. 환경미화원의 삶을 경험하며 그는 세상을 더 넓고 깊이 바라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직업과 신분을 떠나,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님과 함께 한 짧은 식사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를 ‘날개 없는 천사’라고 부르고 싶었다.

어떤 이는 늦깎이 대학 생활을 두고 “그 나이에 배워서 뭐 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고, 인성 개발에도 끝이 없다. 진정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과정임을 나는 교수님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다.

배움은 곧 날개이다. 그것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준다. 나는 이제 그 날개를 펼치려 한다.

그때의 나는

전진경

어떤 때 시간은 참 지루한 것 같은데 문득 돌이켜보면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갔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일분이라는 시간도 참 길게 느껴 질 때가 있고 어떤 땀 한 시간도 금방 일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게 시간은 실수 한번 없이 똑 같이 탄 세상처럼 제 갈 길을 갈 뿐인데 왜 나는 시간 속에 울며 웃으며 때론 애태우며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 감성의 요동을 치며 살았을까, 그리고 내 나이는 언제 이렇게 됐으며 내 품에서 놀던 자식들도 어느덧 머리도 희끗해지고 또 그들의 자식까지 키우며 감쪽같은 시간을 보냈을까. 머리 희끗한 자식도 때때론 아직 내 품에서 놀던 꼬마로 보일



| 전진경 |

- 2001년 《문학과이식》 등단
- 모시울회원, 부산수필회원, 부산문인협회원
- 부산진구청명예예술학교장, 새시대문학회원 부전교회 은퇴권사

때가 있고 그 감성에서 그대로 자식을 대할 땐 자식들도 당황스러워 할 때가 있다.

이제 약간의 노망끼가 생기는 걸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가면 반드시 서너 명의 죽은자 명단이 광고에 뜬다. 한 교회에 오십여 년을 다녔는데 처음부터 보이던 많은 집사님 장로님들이 거의 돌아 가시고 내 또래의 은퇴 권사님들이 모여 저분이 젊어서 그랬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늙은 할머니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이 많다. 분명 세대교체가 어느덧 육십 내지 칠십 퍼센트는 된 것 같다. 아기를 안고 온다든가 하는 젊은 부부는 완전한 세대교체다. 그 많던 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다 어디로 갔나. 찬양대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집사 권사들은 다 어디로 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귀여워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아줌마 아저씨들이 되어 찬양대에 앉아 있다. 꿈을 꾸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차례가 올 것이 분명하다. 교회 안을 둘러본다. 저기 저 아름다운 강대상을 하기 참 잘했다 싶어 미소가 절로 나오기도 한다. 이 아름답고 현대적인 교회가 인젠 익숙해졌다. 교회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일찍이 알았지만 에스컬레이터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한참 복잡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몇 대 더 설치하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좋고 기쁘던 옛날 교회를 가 보았다. 들어가면서부터 그 좋던 교회가 구식처럼 느껴지는 것이 나 자신부터 놀라웠다. 강대상도 그렇고 모든 방 마다가 촌스럽게 느껴지는게 이상했다. 새 성

전을 짓고 교회를 옮길 때는 가슴에서 눈물이 났다. 내가 앉던 자리, 찬양 연습 하던 자리, 새 손님 맞아 교육하며 차 마시던 자리, 식당에서 노숙인을 대접 하던 자리 등 교회 구석구석이 정겹고 떠나기 싫었는데 지금 보니 참 초라하게 보인다. 권사들만 모여서 기도 하던 자리는 침침하게 보인다. 그 포근하던 자리가 ‘내가 변한 건가, 내가 사치스러워 졌나’하는 생각이 든다. 교회 입구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심고 가꾸던 생선 팔던 권사님은 가신 지 오래다. 예배 마치고 마당에 나가면 한 눈에 다 보았던 교인들이 새 성전에서는 한 눈에 볼 수가 없다. 다 같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마당이 없으니까 제 각기 갈 뿐이다. 이것이 참 아쉽다. 오후 예배 마치고 조금 늦게 집에 갈 때도 시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 쉽게 장 보고 갈 수도 있고 식구 끼리 연락하여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고 가뿐히 갈 수가 있었는데 새 교회는 전연 다른 외판섬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한참 가야 좀 비싼 식당이 있을 뿐이다. 가는 중에 흥이 깨어진다.

교회 앞에 줄지어 있는 적당한 가격의 식당들, 종류도 가지가지였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옛날 교회가 도리어 낯설다.

주님이 지은 지구라는 별의 온갖 살아 있는 것을 생각한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인간이 만든 것은 없다. 다 주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인간들이 먹고 살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한다. 시장에 나가면 파는 온갖 생선도 과일도 전부다 공짜로 주신 것이다. 생선에 값이 있는 것은 생선을 잡아온 사람들의 인건비와 잡기 위한 모든 시설물의 값이 포함된 것이다. 우리가 낚시

채를 들고 강가나 바다에 나가 내 손으로 잡아오면 모두 공짜인 것이다. 모든 먹을거리, 입을 것, 주님이 주신 것을 사람의 손으로 재가공했을 때는 그 재료에 수고한 인건비, 기타 재료비가 계산되는 것이다. 이 이치를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공짜로 주신 것 뿐이다.

내 손으로 심고 키우고 하면 다 공짜인데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제 각각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땅에서 나는 것으로 가공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에게 사고팔며 사는 것이다. 물물교환이 너무 불편하여 돈이란 것을 만들어 그 가치를 공표하여 아주 쉽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돈을 가지고 쉽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고 기술을 익히고 하여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참 피나게 노력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기에 주님이 돈으로 보이고 주님이 만든 세상에서 제가 주인인 양 착각과 망각 속에 사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아닌 거짓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이땅에 버리고 몸조차 한줌 흙으로 변하고 영원히 육체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존재를 알게 하여 육신은 영원히 없어지지만 그 육신 속에 거하든 영혼은 주님이 다시 거두어 세상 구경 실컷 했으니 이제는 나하고 살자 하신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세

상에서 살기 위해 온갖 생각을 하던 내 영혼을 주께서 지혜로 알게 하시려 성경 말씀을 세상에 내 놓으셨다.

이 지구의 창조부터 사람의 육체를 만드는 흙의 존재와 흙으로 당신의 모습을 본떠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 지구라는 커다란 둥근 공을 깊이 파서 소금물이 찰랑이는 바다를 만들고 땅을 파서 먹을 수 있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거대한 흙더미를 쌓아 산을 만들고 모든 식물과 꽃들과 열매와 짐승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켜 온갖 것을 털어 깨끗이 하고 하루 한번 한바퀴 돌게 하며 만유인력을 만들어 불이 쏘아지지 않고 산이 무너지지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보며 행복하기만을 바라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속게 하시고 고통을 겪어지게 하셨지만 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 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 하는 자에게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여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 하시는 것이다. 인생이란 이런 것인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면 인간 세상이 천국처럼 아름다울텐데 이 비밀을 알기가 언뜻 쉬우면서도 어렵다.

세상을 자기 멋대로 다 살고 자기가 없어지리라는 것을 알 때쯤 죽음이 나를 현명하게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시간을 어떻게 쓸까. 주님을 닮아야 한다.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이에게 먹여주고 상처난 이를 치료해 주고 감싸주다가 무지한 인간에게 주님을 힘껏 알게 하다. 어느날 조용히 주님을 만나러 가리라.

하루 여행

조 광 순

오래전 일이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해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에 먼 데서 근무하는 남편에게 전화한다. “여보! 지금 당신한테 놀러 갈까요?” 남편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들뜬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한다. 남편은 정읍으로 출장 간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딸은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엄마 나도 가면 안 돼요?” ‘혼자 여행하고 싶은데...’ 다음에 같이 가자며 딸을 설득한다. 딸은 못마땅한 얼굴로 작은 상자가 담긴 봉투를 건넨다. 아빠 생신이 지나갔지만 오빠와 함께 준비한 선물이라며 전해 드리라고 한다.



| 조광순 |

- 2023년 《문학도시》 수필등단, 부산문인협회 회원,
- 목우문학연구회 회원

얼마만의 혼자 여행인가. 예쁘게 차려입고 입고 있던 책과 시집도 가방에 넣는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건반을 두들기듯 경쾌하다.

구포역에서 KTX 열차를 탄다. 차창 밖으로 스쳐 가는 삼랑진 강변은 온통 푸른 빛이다. 들판에는 어린 모가 자라 짙은 녹색 물결로 출렁이고 자연은 계절의 질서에 불평하지 않고 순응하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새긴다.

여행은 휴식을 동반한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욕조에 몸을 담근 듯 몸과 마음이 말랑해진다. 가게 일과 집안일로 바쁘게 사느라 자신을 돌아볼 겨를없이 달려왔다. 가게 물건을 사러 한 달에 두 번은 서울까지 간다. 장거리 다니는 길은 된 길이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즐기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보람도 크다.

선물 같은 시간이 감사하다.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매사에 불평이 많았던 예전과 달리 웃음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가족과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 간다. 그런데도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외로움에 빠지기도 한다. 하루 여행이지만 용기 낸 자신을 꼭 안아준다.

대전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서대전역으로 간다. 정읍행 열차는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싶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매점밖에 없다. 그래도 좋다. 예전 같으면 혼자 다니는 게 어색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사라진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음이라 여기며 즐긴다.

무궁화호는 KTX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손님들의 수수한 옷차림에서 시골스러운 평안함이 느껴진다. 승객도 몇 명 되지 않아 차창 쪽에 자리 잡는다.

얼마 가지 않아 김제역이다. 김제 곡창지대의 쌀이 유명한 건 알고 있었다. 경지 정리가 잘된, 끝없이 펼쳐진 넓은 평야가 푸른 물감을 뿌려 놓은 듯 온통 수채화 물결이다.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순간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튀어나온다. “아~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숨이 멎을 듯 황홀감에 눈물이 날 것 같다. 설레는 마음을 싣고 푸른 초원을 열차와 함께 달려가고 있다.

정읍역에 도착했다. 개찰구를 향해 나오는데 키가 큰 남편이 두 손을 높이 흔들며 나를 반긴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고 깊게 포옹한다. 남편은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이 수척하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마음이 아린다.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낀다.

내장산으로 간다. 계곡에는 나들이 나온 가족이 텐트를 치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문득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남편이 즐겨 먹는다는 버섯 샤브샤브 집으로 간다. 한우와 버섯 맛이 담백하고 맛있다. 딸의 선물을 남편에게 건네준다. 벨트를 허리에 차보더니 아주 좋아하는 눈치다. 남편은 딸에게 전화해서 아주 마음에 든다며 고마운 마음도 전한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나

에게 혼자서 가정과 가게 일로 고생이 많다며 꼭 안아준다. 눈물이 차오른다. 내심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걸까. 헛헛했던 마음에 온기가 가득 채워지니 뿌듯함마저 든다. 남편은 몹시도 그리웠던 지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지만, 나는 계획한 대로 밤차로 오길 원했다. 주말에 집에 오기로 약속하고 아쉬운 여운을 남기며 열차에 올랐다.

밤 열차는 또 다른 느낌이다. 차창밖에 그토록 아름답던 풍경들은 사라지고 없다. 대신 차창에 반영되어 비치는 내 모습이 평안해보인다. 나만의 공간, 책도 보며 두서없이 글도 적어본다.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든다.

구포역에 도착하니 새벽 세 시가 지났다. 줄줄이 늘어선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기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영역 한데도 애써 밝은 얼굴로 친절을 베푼다. 세상의 남편들은 다 이런 것인가. 남편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는다.

여우가 나타났다

한 인 환

1. 울음소리

해가 떨어지기 바쁘게 별들이 일시에 나타났다.

내 유년기와 함께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렸던 별이다. 희멀건 밤 하늘을 팽개쳐 두고 그동안에 이 지리산 골짜기 바위틈마다 꼭꼭 숨어 있었다니, 손에 잡힐 듯 온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 달도 없는 밤에 별들이 총총하게 검은 하늘을 다 차지하고 있다.

저 별들은 무슨 이야기로 도란도란 밤을 지새울까. 유성이 이따금 밤하늘을 가로지른다. 칠 월 말이라지만 노고단의 밤공기는 차



| 한인환 |

- 부산 땅끝교회 은퇴장로
-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서, 텐트 속으로 쌀쌀한 기운이 스며든다.

“한 선생,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 금발 미녀의 애절한 울음소리.”

아까부터 몸을 뒤척이던 정 선생님이 혼자 말처럼 나직하게 중얼거린다.

“금발 미녀의 울음소리요?”

나이 서른에 이르도록 변변한 연애 한 번 못해 본 내가 여인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알까. 그것도 금발 미녀의 울음소리라니. 서양 여자는 울기도 영어로 울까? 너무 피곤해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내 잠은 이미 달아나버려 정 선생님의 다음 말을 가만히 기다렸다. 아무래도 그의 이야기가 심상치 않으리라 신경이 곤두선다.

나보다 꼭 열 살이 많은 고교 선배 정 선생님은 소문난 등산 마니아다.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라도 찾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장거리 산행에 나선다. 산이 너무 좋아 교회 갈 틈이 없고, 그것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아내와의 갈등이다.

배낭여행이 흔치 않던 60년대 말에 미주로 유럽으로 장기간 배낭여행을 감행하였고, 따라서 그의 지리 과목 수업은 항상 살아서 풍요로웠다. 그 정 선생님이 여름 방학을 놓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지리산 종주 등반을 한단다. 이미 강행군으로 소문이 나서 동료 교사들은 동행하기를 꺼리는데, 신출내기 교사인 나만 겁도 없이 따라나선 것이다.

시외버스로 산청군 중산리까지 와서 늦은 점심을 사 먹고 바로

산행을 시작하였다. 첫날 오후부터 칼바위를 지나 계속 가파른 오르막으로 법계사 로타리 대피소에 배낭을 풀 즈음에는, 나는 벌써 파김치가 되었다.

다음날 새벽 깜깜 밤중에 일어났다. 천왕봉 일출을 보겠다며 대여섯 명의 미친 사람들 틈에 끼여 우리도 무작정 플래시 불빛을 따라 정상으로 향하였다. 텐트며 침낭이며 조리기구와 주 부식에 식수까지 잔뜩 나눠 가졌다. 내 체격에 배낭은 일어서기도 버거울 정도로 무거웠다.

네발로 기다시피 가파른 산길을 세 시간이나 올랐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며 다리도 후들후들 떨려 온다. 그만 쓰러져 눕고만 싶다. 1,915m 천왕봉 정상 표지석을 붙들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

누가 정상 정복의 성취감으로 새 힘이 솟는다고 했다. 너무 지치면 그것 모두가 헛말이다. 더욱이 동쪽 하늘에 짙 들어찬 운무로 일출도 볼 수가 없었다. 이 허탈한 일을 왜 사서 할까. 그것도 되풀이해서. 내 평생에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다.

다시 우리의 무거운 걸음은 장터목에서 세석평전으로, 다시 벽소령을 거쳐 연하천으로 향하였다. 지리산의 장엄한 풍광을 감상하기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내 발밧이 더 험하고 급하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 설파하였던 성철 스님의 말씀이 왜 심오한지 알 듯하다. 그렇다. 오늘 나에게 산은 산일 뿐이다. 그것도 험악한 악산이다.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연하천이 지척이다. 어디선가 등산객

의 트랜지스터라디오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하늘이 하얘지며 빙글빙글 돌았다. 드디어 탈진이다. 정 선생님께 폐가 되지 않으리라 마음은 단단히 먹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정 선생님은 나의 배낭을 벗기고 우의를 찾아 길옆 풀숲에 편 다음 나를 눕힌다. 잠시 나를 살펴보던 그는 먼저 가서 텐트부터 치겠다면 내 배낭까지 짊어지신다. 팔팔 날아야 할 젊은이가 한심한 약골을 들켜버려 더 어지럽다.

한참 후 숲에서 주워든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겨우 일어났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만 같다. 길을 따라 흐느적거리며 걷다 보니 우리 텐트가 보인다. 정 선생님이 물을 끓이고 있다. 설탕물 한 모금에 저녁도 마다하고 쓰러져서 끓아떨어졌다.

새벽 공기가 투명하고 정갈하다. 거짓말같이 몸이 가뿐하였다. 지리산의 공기와 물은 산삼이랑 온갖 야생 약초로 버무리어 사람의 몸을 재빠르게 회복시키나 보다.

세상에, 내가 무슨 청와대 기슭조의 김신조 일당도 아니고, 배낭을 힘에 겹게 지고 하루에 산길 28Km를 13시간이나 걷다니. 정 선생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였고, 오늘은 한결 여유를 갖고 노고단 대피소에 일찌감치 도착하였다.

오랫동안 뜸을 들이던 정 선생님은 긴 한숨과 함께 가슴 속 깊이 맺힌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지금 내 나이처럼 갓 서른이 되던 해에, 그는 배낭 하나만 지고 어느 알프스 산중의 마을을 걷고 있었다.

거기서 역시 혼자 배낭여행 중인 프랑스 아가씨를 만났다. 동양의 청년은 단번에 아가씨의 파란 눈 속에 침몰해 버렸고, 앓던 금발의 미녀는 청년의 가슴에 달콤한 향내 나는 꽃이 되었다.

함께 걸으며 꿈 같은 나날이 흘렀다. 아가씨는 결혼해서 프랑스에서 살자고 조른다. 그러나 그에겐 이미 아내와 두 살 된 딸애가 있다. 솔직히 아내보다도 딸애가 자꾸 눈에 밟혔다. 청년의 고뇌를 눈치챈 그녀는 마음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떠나라고 한다. 다만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에, 말없이 떠나라고 하였다.

며칠 후 그는 잠든 그녀 곁을 살그머니 빠져나왔다. 떨어지지 않는 걸음 때문에 문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가만가만히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슴 구석구석으로 파고드는 애절한 흐느낌, 그는 그만 다시 뛰어들려고 하였다.

그 순간 벼락이 치듯 자지러지는 또 다른 울음소리, 어린애의 숨넘어가는 울음소리가 그의 고막을 찢는다. 딸애의 울음소리는 날 시퍼런 비수였다. 그는 제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한 선생, 나는 천벌을 받을 거야. 언젠가 크게 받을 거야!”

2. 여우가 나타났다

“어제 집에 계셨다고요?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무렴 매주 산에 갈 수야 있나. 딸애가 고삼인데. 그런데 화학 성적이 안 나온다.”

“혜린이 공부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런데 화학 성적만 안 나오네. 아예 선택을 생물로 바꿀까 고민이야.”

곧 여름 방학이라 학력고사 일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와서 선택과목을 바꾸겠다니 말이 안 된다. 그 뜻을 내가 왜 모를까. 나더러 헤린이 과외수업을 해 달라는 소리 아닌가. 정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부탁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분위기 때문이다.

제5공화국 땡전 뉴스(아홉 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근황부터 나온다) 시대에 현직 교사가 과외수업하다 걸리면 바로 파면이요, 학부모에게는 세무조사라는 엄포가 시퍼렷던 때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죽음인들 무서울까. 괜히 과외비만 올려놓았지.

정권을 탈취하고도 기세만 당당한데, 솔직히 제 돈 내고 공부하겠다는데 이게 죄가 될까. 아닌 말로 시가보다 돈 더 내고라도 사겠다고 해서 내 땅 팔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어쨌든 아무리 다른 학교 학생이라 하여도 현직 교사로서는 꺾꺾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헤린이가 누군가. 그 운명의 날, 알프스 산중에서 목이 쉬도록 울어 재껴 제 애비를 붙들어 놓은 아이가 아닌가. 그 헤린이가 내 과목 화학이 안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나. 칠 년 전 지리산 노고단 그 별이 훽훽하던 밤, 정 선생님의 깊은 탄식 소리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 다음 날 밤 여덟 시, 정 선생님의 단독주택

을 찾았다. 선생님과 사모님 그리고 헤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이 제일 반가워한다. 차를 권하는 사모님이 예상외로 미인이시고 인상이 선하다. 나는 찻잔을 들고 사모님을 주시하며 얇은 미소를 띠었다. 사모님은 아실까. 내 미소의 의미를….

방학 중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번에 두 시간씩 다섯 주 만에 끝내기로 하였다. 다른 과목도 많은데 화학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방학 중에도 밤 열 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란 명목으로 붙들어 놓는 나라다. 특별히 담임에게 부탁하여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일찍 오기로 하였다.

헤린이는 제 엄마를 닮아 예쁘고 총명하였다. 내가 요점만 뽑아 제작한 화학교재를 내놓자 헤린이는 눈을 반짝이며 책상에 다가 앉는다. 괜히 부모의 등쌀에 하는 척만 하는 녀석들도 많다. 그러나 헤린이는 마치 제비 새끼처럼 쪽쪽 받아들인다. 이럴 때 교사는 제일 신바람이 난다.

‘이렇게 잘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왔지?’ 내가 칭찬하자 선생님이 알기 쉽게 잘 가르쳐주시는 덕분이란다. 자기네 학교 화학 선생님은 별명이 ‘수면제’라,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잔다고 하며 살짝 웃을 때, 두 뺨의 보조개가 참 예쁘다.

헤린이는 내가 방문할 때마다 책상에 단정히 앉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여섯 번째 날인가 그날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쳤는데, 화학에서 처음으로 한 문제만 틀렸다고 모녀가 함께 감격하고 있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별경게 달아오른다. 그날따라 팔 월의 무더위가 막바지 기성을 부리고 있다.

나는 매번 한 시간 수업을 한 후 십 분쯤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나머지 수업을 하였다. 그날도 휴식시간이 되자 헤린이는 공부방을 나갔고, 나는 선풍기의 풍력을 한 단계 더 올려 더위를 식혔다. 이제 겨우 나와 함께 열 시간 남짓 공부하였는데, 성적이 바로 뛰다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정 선생님 앞에 당당히 어깨 펴게 되었으니 이 또한 좋을시고.

수업 시작 전에 소변이나 봐 두어야겠다고 공부방을 나서서 복도를 돌았다. 욕실을 겸한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화장실 문 앞에 한 무더기의 빨랫감이 놓여 있다. 여자의 옷가지 같다. 빈틈 하나 없이 집 안을 깨끗하게 해두는 사모님에게도 이런 허술한 면이 있다니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안으로 훌쩍 사라졌다.

그리고 헤린이가 거기에 서 있다. 왼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에는 타월로 물 묻은 머리카락을 훔치며 헤린이가 서 있다. 삶은 가재처럼 발갛게 익은 헤린이가 서 있다. 볼록하게 부풀어 솟은 두 개의 유방이 눈부시다. 물기에 젖은 배꼽이 앙증스럽고, 그 아래는 통통하게 살이 붙은 둔덕이다.

내가 황급히 돌아서고 문이 팽 닫힌 것은 동시에 찰나였다. 후다닥 혼이 빠진 나는 공부방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른다. 숨이 탁 멎으며 머릿속이 텅 빈다. ‘이 일을 우야꼬!’ 텅 빈 머릿속에서 윙윙 모기 날아다니는 소리가 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쨌든 공부는 틀렸다. 무엇이랴 둘러대고 이 자리를 빠져나갈

까 끄꿨다. 당장 사모님에게 무슨 핑계를 댈 것이며, 또 선생님에게는 무엇이랴 말하나.

전전공공 죽을 맛인데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헤린이가 들어왔다. 단정한 옷차림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책상에 앉는다. 그리고 책을 펴고 다음 공부할 자세를 취한다.

나는 너무 놀랐다. 어이가 없다. 무섭다.

나는 제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문제 풀이 설명만 계속하였다. 목소리까지 떨어왔다. 그 후로도 그녀는 너무나 태연하게 약속된 나머지 날들의 수업을 다 마쳤고, 나는 비로소 안목의 고문에서 벗어났다.

그해 헤린이는 명문으로 꼽히는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하였다. 틈틈이 정 선생님을 통해 그녀의 활달한 대학 생활을 전해 들곤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대학 선배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우 한 마리가 옆에 엉겨주춤하게 서 있는 녀석의 손을 짝 잡고 히죽이 웃고 있었다.

내가 헛것을 보았을까.

《부산 크리스천문학》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 회 원 모 집

크리스천 문인은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로 오세요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는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문학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학과 지성을 추구합니다. 우리 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진실한 문학정신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마다 문학이며 신앙 세계는 곧 문학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문학의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님을 기다립니다. 기성 문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작가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연락 주실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이 메 일** _ 2050jsp@hanmail.net
- **연 락 처** _ 주간 : 010-2561-1221 / 편집장 : 010-3851-4428

- **신인상 원고 모집**
부산 크리스천문인협회에서 신인을 선발하는 작품을 공모합니다.
당선된 분은 작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우리 회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응모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장르를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시조 - 각 5편씩
 - 동화 - 1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동시 - 5편
 - 소설 - 1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수필 - 2편(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평론 - 1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원고 보낼 곳** _ 부산크리스천문학 편집실
 - **주 간 이메일** _ 2050jsp@hanmail.net / **연락처** _ 010-2561-1221
 - **편집장 이메일** _ yunhyung7@hanmail.net / **연락처** _ 010-3851-4428

아동문학

〈동시〉

박경영 | 하늘 비행기 처음 타던 날 외 1편

〈동화〉

김복임 | 산을 넘어온 도롱뇽 원벽

남 순 | 열매의 연극

이효정 | 가방의 무게

정현옥 | 두꺼비의 눈빛

하늘 비행기 처음 타던 날 외 1편

박경영

우!~와~~~

하늘 속에

또 하늘이 있네

십리사탕 알사탕은

입안에서 둥글둥글

아직도 동그란데

별써 제주도는

둥~ 둥~ 둥~ 둥~

호수의 청솔방울

그날

하늘 처음 날던 날

누나는 과학으로 수학으로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 박경영 |

문학21(시,1998), 공무원문학가협회(동시,2001) 신인문학상으로 등단.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산광역시문인협회, 창원문인협회 회원. 보국훈장 광복장 서훈(2009년), 대한민국예총회장상수상, 부산광역시장 표창수상(2023년), 시집 『사람과 세상과 하늘에』외 산문집 수기 등 다수

나의 눈 머리 마음은
걸리버가 되었네
걸리버처럼 신기했네~

시험은 정말정말 싫어요

내일은 시험 날
엄마와 함께 벼락공부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과학
휴~
손바닥이 축축
눈앞이 빙글빙글
가슴도 두근두근

떨리는 답안지
화장실을 다녀와도
마음은 또 콩닥콩닥

엄마의 손
빠알간 색연필도 파르르
“이것도 몰라!!~”
천사표 엄마는
마귀로 변신

시험은 시험은
정말정말 싫어요.

산을 넘어온 도롱뇽 완벽

김복임

산벚꽃이 함박눈처럼 흩날리고 있어요. 맑은 옹달샘에 흰 구름이 내려와 있는 봄날이에요.

옹달샘 안 바위틈에는 어미가 된 농이가 푹 튀어 나온 눈으로 알들을 살피고 있어요.

옹달샘 옆에 산 벚나무 위에는 까마귀들이 까악, 까악 울며 날고 있어요.

몇 년 전 녹이는 산을 넘어왔어요.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산을 넘어 왔느냐고요?



| 김복임 |

- 《문학도시》 수필 등단, 《수필과비평》 수필 등단, 《아동문예》 동화 등단
- 2019년 부산문화재단 창작금수혜, 2019년 목련나무가 있는 집 수필 발행
- 2023년 남원시 예술지원금 수혜, 2023년 아버지의 우물 수필 발행
- 황산문예 회장, 부산크리스천문학 회원, 부산문인협회 회원, 수필과 비평 회원

농이가 새끼였을 때 북쪽 엄광산 아래 작은 웅덩이는 도롱뇽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근처에는 조용한 암자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암자 옆 바위 속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샘물은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샘물에서 흘러나온 웅덩이에서 어미 도롱뇽들은 알을 품어 세상에 내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절 옆에 요양병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올라갈수록 웅덩이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운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공사장에서 날아온 스티로폼과 쓰레기가 웅덩이를 덮기 시작했어요. 도롱뇽들은 오랫동안 살았던 웅덩이를 떠나야 했어요.

농이는 까마귀 등에 업혀 엄광산 자락을 날아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키다리 역새가 하얀 손을 흔드는 언덕이 올랐어요. 천둥과 돌풍이 몰아치는 날 바위 밑에 엎드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날았다고 하는데…….”

“그런 꿈같은 소리 말아요. 애들 놀라겠어요.”

용이 아빠 엄마는 하늘을 보며 얘기했어요.

산을 넘어오는 길은 멀고 험했어요. 먼저 농이 아빠가 숲을 헤치고 나가면, 엄마가 조심스럽게 동생을 살폈어요. 농이가 마지막으로 기어나갔어요. 상수리 잎이 부드럽게 깔린 길은 잠시였어요. 바위를 타고 넘으며, 언덕을 내려올 때 배에 멍이 들고 피가 났어요. 엄마와 아빠가 새끼들의 상처를 쓰다듬고 있을 때, 까악, 까악 까

마귀 가족이 날아왔어요.

“내 등에 올라타! 내가 도와줄게.”

“무서워요!”

“나를 믿어봐!”

까마귀들은 농이 가족들을 등에 태우고 높이 날아올랐어요. 산 정상을 넘어오는 동안 낙동강 끝자락이 보였어요. 어지러워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떠보니 넓게 펼쳐진 바다도 보였어요.

까마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침을 여러 번 삼켰어요.

농이 식구들은 까마귀 등을 타고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엄광산 남쪽자락에 내렸어요.

옹달샘 옆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요.

산 아래 사는 할머니가 자주 올라와요. 작은 텃밭에 앉아 맑은 옹달샘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맑은 물빛을 닮았어요.

“까아악, 까아악.”

까마귀들은 옹달샘에 누가 온다는 신호를 그렇게 알려주었지요. 오늘은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꽃잎이 한가로이 떠 있네.”

“할머니, 옹달샘에 파란 하늘이 담겨 있어요.”

“그래! 창대야. 여긴 애기 용들이 사는 곳이란다.”

“용들이 산다고요?”

“싹!”

할머니가 집게손가락을 입에 댔어요.

옹달샘에서 사는 어미농은 고개를 들어 올라야 하늘이 보여요.
창대는 옹달샘 밑에 하늘이 보이냐

얼음이 녹아 옹달샘 물이 아직 차가운 날 용이 알을 낳았어요.
바위틈에 숨어 옹달샘 안에 떠 있는 알 주머니를 지키는 농이의
하루는 한 달보다 긴 날이에요.

어미농은 물속 이끼 주머니에서 자라는 알들이 빨리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새끼들이 너무 늦게 깨어나면 산개구리들의 밥
이 되기 때문이지요.

“할머니, 옹달샘 바닥에 도넛처럼 생긴 게 뭐예요?”

“아이고, 우리 창대, 배가 마이 곱은가 보네. 할미 눈에는 보석
팔찌처럼 보이는데!”

창대는 작은 막대기로 알주머니를 들어 올렸어요.

할머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안 돼! 창대야!”

할머니 고향에 창대는 알주머니를 물속에 얼른 집어넣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창대가 할머니를 따라 옹달샘에 또 왔어요.

“할머니, 도넛 같은 저거, 도롱뇽 알집 맞죠?”

“그래, 도롱뇽 어미가 보석 주머니에 알을 숨겨 두었던단다.”

“할머니, 우리 반 인준이가 도롱뇽 알을 키운다고 자랑했어요.”

할머니는 창대의 마음을 알 것 같은 눈치였어요.

“사진으로 보던 도롱뇽 알을 직접 보니 꿈만 같아요.”

“먼저 나온 새끼들은 벌써 바닥에 붙어 있구나. 새끼들이 빠져 나온 알주머니는 이끼처럼 하늘거리네.”

“새끼들 머리가 둥글고 길쭉한 게 꼭 올챙이 같아요.”

“.....”

“할머니! 도롱뇽 새끼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을 보고 싶어요.”

“.....”

‘창대가 도롱뇽 어미가 알을 숨겨 놓은 마음을 알까!’

할머니 마음은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두근거려요.

바위틈에서 새끼들을 지켜보는 어미 농이는 자기도 모르게 깊은숨을 쉬었어요. 그나마 밤에는 알을 둘러 볼 수 있지만, 낮에는 창대 같은 아이들이 올까 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우리 반 인준이는 도롱뇽 알을 관찰해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창대야. 도롱뇽은 일급수에서만 사는 냉수어라 집에서는 기르기 힘들단다.”

“정말요?”

창대는 할머니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갔어요.

숨어 바라보던 어미농이는 까마귀 등을 타고 엄광산을 넘어올 때처럼 입이 마르고 숨이 차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창대가 할머니와 웅달샘에 또 왔어요.

“할머니, 그동안 도롱뇽 새끼들이 알에서 많이 태어났어요. 헤엄치는거 보세요.”

“창대 너도 아기 때 저렇게 배밀이를 하고 다녔다.”

“할머니, 제발요! 몇 마리만 가져가면 안 돼요?”

“저 어린 것들이 어미를 떠나서 살겠나?”

“한 번만 키워보고 싶어요.”

“까악, 까악...”

그 말을 들은 까마귀들이 소리를 지르며 날고 있어요.

“할머니, 까마귀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모른 척 웅달샘에 버려진 캔과 비닐봉지를 건져냈어요.

“창대야! 비닐 속에 새끼들이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건져내자.”

“네, 캔에 들어가도 다칠 수가 있어요.”

검은 비닐봉지는 꼭 마녀의 두건 같았어요.

“할머니, 도롱뇽 새끼 안 가져가면 집에 안 갈래요.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이 녀석! 고집도 세다..... 딱 세 마리만 담아라.”

“우와!”

“창대야 도롱뇽이 말은 못 해도 마음은 우리와 똑같단다.”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밤낮으로 개구리들이 물고 갈까, 비 오면 떠내려갈까, 마음 줄이며 키웠을 텐데..... 어린 네가 어미 마음을 어찌 알겠노!”

어미용의 마음을 위로 하는 듯 까마귀의 울음소리도 길게 들렸어요.

며칠이 지나갔어요.

오늘은 할머니 혼자 옹달샘에 왔어요. 어미는 바위틈에서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기회만 보았어요.

할머니는 작은 병에 든 물을 옹달샘에 조심스럽게 부었어요.

“네 어미 있는 곳에서 잘 살아라.”

무사히 돌아온 새끼들이 물속을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미는 휴! 하며 숨을 깊이 마셨어요.

“창대 할머니 집에서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

“창대가 서울까지 우리를 데려간다고 고집을 부렸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징징대다 우리를 두고 갔지.”

까마귀들도 검은 고개를 쪽 빼고 물속을 내려다 봐요.

농이는 바위틈새에 몸을 감추었어요.

할머니의 미소 짓는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순간 할머니와 어미 농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옹달샘에서 푸른빛이 일었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어미농이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할머니 새끼들을 살려 주셔서…….”

“창대를 말리지 못한 내가 더 미안하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다! 아니다!”

할머니 머리 위로 벚꽃 잎이 하늘하늘 내려왔어요. 옹달샘엔 봄
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어요

열매의 연극

남 순

어버이날, 우리 반은 동네 요양원에서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우리 할머니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역할에 열매를 추천합니다.”

“왜죠?”

열매는 할머니랑 살아서 잘 해낼 것 같아서입니다.”

“현아는 열매를 잘 아는 것 같군요.”

“네, 히히히.”

“다른 사람은 없나요?”



| 남순 |

- 2004년 《아동문예》 동화, 2013년 《문학예술》 시 등단
- 제6회 남재문학 작가상, 제21회 부산문학상 우수상 수상
- 동화집 『무지개나라 화가아저씨』, 『물고기 아파트』, 『꿈꾸는 장어』
- 그림동화 『빨강 연필』 외 다수 공저
- 동요 작사 『윙크 윙크』 외 다수
- 평론 『현대 동화문학 작품론』-『정성란 장편동화의 특성』 공저

“.....”

“그럼, 열매에게 할머니 역할을 맡겨 볼까요?”

“네!”

나는 연극 연습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에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서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
니다.

-열매야~, 빨리 온 수 없겠니?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

-오는 중이지? 빨리 와.

-할머니는 지금 정신이 말짱해. 급해서 먼저 갈게.

나는 문자를 확인하고 곧장 집으로 달렸습니다. 한참을 뛰었더
니 목구멍이 싸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빨리 뛰었습니다.

“앗!”

그만 발목을 빼고 말았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저기, 언덕 위에 있는 무궁화 빌라 103호가 우리 집입니다.

“할머니!”

현관문을 여는 데 구린내가 코를 찔렸습니다.

“어마이, 와 인자 오우!”

그제 할머니가 정신이 나간 모양입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연극
을 해야 합니다.

“통 썬음?”

냄새를 따라 가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안 썬음!”

“냄새 나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른 씻자우.”

욕실 앞에서 할머니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어마이, 밥 줘!”

“알았음. 씻고 나면.”

“정말이제이요?”

“고럼!”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그제야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휴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이 나갔을 때마다 한 번도 본적 없는 사진 속 증조할머니의 흉내를 내야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내가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아이가 됩니다.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하늘을 봐서 구름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매야, 조금만 참자.’

나는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더 심해지기 전에 요양원에 보내드리자고 했

습니다.

하지만 나는 중학교 갈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만약 학교 갔다 왔을 때 할머니라도 안 계시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입니다.

“흑흑흑, 내가 얼른 가야 하는 디.”

욕실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정신이 돌아오면 나는 금방 손녀로 돌아갑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여름(‘열매’의 함북 방언)이 학교 잘 다녀왔음?”

“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배웠음?”

“어버이날 요양원에서 공연할 연극을 배웠어요.”

“잘 했꼬마.”

“할머니도 구경 오실래요?”

“네 아빠 오면 밥 차려줘야지.”

할머니는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할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의 만두가게를 하면서 매일 별보고 나가서, 별보고 들어오십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현관에서 인사를 하지만, 나는 전화로 엄마에게

인사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엄마의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익숙했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아니예요. 엄마가 더 고생하시죠.”

“다 컸네, 우리 열매!”

엄마가 말을 잊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평안도에서 피난 오던 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동네 골목시장에서 조그마한 만두가게를 하면서 아빠를 키웠습니다.

아빠는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나라를 위해 해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함이…….

할머니가 저렇게 되신 게 아빠 때문일 거랍니다.

전화기 너머 긴 고요는 엄마가 흐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매야,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자. 지우 할머니도 거기서 잘 지내신대.”

엄마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갈 때까지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네가 고생하니까 그렇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나도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습니다.

“할머니 시장하실라. 얼른 밥 차려드려라.”

“네.”

노란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아까 냄새 나가라고 현관 문을 열어 놓았을 때 들어온 모양입니다.

열쇠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에 자물쇠가 있는 집은 아마 우리 집 뿐 일겁니다. 베란다 창고도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처럼 되어버립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오냐!”

할머니는 밥상 앞에 앉아 나를 빤히 보았습니다.

“여름아, 요양원에서 연극을 왜 함?”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기래. 세상이 즐겁지 않다.”

할머니는 알 수 없을 말을 했습니다.

“거기, 지우 할마이도 있음?”

“네.”

“할머니도 가실래요?”

“내가 없는 사이에 네 아빠가 오면 어쩐?”

“빨리 다녀오면 되죠.”

“빨리?”

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래도?”

할머니는 아빠가 꼭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열세 살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얼른 먹고 참꽃 구경 가자요!”

나는 정신이 나가 밥투정을 하는 할머니에게 꽃구경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인상을 찡그리며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마이는 밥을 왜 안 먹슴?”

할머니는 나에게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국물을 후후 불며 먹는 시늉을 했습니다.

“어마이, 참꽃 구경 가자요.”

할머니는 손가락을 놓고 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설거지를 해놓고 가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벽에 기댔습니다. 할머니는 금세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기댄 벽 위에 아빠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진에 할머니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배개를 받혀드리며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꺼냈는지 쌈지에 넣어 둔 누런 흑백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닳아 없어져 가는 증조할머니의 얼굴이 할머니 얼굴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밥상을 덮었습니다. 밥상보는 할머니가 여러 가지 천 조각을 붙여 만든 것입니다. 반찬물이 들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할머니 같았습니다.

드디어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베란다 의자에 앉아 즐고 있었습니다.

봄별이 할머니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몇 개 안되는 엄마의 화장품으로 낡은 사진의 얼굴과 거울 속의 얼굴이 닮도록 분장을 했습니다. 넓은 이마와 오뚝한 코, 앙다문 입술이 할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할머니가 나를 더 닮았는지 모릅니다.

‘할머니의 기억도 이렇게 화장을 하면 고와질까?’

나는 할머니가 임진각에 가실 때 입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감장치마와 흰 저고리가 조금 컸습니다. 머리를 올려 연필을 비녀처럼 꽂았습니다.

“분아~. 참꽃 보러 갑세.”

할머니가 눈을 부스스 떴습니다.

“어마이~.”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 눈에 내가 진짜 증조할머니로 보였나봅니다.

“분아~. 뒷산에 참꽃 보러 갑세.”

나는 할머니가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하시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증조할머니처럼 연극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디서 노랑나비가 날아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 두 마리가 점점 여러 마리로 변했습니다.

“노랑나비다~!”

할머니는 노랑나비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꽃을 몽글몽글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랑나비가 꽃구름 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어마이, 참꽃이 차암 이쁘게 피었어라~.”
할머니 눈에는 꽃구름이 고향 뒷산에 피던 참꽃으로 보였나
봅니다.
저기, 요양원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방의 무게

이 효 정

“주원아, 가방이 너보다 커.”

등굣길에서 만난 선재가 가방을 보면서 놀렸다. 내 가방은 항상 다른 친구들보다 두 배는 무겁다. 학교를 마치면, 학원 릴레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어디 어디 가는데?”

선재의 물음에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영어, 수학, 논술, 태권도.”

“하루에 네 개?”

선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질렀다.



| 이효정 |

- 2024년 《아동문예》 등단.
- 『빨강 연필』, 『네가 딱이야』 공저.
- 자갈자갈 동인

“응. 네 개. 끝나고 나면 학교 숙제에 학원 숙제.”

선재는 나를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불쌍한 녀석. 내가 구해줄게. 오늘 나랑 놀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내가 너 납치했다고 그래.”

선재가 재밌다는 듯이 웃었지만 나는 전혀 웃지 못했다.

“됐어. 안 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놀고 싶은 마음을 꺾꺾 눌렀다. 선재에게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까웠다.

“나 오늘 생일이라 피씨방 무료쿠폰 받았단 말이야. 같이 가자. 네가 내 쿠폰 쓰고 두 시간 만 놀자.”

선재는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즐겼다. 나랑 피씨방 같이 가는 게 생일 소원이라면서.

나도 선재를 따라 피씨방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엄마에게 들리게 될 걸 생각하니 손에서 땀이 났다.

“진짜 안 갈 거야? 나 오늘 엄마가 생일이라고 용돈 주셔서 맛있는 것도 잔뜩 사 먹으려고 했는데. 너 안가면 원진이랑 가면 되긴 하지만 너랑 꼭 가고 싶었거든.”

선재의 말에 가슴이 쿵다쿵다 뛰었다.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졌다.

‘눈 딱 감고 엄마한테 야단맞을까? 잔소리는 어차피 매일 듣는 건데 뭐.’

머릿속에서 피씨방과 엄마의 얼굴이 왔다 갔다 했다. 심장이 쿵

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재가 원진이를 보고 알은체를 했다. 선재가 원진이에게로 가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선재의 팔을 꼭 붙잡았다.

“.....가자.”

나는 선재에게 그 말을 하고 말았다.

선재는 축 늘어진 내 오른손을 들어 올려 손바닥을 억지로 짹짹 맞추었다.

“잘 생각했어. 가자. 가자~.”

신이 난 선재는 엉덩이를 찔룩대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잠시 뒤 있을 시간이 기대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결국, 학교에서 수업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하고 손톱만 잘근잘근 씹었다.

“주원아! 너 뒤에 봐. 뒤!”

선재가 신이 나 소리쳤다.

“뒤? 어어? 아. 죽었다.”

처음에는 진짜 신나게 했던 게임이었지만 할수록 실력 차이가 났다. 게임 캐릭터가 죽어 색깔이 없어진 흑백화면만 보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으려니 걱정이 밀려왔다. 화난 엄마의 얼굴과 들어야 하는 잔소리. 한숨이 나왔다.

‘엄마가 전화 많이 했겠지?’

가방 속에 꺼놓은 핸드폰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라면 먹을래?”

선재가 기지개를 켜면서 피씨방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그래.”

선재는 컴퓨터로 라면을 주문했다.

‘라면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판만 더 하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세까지 고쳐 앉았다. 게임에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네.”

나는 라면이 온 줄 알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옆에 서 있던 사람은 경찰이었다.

“김주원 학생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요.”

“김주원 학생 실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종이요?”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선재가 마우스에 손을 올린 채로 이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둘의 컴퓨터 게임 화면이 흑백이 되었다.

경찰 아저씨는 무전기 속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나를 경찰차에 태웠다. 경찰차에 타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다 해놓은 숙제를 깜박 잊고 학교에 왔을 때처럼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고 땀이 흘렀다. 땀이 흐르고 난 뒤에는 으슬으슬 추웠다. 다리가 덜덜 떨렸다.

경찰서에 앉아서 꺼냈던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21건’

‘톡톡 20건’

먼저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몇 개는 학원이었고 대부분은 엄마였다. 톡톡 역시 대부분 엄마에게서 온 것이었다.

「김주원, 너 어디야?」

「학원을 두 개나 빠지고 어딜 간 거야?」

「전화를 하루 종일 꺼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집에 오면 두고 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보는 대로 바로 전화 해!」

핸드폰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엄마의 톡톡 내용에 한숨이 나왔다. 화가 난 용처럼 코에서 불을 뿜고 있을 엄마의 얼굴이 그려졌다. 손에 배어 나오는 땀을 바지에 문질렀다.

“실례합니다. 전화 받고 왔어요.”

엄마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나를 한 번 쳐다보고는 경찰 아저씨에게로 향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놀고 있느라 그런 건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경찰 아저씨에게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서는 나를 찌려보았다.

“가자.”

나는 엄마를 따라 걸었다. 엄마의 뒷모습에서 한겨울의 바람이

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집이 조용했다. 우리 집 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컸었나?

엄마는 시계의 초침처럼 뽀족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김주원!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엄마의 말에 나도 울컥 속이 상했다. 그동안 엄마가 짜주는 대로 다녔던 학원이다. 단 하나도 내가 원한 것이 없었다.

“친구 생일이었어. 그래서 딱 하루 빠진 것뿐이야.”

“친구 누구?”

“선재.”

“선재가 누구야?”

당연히 엄마는 선재를 모를 것이다. 선재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니까.

“그럼 미리 얘기했었어야지!”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학원 빠진다고 하면 엄마가 허락 안 해줬겠지!”

나도 덩달아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학교 마치면 학원. 학원 마치면 또 학원. 학원! 이 가방이 내 어깨에 매달린 족쇄같아!”

나는 등 뒤에 매달려 있던 가방을 벗어서 바닥으로 던졌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진동이 바닥에서 느껴졌다.

한여름에도 킁킁거리며 메고 다녔던 가방의 무게가 떠오르며 눈물이 났다. 편의점에서 딱딱한 빵을 사 먹었던 때처럼 목이 짝 메었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항상 하는 이야기다. 이번에는 가슴 쪽이 짝 메었다.

“엄마 눈에는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는 가방을 열어젖히고 가방에 들어있던 책을 꺼내 식탁 위로 던졌다.

“이렇게 책 무겁게 들고 학원 많이 안 다녀도 공부할 수 있어!”

나는 발을 쿵쿵 굴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을 때도 있는 힘껏 세계 닫았다.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로 몸을 웅크렸다. 눈물이 나왔다. 하필이면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다. 내일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지?

통통통.

주방에서 아침을 만드는 소리가 들렸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다. 어제 새벽에 엄마가 방에 다녀갔었다. 잠든 척을 해서 엄마는 내가 모르는 줄 알겠지만.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고민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쭈뼛거리며 엄마에게로 갔다. 어제 내가 식탁 위로 던져놓았던 책은 보이지 않았고, 속이 빈 가방이 옆으로 입을 벌리고 누워있었다.

“일어났어?”

엄마는 식탁에 늘어놓은 김밥 재료를 하나하나 모아 김 위에 올려두고 도르르 말았다.

“먹어볼래?”

엄마가 내 입속에 김밥을 하나 넣어주었다. 나는 어정쩡하게 선 채로 김밥을 우물거렸다. 엄마는 김밥을 하나 더 말면서 턱으로 텅 빈 가방을 가리켰다.

“주원아, 가방에 과자 좀 넣어.”

“어디 가?”

나는 과자가 담긴 서랍을 열면서 엄마에게 물었다.

“소풍 가자.”

‘소풍?’

엄마는 나를 보며 가만히 웃었고 나는 멧쩍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과자를 골라냈다.

과자와 김밥만 담긴 가방은 아주 가벼웠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을 지나다가 창틀에 세워진 화분을 보았다. 물기를 머금은 화분이 햇볕을 받고 서 있었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서 화분에 바람이 통하도록 했다.

“가자.”

나는 엄마를 따라 현관으로 달려 나갔다. 현관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졌다. 나는 엄마와 손을 잡았다.

머리 위로 따스한 햇살이 한 움큼 내려앉았다.

두꺼비의 눈빛

정 현 옥

“와, 봄이 왔다!”

솔이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솔아, 우리 봄맞이 준비하러 텃밭에 갈까?”

“네, 룰루랄라!”

봄방학을 한 솔이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텃밭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장자리에 크고 작은 돌들이 사이좋게 어깨를 맞대고 있었지요.

바로 앞 저수지에는 햇살이 반짝거렸어요.

“시작해 볼까?”



| 정현옥 |

- 교육대학교 졸업
- 2023년 《아동문예》 동화 등단
- 자갈자갈 그림동화 회원
- 부산크리스천문학협회 회원, 부산문인협회 회원
- 저서 『빨강 연필』(공저), 『네가 딱이야』(공저), 『잡기 놀이』(공저)

아빠는 장갑을 끼고 쇠스랑을 들었어요.

“나도 할래요.”

술이는 작은 삽을 들었어요.

“푹, 푸욱…….”

아빠는 쇠스랑으로 단단해진 땅을 파헤쳤어요.

“푹, 포욱…….”

술이는 작은 삽을 들고 아빠 흉내를 내었어요.

‘누가 내 잠을 깨우지?’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두꺼비가 일어났어요.

“술아, 여기 와 봐!”

“왜요?”

술이가 달려왔어요.

아빠는 술이에게 두꺼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뭐예요?”

“싹!”

아빠는 손가락을 입에 댔어요.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두꺼비는 실눈을 뜨고 더듬거렸어요. 등에는 노란점이 있었지요.

술이와 아빠가 일하다가 돌아보았어요.

“아빠, 두꺼비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술이는 술래처럼 두꺼비를 찾아다녔어요.

“아빠, 저기!”

한참 두꺼비를 찾아다니던 솔이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빠를 불렀어요.

“어디?”

눈이 휘둥그레진 솔이가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두꺼비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자꾸 머리를 땅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모르고…….’

아빠는 두꺼비에게 낙엽을 덮어주었어요.

다음날이었어요.

솔이는 어젯밤 꿈에 두꺼비가 자꾸 눈을 비비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두꺼비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솔이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두꺼비가 있던 빈집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두꺼비가 덮은 흙 이불을 걷어냈어요.

두꺼비가 하품하며 더듬거리며 나타났어요. 그때 두꺼비가 눈을 뜨지 못했어요.

“무슨 일 있었니?”

봄바람이 두꺼비에게 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두꺼비는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그래, 괜찮아지길 바랄게.”

봄바람은 그 말을 남기고 바쁘게 지나갔어요.

“뼉뼉, 뽀옥뼉…….”

솔이가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흙 사이에서 두꺼비를 본 솔이는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어요.

“노란점이다.”

솔이가 소리쳤어요.

“어디?”

솔이 아빠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아빠, 두꺼비 눈이 이상해요!”

솔이가 금방 울 것 같았어요.

두꺼비 눈빛이 안개처럼 뿌옇어요.

“저런, 이걸 어쩐담? 나 때문이야.”

아빠는 그날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 몰랐어요. 두
꺼비를 보며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소설

안유환 | 배드링니 소녀

Christian Literature 2025

빠드렁니 소녀

안 유 환

하얗고 가름한 목련꽃 같은 그녀의 얼굴이 봉선화처럼 발갛게 물들었다. 가까이서 그녀를 바라보는 내 얼굴도 아마 그렇게 물들었을 것이다. 단발머리 찰랑거리며 친구들 사이에서 활짝 웃는 얼굴엔 빠드렁니가 뻐뻐뻐했다. 치아교정으로 이를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오랜 뒤에 알았지만 나는 그대로의 모습이 조금도 보기 싫지 않았다. 사랑하면 마마도 보조개처럼 보인다는 어른들의 말도 그때는 몰랐다. 아마 초등학교 2~3학년 때쯤이었을 것이다.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웠고,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면 내 마음은 그녀의 얼굴빛을 받아 환해지는 것 같았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



| 안유환 |

《한국동서문학》소설 등단. 소설집 『하이네 자서전』, 장편소설 『주네브행 열차』, 시집 『그림자의 귀향』, 수필집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 등 10여 권. 부산소설인협회 회원. 〈부산문학상〉 〈한국해양문학상〉 등 수상.

고 귀국하여 처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고속도로 차창에 혜순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빠드렁니는 교정했을까? 누구와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승용차가 P시에 접어들면서 내 심장박동은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인접한 고향 마을은 판 세상으로 변해버렸고, 강산이 네 차례나 변하는 40여 년의 세월! 마을 뒤 울창하던 송림은 다 베어지고, 여름이면 온 마을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던 거대한 팽나무들도 간 곳이 없다는 소식을 나는 미국에서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생명정보기술(BIT) 산업단지가 그곳에 조성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은 유적지처럼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미래의 선진국을 담보하는 BIT 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서 내 유년의 등지를 모두 몽개버리고 말았다. 인구 5만이었던 P 시도 지금은 그보다 열 배나 늘어났고, 이웃집을 드나들듯 자유롭게 오가던 변두리의 고살은 신호등을 기다리는 넓은 길로 변했다.

시내로 들어와서 세 번째 신호등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보이는 홈플러스 앞에서 혜순은 12시쯤 나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저만치 건물 이마에 붉은 간판이 보이자 나는 속도를 줄여 비상깜빡이를 켜고 인도 쪽으로 서서히 접근했다. 보라색 케이프를 두른 여인이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 혜순은 깜빡이를 켜고 다가오는 승용차에 내가 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모양이다. 환하게 웃는 얼굴에 내가 먼저 눈여겨본 빠드렁니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세월은 한동안 흐르기를 멈추고 있었을까? 하얗고 가름한 목련꽃 같

은 얼굴에 약간은 덧살이 졌으나 이순에 접어든 나이에든 혜순은 내가 생각하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나는 손을 흔들며 마주 인사하며 인도에 차를 바짝 붙여 세웠다.

“야—, 오랜만이다!”

혜순은 승용차 문을 열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잘 있었어? 어서 타.”

나는 손바닥으로 조수석 바닥을 툭툭 두드렸다. 혜순은 내가 내민 손을 잡고 악수하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여 안전벨트를 당겨 매어주었다. 약간 짙은 화장에 얼핏 어머니 젓 냄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것은 요즘 아내가 즐겨 쓰는 디아르망 팜므 향수 냄새였다. 승용차 안은 순식간에 향기로 가득 채워졌다.

“그대로네!”

내 느낌은 옛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왜, 편지라도 좀 자주 하지—”

혜순은 인사 대신으로 원망 조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답장도 받을 수 없는 편지를 독백처럼 계속하기는 어려웠어.”

나는 혜순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답장은 하지 말라는 추신을 달았다. 혹시라도 어릴 적 이야기가 평지풍파를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오래도록 미국물을 먹어도 별로 변하지 않았네. 가족들이 함께 귀국했어?”

혜순은 찬찬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딸 둘은 미국에 있어. 큰애는 결혼했고, 둘째는 공부가 더 좋은
가 봐.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상투적인 말로 그간의 안부를 물었다.

“심심하면 초등학교 동기들 만나고, 그림도 좀 그리고…….”

혜순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림이라니? 아이들 놀이처럼…….”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하하하.”

“취미생활로 꿈을 키우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는 친구들을 생
각하며 그리움만 먹고 살았어!”

나는 말을 바로잡고 혜순이가 보고 싶었다는 말을 애들러 표현
했다.

“나도 네가 보고 싶었어! 답장을 할 수도 없고—. 여기, 차를 오
래 세워둘 수 없는데…….”

“어디로 갈까?”

“내가 가자는 데로, 기사님은 운전만 하세요.”

목적지는 혜순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다. 가자는 곳이 어디일까?
마을 뒷동산에라도 올라 바다를 굽어보며 옛이야기를 나누고…….
뒷동산은 사라졌으니 호젓한 바닷가 카페로 갈까? 중고등학교 시
절에는 교회에서 자주 만났다. 주일날에는 같이 교회학교 반사를
했고, 평일 오후에도 심심하면 교회로 가서 풍금을 타며 찬송가나
우리 가곡을 함께 불렀다. 직진, 우회전, 이번 신호 다음에 좌회전.
그녀의 말을 따라 도착한 곳은 죽전 시장이었다. 주차장은 동천으
로 흘러 들어가는 북개천에 있었다. 오른쪽으로 옷집, 양품점, 철

물집, 잡화상 등이 줄지어 있다. 나는 혜순의 뒤를 따라 좌로, 우로, 몇 개의 골목을 지나 어물전으로 접어들었다. 어시장의 비릿한 냄새를 맡으며 다시 왼쪽으로 돌아 한참 나아가니 건어물집 몇 개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시장길 바닥은 시멘트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이곳은 지난날 갈대가 자라던 습지를 매립했기에 비가 오면 길바닥이 뿔밭처럼 질척거렸다. 사람들이 장 보러 갈 때는 아예 장화를 신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이용했다. 장사치 여인들은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을 했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아득한 옛이야기가 되었다. 지금은 거대한 현대 시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로 손꼽히는, 아마 대구 서문시장 다음으로 큰 규모가 아닐까? 혜순은 한 할머니가 굴비 두름을 손질하는 건어물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영숙아, 아이들 아직 안 왔나?”

혜순이가 할머니 같은 여인에게 물었다.

“정희 하고 미옥이는 왔어. 안으로 들어가 봐…….”

할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혜순이 뒤에 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서형오 모르나? 우리 마을에 살던 동기잖아.”

혜순이가 친구에게 나를 소개하며, 너도 서영숙이 모르나? 옷 마을에 살았잖아, 라고 말하며 웃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우리 동기라는 여자친구가 이 할머니라니! 하기가 내 나이도 혜순이 넘었으니—.

“형오야, 날 모르겠나? 우리는 종씨잖아. 너는 여전 하네.”

서영숙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이제 좀 생각이 나는 것 같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

나는 아직도 기억이 어렴풋했으나 엉거주춤 알은척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조그만 사무실 같은 공간에 긴 나무 의자가 벽에 붙어있고, 접이의자 둘에 비스듬히 마주 앉아 있던 두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우리 여자들 반창모임이야. 남학생들과 함께 모이는 동기가 있지만 그 자리에 가면 술타령이나 하며 담배 연기를 날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모이지.”

그들의 모임은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아무런 격식도 없이 편안했다.

“형오야, 야아들 모르겠나? 이쪽은 송동에 있는 정희, 저쪽은 대각에 사는 미옥이—”

나는 그들이 누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알겠제—, 내가 좀 왈가닥이었잖아!”

미옥이가 내 앞으로 얼굴을 디밀며 웃었다.

“으—ㅇ, 그렇지. 이제 생각이 좀 나네.”

그들은 나를 알아보는데 나는 끝까지 모른다고 할 수 없었다. 건어물상 주인 서영숙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씩 빼 와서 탁자 위에 놓았다. 그때 우리 학교에는 동반, 서반, 남반 3개의 학반이 있었다. 동반은 학교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고, 남반에는 내 고향 송전마을과 인근에 있는 마을 3개가 포함되

었고, 서반은 지역 구분 없이 여학생들로만 한 반을 이루었다. 한 반은 50~60명 정도였고 그때는 남·여학생이 별로 접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한마을에 사는 혜순이, 미정이, 경선이와는 가까이 지내는 편이었다.

“경선이는 왜 아직 안 오나? 어제저녁, 오늘 미국에 살던 형오가 온다고 말했는데.”

혜순이가 벽시계를 쳐다보다 전화를 걸었다.

“……어디까지 오는데? ……택시를 탔다고? 알았어. 빨리 와.”

혜순이는 미정에게도 전화를 걸었으나 손주를 병원에 데려가느라 좀 늦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잠시 후 박경선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와—, 형오, 진짜 오랜만이다!”

경선이가 두 팔을 벌려 나를 껴안고 내 등을 툭, 툭, 두드렸다. 다른 친구들이 “경선이가 제대로 인사를 하네!”라고 말해 함께 웃었다. 잠시 후 미정도 도착했다. 함께 모이면 모두 여덟 명인데 장동에 사는 효빈이는 몸이 안 좋아 오늘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한다.

“벌써 1시가 넘었네. 식당으로 가자. 멀리서 온 형오는 배고프겠다.”

혜순의 말을 따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숙은 옆집 사람에게 건어물 가게를 부탁하고 앞치마를 벗었다.

“형오는 무얼 좋아하나? 오늘은 우리가 손님을 대접해야 하니까.”

혜순이가 친구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고향에 왔으니 회가 좋겠네, 오랜만에 물회를 먹어볼까?”

어시장길은 시멘트 바닥이지만 물이 흘러 질펀했다. 혜순이가 횃집 주인에게 좀 늦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예약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혜순이가 내 옆에 나란히 앉고 경선이와 미정이가 맞은 편에 자리 잡았다. 옆에 붙은 또 하나의 테이블에는 영숙이와 다른 친구들이 앉았다. 종업원이 컵에 물을 따르고 땅콩을 한 접시씩 갖다 놓았다.

“형오는 영구 귀국했다면서? 우리는 네가 아주 미국 사람 되는 줄 알았는데—”

알가닥 미옥이가 장난스레 땅콩 한 개를 내게 집어주며 말했다.

“아무리 정을 붙이려 해도 내 나라만큼 좋은 곳은 없나 봐! 넓은 땅에 볼거리도 많아도 미국이란 나라는 한두 차례 관광여행으로 족한 것 같아.”

“미국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어?”

“벌써 30년이 지났네. 처삼촌이 초청한 이민이지만 나는 늘 너희들이 그리웠어.”

나는 귀국 후 아내의 고향인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형오는 옛날부터 혜순을 좋아했잖아. 나는 네가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면 혜순이와 결혼할 줄 알았어.”

경선은 반세기 전 사랑 이야기를 지금 불러내고 있었다.

“혜순이 하고는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며 자주 만나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생각했던 것이지……. 그때, 진짜로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이 따로 있었지.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 효빈이 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정복이가 서로 좋아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

고 있었잖아.”

나는 말머리를 다른 친구에게로 돌렸다.

“그때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았지.”

왈가닥 미옥이가 혜순에게 의미 있는 미소를 던졌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아마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내숭만 떨어지지.”

경선이는 미옥에게 동조하듯 미소를 띠며 말을 받았다. 마침 물회가 나오고 식탁이 차려졌다.

“형오는 오늘 특별 손님이니 많이 먹어야 해.”

옆 테이블 대각선 쪽에 앉은 영숙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혜순을 좋아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때가 6.25 직후였으니까 내가 여덟 살쯤 되었을 것이다. 텔레비전은 물론 없었고 라디오가 있는 집도 400여 호 마을에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요즘 같으면 그 나이에 알 것, 모를 것, 다 알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다. 하얗고 가름한 목련꽃 같은 얼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혜순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내 단짝 친구인 태영이와 함께 우리 집에서 숙제하고 놀다가 여학생들 얘기가 나왔다.

“태영아, 나는 여학생들 가운데 혜순이가 제일 좋더라!”

나는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혜순이 생각을 입 밖으로 처음 꺼냈다.

“그래? 나는 옥희가 좋더라. 얼굴이 동그랗고 예쁘잖아!”

내 말을 듣고 태영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의 이름을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혜순이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그는 옥희를 더 좋아하다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혜순을 태영이가 좋아했다면 일은 아주 복잡하게 되었을 텐데, 참으로 다행이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처럼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신기रो웠다. 혜순은 티 하나 없이 하얀 얼굴에 웃기를 잘했다. 웃을 때는 정렬되지 않은 뼈드렁니가 다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할 만큼 철이 들지는 않았다. 나도 그것이 전혀 보기 싫지 않았다. 옥수수 알갱이처럼 빈틈없이 가지런한 이빨보다는 뼈뿔 뼈뿔한 모양이 소리 없이 노래하는 것처럼 매력적이었다.

며칠이 지난 저녁, 우리 집에서 태영이와 숙제를 끝내고 자연스럽게 다시 여학생들 얘기를 하게 되었다. 그는 그저께 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들의 고무줄넘기를 휘방 놓다가 좋아하는 옥희를 울리고 말았다고 했다. 어쩌다 우리는 여자친구들과 땅따먹기 놀이를 같이할 때도 있었으나 혜순이는 한 번도 남자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않았다. 세월이 많이 흘러 자세한 것은 아련하지만 태영이와 나는 서로가 좋아하는 아이에게 ‘좋아한다’—혜순이를 찾아가서는 형오가 너를 좋아한다 카더라. 옥희에게는 태영이가 너를 좋아한다 카더라—는 말을 대신 전해주도록 말을 맞추었다. 도대체 대리 사랑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연애편지라면 대신 전해줄 수도 있지만, 생각만 해도 웃음을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단단히 약속하고 초저녁 어스름에 들어서 혜순이와 옥희네 집을 차례로 찾아

가기로 했다. 그다음 일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첫사랑은 대체로 은밀히 시작되지만 어쩌다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었는지, 참으로 천진난만한 시절이었다. 시도는 했지만 ‘대리 고백’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속사랑을 불태우고 있었으니 다른 친구들도 아마 눈치챘을 것이다. 고백하지 못한 사랑은 효력이 없었다. 나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서울의 출석하던 교회에서 만난 여교사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나는 옛사랑을 더 추궁받을 것 같아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밥값을 내려고 카운터로 갔다. 혜순이와 경선이가 따라와서 ‘손님이 내면 안 된다’ 만류했으나 계산은 내가 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혜순에게 교회에 다닐 때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던 백성숙 권사의 근황을 물었다. 백 권사는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지만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다고 말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 동기생들은 함께 영숙이네 가게로 가고, 나와 혜순은 주차장으로 와서 나란히 차에 올랐다. 에덴 요양병원의 백 권사 방은 2층 6인실이였다. 한 방에 모여 앉아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파들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으나 산수를 넘긴 백 권사는 말하는 품이 젊을 때 못지않았다.

“서 집사는 미국에 산다면서, 언제 왔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정말 반가워!”

“영구 귀국한 지 한 달쯤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노후를 보내려 했는데, 와보니 실향민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지. 정든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고, 이제는 보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워.”

기도의 어머니로 살았던 백 권사는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절기 때는 곱게 수놓은 손수건이나 장갑 등을 선물했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 작은아들 집에 함께 살았으나 어느 날 낙상으로 다리를 다치고,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너무 짐이 된다 싶어 요양병원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우리가 요양병원을 나왔을 때는 오후 3시가 지났다.

“나는 구룡포에 좀 다녀와야겠어.”

“늦었는데, 구룡포는 왜?”

“대학교 친구가 거기 사는데 오랜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해놓았어. 그리고 부산으로 바로 갈 거야.”

“우리 집에도 좀 들렀다 가야지.”

“아니야. 시간이 너무 늦어서…….”

“…….”

혜순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남편이 있는 집에 남자친구가 가도 될까?”

나는 혜순의 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남편은 지금 집에 없어. 오늘 아침 영덕 쪽으로 바다낚시를 나갔어. 내가 그려놓은 그림도 보고……, 우리 집 아래층은 내 화실이야. 친구들이 찾아오면 차를 마시며 노는 자리지.”

혜순이 집은 T 초등학교 옆에 자리 잡은 아담한 2층이었다. 4월

의 넓은 정원에는 튜립과 수선화, 프리지어가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정원수도 말끔히 손질되어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오른쪽으로 화단이 내다보이는 10여 평 넓은 방이 혜순의 화실이였다. 창가 이젤에는 그리다 만 캔버스가 놓여있었다. 혜순이 스위치를 올리자 벽에 걸린 화려한 색상의 풍경화가 불쑥 다가왔다.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한 <생 레미의 포플러>였다. ‘포플러 나무는 뒤틀려있고, 옆으로 약간 기울었으며 언덕이 만들어 내는 대각선에 의해 역동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그림은 고흐가 생 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그린 그림. 한참 그림을 들여다보면 보는 이의 사고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밀레의 <만종>, 현대인들의 공포와 불안을 시각화한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도 20호 크기로 걸려있다. 맞은편 벽에는 몇 개의 초상화가 걸려있었다.

“이쪽은 우리 부모님이야. 그 아래쪽 그림은 누군지 알겠어?”

혜순은 낯선 데생을 가리키며 물었다.

“글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인데…….”

“내 솜씨가 선잖으니까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형오를 그린 것이야.”

“어쩌면 내 젊을 때 모습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30여 년 전 이민을 떠나면서 인사차 고향에 들러 인물사진 한 장을 혜순에게 건네주었던 생각이 났다.

“형오는 너무 잘 생기고 얼굴에 특징이 없어서……. 링컨 같은 얼굴은 그리기 쉽지만 알랭 드롱처럼 미끈하고 잘생긴 얼굴은 그

리기 어려워.”

‘내 얼굴을 제대로 그려내려고 얼마나 고심하며 애를 썼을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화실 벽에 걸어놓고.’…… 가슴이 찡했다.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나, 사사는 누구에게?”

“사사는 무슨—. 우리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은퇴하면서 미협 전시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어. 친구들과 축하하러 들린 것이 계기가 되었지.”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다니, 참 대단하다!”

“남편이 16년 동안 사우디에 가 있었는데 내가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죽겠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용기를 내었지. 이상하게도 신앙만으로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었어. 그림에 빠져들면서 차츰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나는 소파에 앉아 혜순의 고독이 꽃피운 그림들에 담긴 마음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실 것을 가져오겠다면서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일어서서 구석진 옆방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받침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수석도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잠시 후 혜순은 큰 쟁반에 딸기주스와 커피, 사과를 가득 담아왔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올라가서 차를 마시면 안 될까…….”

“괜찮아. 네가 그린 그림이 있는 이방이 더 좋아!”

혜순은 화첩 하나를 꺼내어 펼쳤다. 벽에 걸린 내 모습과 흡사한 데생이 여러 점 보였다. 혜순은 나를 가슴에 품고 살았고 나도 혜순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오늘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아내가 예쁘니까 나에게 대해서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가 봐?”

나는 혜순의 뜻밖의 말에 흠칫 놀랐다. 초등학교 때 태영이와 서로 사랑 고백을 대신해 주도록 계획을 짜던 일이 다시 생각났다.

“왜 궁금하지 않아. 살아온 얘기를 다 듣고 싶지만…….”

나는 혜순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고 싶었으나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남편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나는 우울증에 걸릴 때도 있었어.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은 견잡을 수 없어…….”

혜순은 손수건으로 눈꼬리의 눈물을 짖어내었다.

“……이제는 은퇴한 남편이 나보다 교회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고맙고, 아들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호텔의 부사장 겸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어. 남편은 오래도록 해외에 있었던 자책감 때문인지 지금은 내게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아.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다 외박하고 들어와도 오히려 내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았는지 묻는다고…….”

혜순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았다.

“이러다가 친구 집에 가기가 너무 늦겠는데.”

나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소파에서 일어섰다. 어느새 오후 4시가 지났다.

“지금은 구룡포까지 다녀오기가 너무 늦겠다. 오늘은 여기서 쉬고, 친구는 내일 만나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일하는 호텔은 전망도 일품인데—.”

“호텔이 어디에 있는데?”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좀 떨어진 두모동 해변이야. 호텔을 건립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바다를 마주하여 호미곶이 건너다보이고, 일찍 일어나면 일출이 기가 막혀!”

나는 전화로 친구와의 약속을 내일로 미루고 혜순이가 사랑하는 호텔에서 일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호텔까지는 20분 정도 걸렸다. 이곳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이 계획되었던 곳. 두모동과 호미곶을 연결하는 ‘영일만 대교’ 건설은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널리 홍보하여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었다. 나는 L.A 타임즈에서 그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다. 환경단체들은 경제성보다는 환경파괴를 내세워 심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총 길이 17.1km의 설계까지 완성했으나 그 후에는 차일피일 미루다 무산되고 말았다.

우리는 혜순의 아들이 특별히 준비한 7층 방으로 올라갔다. 호미곶을 비롯하여 영일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은 일품이었다. 분위기는 마치 아내와 신혼여행을 온 것 같았다. 서귀포 호텔의 첫날밤, 아내는 파도치는 바다의 정경에 푹 빠져 있었다. 나는 아내의 향긋한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왼쪽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무심코 뒤돌아보는 아내의 입술이 나의 입술과 마주치고 우리는 길게 첫 키스를 했다. 저녁 햇살을 빗겨 받은 해수면은 윤슬로 반짝이고 맞은편 호미곶은 팔을 뻗으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였다. 아름다운 석양은 우리를 바깥으로 불러내었다. 호텔 앞에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있고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보였다. 철석, 철석, 물보라를 날리는 하얀 파도를 바라보며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우리가 살던 마을은 뒷 송림이 참으로 좋았지!”

혜순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그러—ㄴ, 그대로 있었으면 경주 계림 숲 못지않을 거야. 산업 단지 건설에 고향마을을 빼앗긴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해수욕장은 또 얼마나 좋았나! 개발했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피서지가 될 수 있었었을 텐데.”

이때 혜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으—ㅇ, 알았다. 그래, 그래—.”

아들이 걸어온 전화였다.

“스카이라운지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웨이터가 두 사람을 창가의 자리로 안내했다. 바다에는 황혼의 햇살이 넘실거리고 하늘에는 솜털 구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잠시 후 아들이 올라와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넓은 이마에 엄마를 닮아서인지 미남이었다.

“내가 한 번씩 얘기했지. 옛날 고향 친구야.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가 지난달에 가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어.”

혜순이가 나를 아들에게 소개했다.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오시는 걸음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편히 모시겠습니다.”

상냥한 아들은 친절이 몸에 배어있었다.

“여기가 한때 영일만 대교를 건설하려고 했던 곳인가?”

창밖을 내다보며 혜순의 아들에게 물었다.

“처음에는 호미곶에서 이곳까지 대교를 건설하고 영덕까지 해변도로를 내는 계획이었지요. 아시겠지만 울산을 거쳐 구룡포·대보까지 해변 경치는 절경입니다. 아마 이탈리아의 소렌토 못지않은 경관이지요. 관광을 위한 설계까지 완성되었으나 경제성 논란이 재연되었고 게다가 환경단체들의 반대운동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에 우선권을 두면서 수정된 최종안이 확정되었으나 대통령 말기, 4대강 사업과 맞물리면서 계획은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일하는 선라이즈 호텔은 미래를 내다보고 서둘러 준공을 했으나 영일만 대교가 무산되는 바람에 기대했던 효과는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꿈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바닷가로 나와 달빛이 그려내는 잔물결을 바라보며 해변 길을 걸었다. 철석, 철석, 하얀 파도가 꿈적도 하지 않는 검은 바위를 자꾸 흔들어대고 있었다. ‘파도야 어찌란 말이냐. 너는 꿈적도 않는데……’ 유치환의 시가 생각났다. 하얗고 가름한 얼굴, 노래하는 빼드렁니! 형오는 그 사랑을 흔들여 보기는커녕 한마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강물처럼 세월만 흘러 보냈다. 철없던 시절 ‘대리 사랑 고백’은 생각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온다. 모랫길이 끝나는 데서부터는 바위 두덩 위로 구불구불 테크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지도, 팔짱을 끼지도 않고 나란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헤어지기 위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처럼 말이 없었다. 혜순은 또각또각, 발자국 소리를 내며 땅만 내려다보고 걸었

다. 만나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궁금하던 친구들의 소식도 들었다. 이따금 푸득, 푸드덕, 잠꼬대하던 새가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달빛을 받은 솔잎은 마치 햇빛을 받을 때처럼 반짝이며 미풍에 일렁이고 있었다. 동해안 해파랑 산책로는 끝없이 이어지고, 어디에라도 잠시 앉고 싶었는데, 마침 벤치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도 태영이와 연락을 하나?”

혜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니,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연락이 안 돼. 연락이 닿는 사람은 혜순이뿐이야.”

지난날 고향 사람들은 모두 내 기억 속에 잠자고 있었다.

“오래전이었지. 아마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을 거야. 태영이가 너와 함께 놀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혜순은 쿡쿡 웃으며 잠시 말을 끊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나는 태영이가 한 말이 몹시 궁금했다.

“형오가 나를 좋아한다 카더라고…….” 혜순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잖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때 너는 서울에서 살았고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직장을 찾아 고향을 떠났지. 태영이는 대구에서 중장비회사를 경영하는 삼촌을 따라갔고, 나만 그대로 고향에 남았잖아. 졸업 후 나는 조그만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일했어. 일 년에 한 번 갖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태영이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지. 언젠가 내게 네 결혼식 소식을 전해주었어…….”

“태영이는 우리 마을에서 둘도 없는 내 단짝이었으니까. 그런데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던 것 같아.”

나는 혜순의 말허리를 자르고 일일이 청첩장을 보낼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태영이는 그때 공기에 쫓기는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일하느라 네 결혼식에 못 간다면서 나에게 그 청첩장을 전해주었어. 대신 내가 참석했지.”

“뭐?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네 결혼식이 새문안 교회당에서 있었잖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 혼자 올라갔지. 네가 날 좋아한다(사랑한다)는 말이 나를 이끌어갔어. 올라갈 때 생각했지. 만약 네 신부가 나보다 못났으면 ‘증인이 있습니다!’ 소리치고 결혼을 파혼시키려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현장을 보고 싶었어. 신부가 입장할 때 뒷벽 쪽에 붙어서서 눈여겨보았는데 네 각시가 너무도 예쁜 미인이었어! 내 맘이 어땠는 줄 알아? 난 안심했어. 사랑하는 형오에게 나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미인을 아내로 안겨준다는 것이 마음 뿌듯했지! 나중에 들었지만 미모의 신부는 B 교대 수석 졸업자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으로 서울로 발령받았다고 하던데…….”

혜순은 나에게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혹 친구나 고향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내 소식을 일일이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연정戀情은 시멘트 바닥에서도 돌아나는 잡초의 생명력을 지닌 것인가? “사랑이란 나무 같은 것이기에 그것은 저절로 자라나고, 우리의 온 생명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폐허가 된 가슴 위에도 흔히 계속 푸르러지는 것이다.”¹⁾ 나는 ‘노틀담의 곰추’에서 라 에스메랄다와 카지모도의 사랑을 떠올렸다. 하얗고 가름한 얼굴에 노래하는 빠드렁니! 우리들의 사랑은 오늘까지 푸른 잎을 피우고 있었다.

“.....다행히 그때 축하객은 많았지만 고향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 혹 네 부모님의 눈에 떨까 조심했을 뿐, 특별한 일은 없었어. 결혼식을 마치기 전에 나는 교회당을 나와 경복궁 마당을 혼자서 걸으며 생각했어.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경복궁을 떠나 창덕궁에 기거하면서 한때는 임금이 살지 않았던 궁, 일제에 짓밟히기도 하며 피해와 복구가 거듭되었던 허허로운 사직! 인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참 세월이 빨라! 내가 여자 나이 회갑이라는 서른을 넘기자 부모님은 밤낮으로 시집가라고 성화를 했지.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결혼이 늦어졌어. 내가 좋다고 하면 연락이 오지 않고, 남자가 좋다고 하면 내 마음에 차지 않았어.

그때는 아마 형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 결혼 대상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다는 생각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자포자기와 같은 마음이었는지도 몰라. 마침내 어른들이 좋다고

1)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틀담』에서.

하면 무조건 ‘오케이’하리라 마음을 먹었지. 얼마 후 먼 친척 아주머니가 돈 많고 인물 좋다는 충고를 증대했어. 요즘 세상에 돈 많고 인물 좋으면 다지 뭐! 안 그래? 그런데 그 신랑감이 믿음이 좋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나는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셨다고 생각하고 맞선도 보기 전에 증매쟁이에게 오케이 사인을 냈어. 믿음이 있고, 인물이 좋고, 돈도 있다는데 무엇을 더 가리겠어. 그 아주머니도 신뢰할만한 분이었으니까 믿었지. 만나서는 신랑은 사우디 얘기를 많이 하고, 나는 교회 이야기를 주로 했었지. 정말 다른 것은 더 묻지 않았어. 혼처가 나왔을 때 많은 것을 물어보고 확인해보았으나 별수 없더라고…….”

혜순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달을 쳐다보았다. 바다 위에는 고기잡이배 집어등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기데 남자의 학력도 묻지 않았어. 나처럼 고졸이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결혼하고 보니 중졸 학벌이었어. 나보다 7살이나 많은 그는 일찍이 자동차 정비학원에 들어가 기술을 익히고, 사우디 파견 기술자로 선발되어 5년을 근무하다 결혼을 위해 일시 귀국했어. 그리고 다시 사우디로 가서 10년을 더 일했지. 2년에 한 번씩 다녀갔지만 난 결혼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고 살았어. 좋은 집 짓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별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지. 무언가 보람 있는 일, 성취감 있는 것을 생각하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그림이 나를 짓누르던 외로움과 슬픔에서 건

져주었다고 할까. 지금이라도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땅끝까지라도 도망가고 싶은 심정을 형오는 모를 거야…….”

혜순은 손수건을 꺼내어 두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큰 잘못을 저질은 어린아이처럼 내 어깨는 축 늘어졌다. 조금씩 일던 파도가 잔잔해지고 집어등 불빛만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까지 혜순은 추억을 캔버스에 그리며 살았다. 추억이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누가 빼앗지도 못하는 숨겨진 고향인가? 나는 혜순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호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나 추억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사르트르는 말했다. “자신의 육체뿐인 아주 고독한 사람은 추억을 간직할 수가 없다. 과거를 정돈해 놓기 위해서는 집을 한 채 가져야만 한다.”²⁾ 나는 어디에다 추억이 살아갈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로비에는 혜순의 아들이 그때까지 퇴근하지 않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프린트의 시곗바늘은 자정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쯤 내가 이쪽으로 올게. 좋은 꿈 꾸며 잘 자!”

혜순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아들은 머리 숙여 인사했다.

“그래, 어머니 잘 모셔라.”

혜순은 아들과 함께 로비를 빠져나갔다. 나는 어둠 속으로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게도 저런 듄직한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2) 사르트르의 『구토』에서.

신인상

〈 시 〉

유문경 | 나머지 길은 너를 위해 가려네 외 4편

신인상 심사평 | 박정선

나머지 길은 너를 위해 가려네 외 4편

유 문 경

나는 누구일까,
어디로 갔을까, 내 이름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도록
줄기차게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잃어버린 이름

어느 날 문득 생각나는 나
지금의 나는 내가 아는 유문경이 아니네
새처럼 날고 싶었던
꽃처럼 피고 싶었던 그 이름이 아니네
뒤돌아 걸어온 발자국을 살펴보네
발자국마다 흐르는 땀이 내 이름을 지워버렸네
내가 심은 나무들은 훗날 가지 뻗어 푸르는데
내가 심은 꽃들은 철 따라 방실방실 피어나는데
내 이름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



| 유문경 |

- 1954년 대구 출생
- 미국 키넬 대학교 기독교 상담학 박사
- 국제 키넬 제가 훈련원 교수
- (사) 한국장애인 자립연계 협회 이사

미안하다 이름아,
물처럼 흘러간 수많은 시간
나무 싶고 꽃 심느라 까맣게 잊어버린 너
너를 버려두어 미안하다
너를 잊어 미안하다

이제는 해 저문 석양길,
나머지 그 길은 너를 위해 살려네
이 세상 끝나고 저 높은 곳
영원한 보금자리 찾아 이사 갈 때까지
버려둔 이름 어여뻐 다듬고 싶네
지는 해 석양이
마지막 하늘을 찬란하게 물들이듯이
그래, 나머지 길은 너를 위해 가려네

가을을 보내며

어머니, 올해도 가을이 갑니다
처처에서 나뭇잎을 떨구며 갑니다.
하늘은 늘 제자리인데
나무는 해마다 이별을 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를 바람도
쓸쓸하여 나무를 맴돌고
하늘의 뭉게구름도
좁처럼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어머니, 올해도 가을이 가고
나는 또다시 나이를 먹어야 합니다
세월은 소리 소문도 없이 오고 가면서
내 얼굴에 내 머리에 마치 선물처럼
제 발자국을 남깁니다

어머니, 나를 스쳐 간 세월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세월은 도둑이라는 어머니의 푸념을
이제 나도 하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바람이 스칩니다

민들레

새봄 새 하늘이 열리자마자
민들레 피었네
눈 가득히 하늘빛이 넘치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랑과 평화가 피었네

세상을 밝히는 노란 등불을 켜고
길을 안내하네
어디로 가느냐고 나에게 묻네
조심조심 가라고 등불 비춰주네

새봄 새 하늘이 빛나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별들이 떴네
선한 얼굴로 당부하네
세상의 낮은 것들을 돌아보라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새봄 새 하늘 아래 사랑과 평화가 피었네

뜨거워라

길옆 잡초 한 포기
바람에 한들거린다

길 위의 돌맹이 하나
발길마다 요리조리 구르고 있다

이른 아침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툭, 나뭇잎 하나 떨어진다

허공의 뜬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새들의 날갯짓
허공이 찰랑댄다

뜨거워라
모두가 생명이다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도
뜨거워라
줄줄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 소리도 뜨거워라
너와 내가 흔들리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도
느닷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에
흠뻑 젖는 것도 생명이다.

뜨거워라,
모두가 생명이다

비 오는 소리

얼마나 그리웠길래
저리도
급하게 쏟아지는 걸까,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목이 쉬도록
누구를 부르길래
저리도
소리쳐 우는 걸까,

땅은 말이 없고
밤새도록 빗방울
땅을 치며 우는 소리

아, 그렇다
희망,
내일은 강물이 힘차게 흐르겠다
산천엔
풀들이 새파랗게 피어나겠다

여러 합창단을 이끌면서 또 작사 작곡을 하면서 음악 세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2023년 말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무언가 허전한 마음을 메우기 위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앉았다 하면 썼습니다. 버릇처럼 써졌습니다. 그게 시인지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내 마음을 베껴 냈습니다. 그저 그럴 뿐인데 행복했습니다. 시를 쓰는 것은 오로지 나 홀로의 세계에서 온전히 내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무언지 모르지만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 소망이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위에서 정식으로 시를 쓰라고 권한 것입니다. 등단을 하라며 재촉한 것입니다. 그 말에 용기를 냈지만 막상 등단을 하려고 하니 시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 믿고 감히 나섰습니다.

때마침 사월입니다. 생명의 노래가 세상을 울리고 있습니다. 개나리와 민들레는 샛노란 희망봉을 흔들며, 연분홍빛 벚꽃은 따뜻한 사랑을 노래하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시는 마음의 꽃이며 마음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쓰며 새로운 세계에서 또 다른 나를 찾아가고 싶은 소망입니다. 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그저 따라갈 것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뽑아주신 부산크리스천문학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생명과 사랑의 울림을 품은 트라이앵글

새로운 신인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반가운 일이다. 2025년 올해 상반기 신인상에 유문경 시인이 응모한 작품은 「나머지 길은 너를 위해 가려네」, 「가을을 보내며」, 「민들레」, 「뜨거워라」, 「비 오는 소리」 등 다섯 편이다.

유문경 시인은 70대의 고령에 시의 문을 열었다. 노년과 시는 잘 어울린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시적인 정서로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회고이며 그리움이며 고독일 수도 있다. 타자를 품어 안으려 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싶어지게 된다. 그것은 연륜이 가져다 준 포용에서 생성되는 여유이다. 따라서 유 시인은 연륜에 맞게 회고와 그리움의 서정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과 사랑에 대한 깊이를 보여준다.

시는 간단히 말해 발견과 묘사와 고백으로 짜인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다. 대상을 바라보는 직관에서 생성되는 발견은 어떤 이미지를 통해 독자에게 울림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란 어떤 모양으로든 울림이 있는 트라이앵글이 되어야 한다. 유문경 시인의 시는 독자에게 전달이 잘 되는 울림이 좋은 트라이앵글이다. “어머니, 올해도 가름이 가고/나는 또다시 나이를 먹어야 합니다”(「가을을 보내며」)라든지 “나는 누구일까,/어디로 갔을까, 내 이름/(...)/

줄기차게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잃어버린 이름”(『나머지 길은 너를 위해 가려네』)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이 화자를 통해 보여준 회고와 그리움은 인간과 시간의 관계를 함의한다.

인간은 결코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헤라클레이토스) 물은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다른 아닌 시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시간 그 자체가 존재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인간은 각자의 시간이 있을 뿐이며 유 시인의 시에는 인간과 시간의 속성이 응축되어 있다.

인간과 시간을 아는 그는 생명과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랑과 평화가 피었네 //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별들이 떴네”(『민들레』)라거나 “길옆 잡초 한 포기/ 바람에 흔들린다 /뜨거워라 /모두가 생명이다”(『뜨거워라』)에서 보여주듯이 작은 것에서 생명을 발견하며 사랑과 평화로 확장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생명은 작은 것에서 시작됨을 암시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 세계는 넓고 깊은가 하면 따뜻한 생명과 사랑의 울림을 품은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시업 또한 열심히 정진하여 세상의 가슴을 울리는 시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심사평 | 박정선(문학평론가)

부 록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5)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연혁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원 명단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5년 임원조직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부

부산크리스천문학 회원 주소록

2025년 회원 계시판 동정

편집후기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장

(1989~2025)

* 회장은 추대하며 임기는 2년

- 제 1 대 : 양왕용 (1989-1993) (시인, 부산대학교 교수 역임, 장로)
- 제 2 대 : 한영자 (1994-1995) (수필가, 문학박사, 권사)
- 제 3 대 : 정선기 (1996-1997) (시인, 부산일보 논설위원 역임, 장로)
- 제 4 대 : 김인환 (1998-1999) (시인, 복음신문 사장 역임)
- 제 5 대 : 남송우 (2000) (평론가, 부경대 교수)
- 제 6 대 : 허성욱 (2001-2002) (시조시인, 목사)
- 제 7 대 : 안유환 (2003-2004) (시인, 소설가, 목사)
- 제 8 대 : 류정희 (2005-2006) (시인, 권사)
- 제 9 대 : 하현식 (2007-2008) (시인, 평론가, 장로)
- 제10대 : 박정선 (2009-2010) (시인, 소설가, 평론가, 권사)
- 제11대 : 박춘덕 (2011~2012) (시인, 평론가, 고신대 명예교수)
- 제12대 : 공기화 (2013-2014) (수필가,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장로)
- 제13대 : 신 선 (2015-2016) (시인, 문학박사, 사모)
- 제14대 : 임중성 (2017-2018) (시인)
- 제15대 : 박춘덕 (2019-2020) (시인, 평론가, 고신대 명예교수)
- 제16대 : 김종현 (2021~2022) (시인, 음악가, 사진작가, 장로)
- 제17대 : 최귀례 (2022~2023) (시인)
- 제18대 : 송정우 (2024~현재) (시인, 장로)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연혁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창립취지와 활동 요지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학적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창립하였다. 본회는 재부 크리스천문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문학 장르는 시, 시조, 수필, 소설, 동시, 동화, 희곡, 평론 등 전 장르를 아우른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매년 연간집 『부산크리스천문학』을 발간하여 교회 및 학교와 각 도서관과 교도소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서함양과 지적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문학을 통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있다. 1992년 『소금의 나라』출판, 1993년 『빛의 나라』를 출판했다. 1994년부터 『부산크리스천문학』으로 제호를 바꾸어 출판하였다.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사 요지

1980년 장성만 목사, 심군식 목사, 하현식 장로 등이 중심이 되어 『부산기독교문인협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다.

1986년 8월 김홍규 목사, 허성욱 시인이 『어린양문학회』로 명명했다가 다시 『생명강문학』으로 개칭하다. 『열린 노래들』,

「눈으로 보는 소리」, 「침묵 속의 아가」 등의 문학지를 발간하다.

1989년 7월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민주교사협의회 모임 개최, 허성욱 시인과 박윤기 시인과 부산대학교 양왕용 교수가 회동하여 기독교문인협회에 대해 논의하다.

1989년 8월 심근식, 양왕용, 하현식, 박윤기가 가칭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를 발기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다.

1989년 9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소재 소정교회 교육관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 취지문 :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순수문학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회원자격은 기성문단에 데뷔한 문인과 기독교계통 문학지, 신문의 문학상 수상 또는 신인상을 받은 세례교인으로 한다.
- 임원 : 고문 심근식(용호제일교회 목사:고신총회교육위원회)
회장 양왕용(소정교회 장로:부산대교수)
부회장 하현식(석포교회 장로:브니엘고교 교사)
총무 허성욱(삼일교회 집사:성지공고)
서기 구모룡(소정교회 출석:부산대 사대)
- 임원보장 : 부회장 한영자(동래온천감리교회 권사:한가족의원)
감사 임춘남(사상제일침례교회 목사)

1989년 10월 16일 오후6시30분 온천동 소재 소정교회 교육관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의 모임을 갖고 회칙을 제정하고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와 별개의 단체임을 확인하다.

1990년 1월 8일 오후 6시 30분 조방 앞 석화그릴 5층에서 월례회를
개최하여 문집 발간에 대해 논의했다. 백성규, 김흥규를 회
원으로 영입하다.

1990년 3월 6일 오후 6시 30분 문현동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
를 개최하여 문집발간, 교회복음신문 독자문예란 심사, 월
례회 시 작품 평가회와 문제작 토론회를 갖기로 하고 4월 30
일 회칙수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다.

1990년 4월 30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임시총회로 모여 회계를 두
기로 하였고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문학과 지성사)에 대해 양
왕용의 주제 발표 후 토론 시간을 가지다

1990년 5월 28일 오후 6시 30분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를 열
고 월례회를 홀수 달 마지막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교회복
음신문사에서 열기로 하고, 작품집 발간, 해변기독교문학교
실운영에 대해 논의하다.

1990년 7월 19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7월 월례회로 모여 해변문학
교실 점검하다

1990년 7월 30일-8월 1일 2박 3일간 강서구 천가동 소양보육원에서
해변기독교문학교실을 열다.

- 내용 : 이방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화만이 문화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독교문화를 꽃 피우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문화 인구의 저변 확대와 기독교문
화 작가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하다.

· 참가자 : 심군식, 양왕용, 하현식, 한영자, 구모룡, 김인환, 김홍규, 남송우, 박윤기, 박춘덕, 백성호, 임춘남, 허성욱 등이 강사로 활동했다. 남송우 교수가 『한국기독교 문학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후 시, 소설, 수필, 동화, 콩트, 시조 등의 강의로 이어졌다. 25명의 독자 참가자들에게 각각 저서를 모아 10권씩 나누어 준다.

백일장을 개최하여 3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시-최미경(섬), 정은숙(가덕도), 산문-이태숙(가덕도, 나사리와 가덕도의 만남), 교회복음신문사에서 타올 100장, 본회에서 볼펜 100개를 기념품으로 나누어준다.

1990년 9월 24일 오후 6시 30분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를 열고 최장길, 김동재를 회원으로 영입했다. 정대훈, 안유환, 김석규를 영입하기로 했다. 작품집은 다음해 봄에 출판하기로 결의했다.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문학과 기독교의 만남』 행사를 열기로 하다.

1990년 10월 22일 오후 7시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그 동안 사업을 보고하고, 재정과 해변문학교실 결산을 보고하다.

1990년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7시 삼일교회 소예배실에서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어린양문학회와 해변문학회가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 기념 문학의 밤> 행사를 열다.

1991년 1월 28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1월 월례회로 모여 작품집 원고 모집의 일과 91년도 해변문학교실에 대해 논의하다.

1991년 4월 1일, 29일 교회복음신문사에 모여 해변문학과 작품집

과 회원명부를 정리하고 신입회원을 인준하다.

이금옥, 최장길: 부산아동문학 작가상 수상.

심군식: 주일학교 교육론 출간하다.

1991년 5월 27일 교회복음신문사에 모여 작품집 발간을 위한 재정
충당 방법, 제2회 해변기독교문학교실에 관해 논의하다.

참석자: 정선기, 구모룡, 송길원, 이금옥, 한영자, 최장길,
김동재, 이영애, 김인환, 허성욱

1991년 7월 29일 월례회를 열고 작품집 원고를 8월 말로 마감하
기로 하고 제2회 해변문학교실 강사와 준비위원을 선정하고
11월 2일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크리스천주부백일장’을 열
기로 하다.

1991년 9월 30일 교회복음신문사에 모여 작품집에 사진, 프로필을
심기로 하다. 임춘남 『절반의 기독교』, 백성호 『성지여행기
거룩한 발자취를 찾아서』를 출간하다.

1991년 10월 기독여성백일장(부산기독문화회와 공동 주최) 개최하다.

장소: 유엔모지

1991년 11월 4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작품집 교정하다.

1992년 1월 10일 첫 작품집 『소금의 나라』 발간하다

1992년 2월 15일 오후 4시 20분 해운대 크리스탈 비치오피스텔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고문 심군식, 회장 양왕용, 부회장
정선기, 한영자, 총무 허성욱, 서기 구모룡, 회계 이영애, 감사
임춘남을 각각 선임하다.

1992년 3월 9일 교회복음신문사에서 월례회를 열고 작품집 배부를
하고 제2집 준비와 <제3회 해변문학교실>, <주부백일장>.

- <추수감사절 기념 문학의 밤>, 초량에 있는 <기독교문화센터>에서 월례회를 하기로 하다. 문학 강좌 개최 등을 논의하다. 5월부터 월례회를 기독교문화센터에서 열기로 결의하다.
- 1992년 4월 20일 정선기 회원 시집(경부선 그리고 호남선) 출판기념회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다.
- 1992년 5월 18일 초량동 소재 기독교문화센터에서 5월 월례회, 작품집 발간, 제3호, 해변기독교문학교실에 관해 논의하다.
- 1992년 7월 14일 초량동 소재 기독교문화센터에서 7월 월례회, 작품집 발간 제3회 해변기독교문학교실에 관해 논의, 첫 작품집 발간비 문제로 힘들었던 일을 논의하다.
- 1992년 9월 9일 월례회를 개최하다.
- 1992년 10월 기독교여성백일장(부산문화회관)을 개최하다.
- 1992년 11월 16일 오후 6시 30분 초량동 광장호텔 2층에서 월례회를 열고 송길원의 <기독교 가정사역의 중요성> 특강을 들었다. 문협회보 <크리스천문학>계간 20페이지 분량을 발간하기로 하다.
- (편집실무/김동재, 이영재, 류정희, 김정후)창간호 발간비 교회복음신문사가 지원, 제2호, 박영희 장로 지원키로 하다.
- 1993년 12월 15일 두번째 작품집 『빛의 나라』 발간하다.
- 1993년 12월 16일 부산기독교문화회와 공동으로 제5회 기독교문화축제를 개최, 이상규 교수(고신대, 교회사학자)의 ‘부산 - 부산 기독교문화’ 주제의 강의를 듣고 토론회를 가진 후 93부산기독인 수상집(제5집) 『또 하나의 작은 결실』 부산크리스천문학가협회 작품집 『빛의 나라』 출판기념회를 가지다.

1994년 1월 27일 정기총회(2대회장/한영자선출) 부산일보사 10층에서 개최하다.

1994년 4월 1일 크리스천문학 세미나를 영광도서에서 개최하다.

1994년 6월 27일 크리스천문학 세미나를 부일소강당에서 개최하다.

1994년 8월15일(월)-16일(화) 송정해수욕장 동성리서치타운(동성유스호스텔)에서 ‘문학에 비친 속죄와 구원’이란 주제로 “94해변문학교실”(대회장 : 한영자 회장)개최하다. 이창목사(시인, 남부순복음교회 담임)의 인도로 개회 예배드리다. 박춘덕 교수의 <속죄양의 시>, 남승우 교수의 <현대문명의 위기와 구원의 탐색> 제목의 주제 특강, 양왕용 교수의 <한국현대문학사에 나타난 기독교문인>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 임춘남, 한영자, 이창희, 허성욱의 <나의창작 이론과 실제> 강의와 회원들의 자작시 낭송이 있었고, 독자와의 대화 시간, 신인 발굴을 위한 해변 백일장을 가지다.

1994년 10년 13일 책 모아서 보내기 프로젝트 시행으로 벨엘요양원으로 책을 보내다.

1994년 12년 29일 연산동 뉴그랜드 한식뷔페에서 크리스천문학 제3호(1994.12.20.발행) 출판기념회를 가지다.

1995년 2월 18일 모아호텔에서 199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직을 개편하다.

- 1부 예배: 사회/ 한영자 회장, 기도/ 양왕용 고문, 설교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매일 기도하라”(마6:10) 이창희 목사
- 조직개편 : 회장/한영자, 부회장/ 조남순, 정선기, 허성욱, 감사/ 임춘남, 박춘덕, 총무/ 이창희, 부총무/ 하란사, 서기/류

정희, 부서기/유신자, 회계/이영애, 부회계/남현자,
 이사:시분과/김인환, 배상호, 이창, 이채곤, 임종성
 수필분과/박영희, 아동문학분과/최장길
 소설분과/임춘남, 시조분과/박정선, 평론분과/남송우

- 1995년도 사업계획 : 크리스천문학 세미나 2회(춘,추), 해변문학교실 1회(8월중), ‘95크리스천문학지 발간(11월중), 출판기념회 및 송년의 밤(12월중), 시화전, 정기모임(3개월에 1회) 및 임원회(비정기적)

1995년 8월 15일(화)-16일(수) 송정해수욕장 동성리서치타운(동성유스호스텔)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미래문학’이란 주제로 “95해변문학교실”(대회장: 한영자 회장) 개최하다.

- 15일, 해수욕장 송림에서 오전11시에 해변문학 백일장을 가지고, 오후에 박남훈 교수(문학평론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말의식”, 양왕용 교수(시인)의 “시와 신앙-김현승의 경우”, 박춘덕 교수(문학평론가)의 “예언자적 낙관주의 박두진”을 주제로 특강을 가진 후 심야(23시)에 남송우 교수(문학평론가) 인도로 총편 및 독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다. 16일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다.

발제자: 한영자, 이창희

1996년 1월 29일(월) 서면 엔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선기 시인을 제3대 회장으로 선출하다.

고문: 심군식, 양왕용, 한영자

부회장: 이창희, 조남순, 허성욱, 사무국장: 하승무

사무차장: 손영희, 분과위원장: 임종성, 박정선, 임춘남,

남송우, 박영희, 최장길, 하창길

서기 : 이영애, 회계 : 류정희, 간사 : 남현자

감사 : 박춘덕, 백성호

1996년. 6월 10일(월)-12일(수) 부산일보사 1층 전시실과 10층 소강당에서 “시인 예수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크리스천문학 축제>를 개최하다.

- 취지와 목적 : 문학의 해를 기념하여 기독교 문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다.
- 전시 참가 작가 : 권수연, 김인환, 김정미, 김정후, 남현자, 류정희, 박춘덕, 백정자, 손영희, 송유미, 신선, 심군식, 양왕용, 이창희, 임유영, 임종성, 임춘남, 정선기, 조남순, 최장길, 하승무, 한영자, 허성욱
- 공연 : 6월10일 오후7시에 정선기 회장의 개회 인사로 시작, 동시 행위전, 연주회, 중창, 시낭송, 수필낭송, 구연동화, 독창, 드라마, 연합찬양 등이 진행되었고 아동문학가 심군식 목사의 축도로 폐회하다.

1997년 1월 28일(화) 서면 엔젤 호텔에서 97정기총회를 열고 문학기행, 해변문학축제, 연간집 발간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다.

1997년 8월15일-16일 송정해수욕장 동성 유스호스텔에서 “자연, 환경, 생태 그리고 기독교문화”란 주제로 해변문학교실을 개최하다. 남송우 교수의 발제 강연 : “생태계 파괴와 생명 의식의 형상화”, 최원철 교수 : “생명, 그 기독교적 접근”, 박춘덕 교수의 “박두진 시에 나타난 자연관과 기독교” 등의 일반 특강이 있었다. 한영자 수필가의 “수필에 나타난 자

연”, 허성욱 시조시인의 “시조에 나타난 자연”, 최장길 아동 문학가의 “아동문학에 나타난 자연”, 임춘남 소설가의 “소설에 나타난 자연”이란 창작 이론 강의와 문인 및 독자의 작품 낭송 등을 개최하다.

2001년 8월 6일(월) - 7일(화) 거제 유스호스텔에서 해변문학교실을 개최하다.

- 주제특강: 『생태학적 세계관과 생명문학』 남송우 교수, 『독도의 역사적 의미』 박정선 시인.
- 남송우 회장의 사의표명(캐나다 교환교수)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허성욱 시조시인을 6대 회장으로 선출하다.

2002년 1월 29일 서면 영광도서 앞 골드라인(한미은행 20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2002. 8. 5.(월)-6(화)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한국크리스천 문학가협회와 공동주최로 2002년도 여름문학세미나를 개최하다. 주제: “멀티미디어 시대와 기독교문학”

- (주제발표: 허성욱 시조 시인, 오인문 소설가). 부산대학교 박재운 총장 만찬/기념사가 있었고, 작품상 시상식, 작품 낭송, “나의 작품 나의 인생”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 한국크리스천문학 회원들과 함께 송정 관광 시간을 가지다.

2003년 2월 3일 대연동 채식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안유환 시인을 7대 회장으로 선출하다. 부회장: 류정희, 이영애, 류일렬 사무국장: 박정선 회계: 남현자 간사: 손영희, 김정미, 신선, 조금순

2003년 4월 25일 서면 영광도서 문화사랑방(4층)에서 『크리스천문

학』 제11집 출판기념회를 갖다.

2003년 5월 13일 부산시청 동백홀(26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 제11집 합평회 및 2003 해변문학교실 개최를 논의하다.

2003년 6월 9일 오후 6:30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월례회를 갖고 금년 해변문학교실을 거제도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주제는 ‘바다’로 결의하다.

2003년 8월 4일 - 5일 거제 문화관광농원에서 『바다, 그 실존과 허무를 넘어』 주제로 해변문학교실을 개최하다.

- 주요순서 : 1) 주제강의= 정선기 시인.
- 2) 캐나다 이야기= 남송우 교수.
- 3)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의 발전을 위한 모색= 조별토의.
- 박춘덕 교수(고신대)= 미 남가주대학 교환 교수를 마치고 귀국.
- 전기웅 교수(부산대)= 『부산시인』 편집주간으로 취임하다.

2004년 4월 22일 연산로터리 해암뷔페에서 『부산크리스천 문학』 제12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다. 1부 예배(박용주 목사 인도)에 이어 시낭송= 류정희, 최원철, 서평= 구모룡 교수(해양대학교), 축사= 강인수 부산문인협회장 격려사= 임수생 부산시인협회장, 축가= 사직동교회 중창단 순으로 이어지다.

2004년 10월 25~26일(1박2일) 가을문학기행을 실시하다
코스=악양 평사리 - 화개장터 - 지리산온천(숙박) - 선암사 - 낙안읍성 - 보성차밭 - 강진등

2006년 12월 서면 롯데 백화점 9층 한정식 <가원>에서 총회를 열고 박정선을 제9대 회장 선임하다.

2007년 1월 14일 박정선 신임회장이 개인사정으로 사의를 표명, 6개월간 회장 공석.

2007년 9월 20일 부전동 적십자회관 옆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하현식 장로를 회장으로 추대하다.

2007년 12월 27일 크리스천문학 제15집 출판기념회 및 문학강연을 개최하다. 강사: 한영자 박사(일제강점기 한국기독교 詩 연구)

2008년 1월 15일 서면 베아트리카에서 월례회 개최하다.

- 특강: 하현식 문학강좌(표현과 의미)
- 신입회원: 김부상(소설), 김정자(시조), 월례회는 격월제로 넷째 화요일마다 열기로 하다. 문학강좌는 계속하기로 하다.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제정하기로 하다. 해변문학교실 부활. 문학기행하기로 하다.

2008년 4월 9일 문학기행. 장소: 밀양 베테스다 복지센터

2008년 8월 21일~22일 해변문학교실개최, 문학지망생 13명 참가 / 거제 둔덕 유치환 생가 청마기념관, 청마묘소, 패왕성, 산방산, 방하교회, 거제수목원 방문

2008년 12월 2일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부설 문예대학 개강식을 하다.

- 학장: 양왕용 박사, 학감: 김종화, 교무처장: 김종현, 교무부처장: 양운형
- 책임교수: 하현식, 양왕용, 임종성, 남송우
- 특강교수: 박춘덕 시인, 허성욱 시조시인, 박시교 시조시인, 강은교 시인, 박정선 소설가, 김하기 소설가, 정목일 수필가, 김시백 시조시인, 권대근 수필가

- 2008년 12월 총회를 열고 박정선을 제10대 회장으로 추대하다.
- 2009년 6월 문학기행 경남 사천시 박재삼 문학관 기행, 하동 이병주 문학관 기행을 하다.
- 2009년 8월 하계세미나 및 문학기행(경북 칠곡 구상 문학관, 다부동전투지, 안동 이육사 문학관, 도산서원 답사)을 하다.
- 2009년 8월 크리스천 한여름 백일장 개최(경성대학교 신학대학)하다.
- 2010년 봄 문학기행 박경리 토지문학관 및 홍쌍리 매실농원을 기행하다.
- 2010년 8월 크리스천 한여름 백일장 개최(모두모두 농원)하다.
- 2010년 10월 제2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하여 장원 명인숙(수필) 수상하다.
- 2010년 12월 총회를 열고 박춘덕 시인을 제11대 회장으로 추대하다.
- 2011년 4월 거제도 일원 문학기행을 하다.
- 2011년 10월 제3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백일장 개최하여(부경대학교) 장원 권갑숙(수필) 수상하다.
- 2011년 12월 총회 겸 부산크리스천문학 19집 출판기념회를 하다.
- 2012년 4월 봄 문학기행, 경주 동리목월문학관, 대구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 대구제일교회, 계산 성당, 영천 자천교회 방문하다.
- 2012년 10월 13일 제4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부경대학교)하여 장원 권영숙(시) 수상하다.
- 2012년 12월 20일 총회 및 부산크리스천문학 20집 출판기념회,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시와 음악의 밤(대청동 프라미스랜드) 공기화 수필가를 제12대 회장으로 추대하다.

- 2013년 5월 4일~24일 『가족과 함께 시의 세계로』 가정의 달 시화전 개최(해운대 동백섬)
- 2013년 10월 9일 제5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부경대학교), 장원 임지연(산문) 수상하다.
- 2013년 12월 7일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시 낭송회를 남포동 <까페 브릿지> 2호점에서 개최하다.
- 2014년 10월 3일 제6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백일장 개최(부경대학교)하여 장원 안정숙(수필) 수상하다.
- 2015년 8월 17일~18일 여름문학세미나 밀양소명수련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제목으로 개최하다.(참석:14명)
- 2015년 12월 14일 총회 및 문학의 밤 부전교회 부전카페에서 신선 제13대 회장 추대하다.
- 2016년 4월 29일 통영 문학기행(청마 유치환 생가, 박경리문학관, 김춘수 생가, 이순신공원 등)을 하다.
- 2016년 6월 17일 해암뷔페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 25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다.
- 2016년 8월 26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2016년 하계 문학 세미나 개최하다. 주제 : 김현승의 시세계 발표자:박정선(교문)
- 2016년 12월 13일 해암뷔페에서 부산크리스천문학 26회 출판기념회 및 총회 개최하다. 제14대 임종성 회장 추대하다.
- 2017년 4월 21일 소록도외 순천만 문학기행하다,
- 2017년 6월 30일 상반기 출판기념회(서면아이온뷔페)를 하다.
- 2017년 8월 18일 하기 문학세미나 주제 ‘1919년과 대한민국 그리고 문학’을 개최하다.(장소:해운대문화회관)

- 2017년 8월 18일 신입사무국장으로 김종현 임명하다.
- 2017년 12월 23일 부산크리스천문학 28호 출판기념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신인상:최방식(수필)
제1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으로 양왕용 수상하다.
- 2018년 4월 16일 월례회 개최하여 임종성 회장 병가로 인해 최귀례 회장대행 선임하다.(장소:서면 남대문)
- 2018년 7월 19일 부산크리스천문학 29호 출판기념회(장소:서면 남대문 식당)를 하다.
- 2018년 8월 16일~17일 지리산 청학펜션에서 문학수양회 개최하다.
- 2018년 8월 21일 임종성 회장 소천하다.
- 2018년 12월 26일 부산크리스천문학 30호 출판기념회 및 정기총회를 하다.(장소:대연교회)제15대 박춘덕회장 추대하다.
- 2019년 2월 제 2회 부산 크리스천 문학상 시상식(수상자:안유환) 및 월례회(장소:부전교회)를 개최하다.
- 2019년 6월 24일 봄 문학기행(안동일원)을 실시하다.
- 2019년 6월 27일 부산크리스천문학 31호 출판기념회(장소:부전교회)를 개최하다.
- 2019년 12월 19일 부산크리스천문학 32호 출판 기념회 및 제3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시상식(수상자:박정선, 수상작:유산) 개최하다. (장소:부전교회)
- 2020년 6월 25일 부산 크리스천문학 33호 출판기념회 및 월례회 (장소:해암뷔페) 신인상: 최유미, 이승훈(시)
- 2021년 1월 29일 부산 크리스천문학 34호 출판기념회 및 정기총회 개최하다. 제4회 부산 크리스천문학상 시상식(수상자:신선)

과 신인상 손정란, 이귀미(시), 김숙희(수필) 수상하다.

제16대 김종현 회장 추대하다 (장소: 해운대 천지연)

2021년 12월 허성욱 제5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수상하다.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 영광도서 9층 무궁화홀 35명 참석

2022년 2월 김종현 회장 소천하다.

2022년 2월 최귀례 회장 취임하다. (17대)

2022년 3월 3일 임원회의 오전 11시 남천동 성산교회 회장 외 5명
참석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11시 물운대 걷기대회 회장 외 12명 참석

2022년 4월 14일 12시 월례회 남천동 성산교회

2022년 5월 3일 오전 11시 30분 해운대 장지년 식당

1차 편집회의 양유희 편집장 외 6명

2022년 6월 9일 솔내음에서 상반기 37회 출판기념식을 가지다.

기도 안유환 목사님

2022년 7월 2일 토요일 부크문 임원회의

2022년 8월 25일 월례회 남천동 성산교회 소회의실 회장 외 12명
참석

2022년 10월 25일 회동수원지 가을걷기대회를 가지다.

2022년 11월 임원회의

2022년 12월 27일 오후 5시 서면 솔내음 3층

제38호 정기총회 및 38호 출판기념회 서면 솔내음

기도 안유환 목사님

*유정희 고문 문학상 시상

*최방식 사무국장 사임

- 2023년 1월 26일 부크문 임원 및 이사회를 개최 임원 및 이사회
 시간: 2023. 1. 26. 목요일 12시
 장소: 식사 한우 참사랑 식육식당
 회의: 산성교회 *공석 중인 사무국장을 감윤옥 선생님 임명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식 개정에 대해 자유토론, 문학과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 2023년 2월 월례회 및 편집위원 회의 출간 책 소개
- 2023년 3월 봄 문학기행 성지곡 수원지 및 재능기부 나눔
- 2023년 4월 월례회 출간 책 소개 및 은혜 나눔
- 2023년 6월 29일 월례회 및 출판기념회
- 2023년 7월 1일 제2회 부크문 시화전 개막식. 시화 45점 전시
 기도: 윤춘식 목사
 축사: 부산극동방송 성영호 목사
 고신대명예교수 이상규 목사
- 2023년 7월 27일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개정안 통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1차 편집위원회 회의
- 2023년 11월 9일 성지곡 가을기행
- 2023년 11월 16일 1차 편집회의
- 2023년 12월 하반기 출판기념회(40호)
- 2024년 1월 26일 임원회의
- 2024년 2월 5일 일원 및 고문단 회의
- 2024년 2월 22일 임시총회
 • 감사선출: 권갑숙, 명인숙
 • 2024년 사업계획 승인건

- 2024년 예산 승인건
- 재정확충 방안 토의
- 문학 기행 등 행사 토비

2024년 3월 18일 이사회

- 신입회원 인준: 구애순, 이둘자
- 문학 세미나 등 토의

2024년 4월 22일 월례회

- 문학 기행 안내 및 부크문 발전방안 토의

2024년 5월 25일 문학기행

- 전남 담양 가시문학관 등
- 문학의 발자취를 답사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

2024년 6월 20일 출판기념회 (부크문 제41호)

- 기념식 및 신입 회원 소개 등

2024년 7월 11일 문학세미나

-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강당
- 근대 부산문학예술에 영향을 끼친 선각자와 작가의 시대적 역할.

2024년 8월 3일 부크분 시화전 개막식

- 동백섬 (8월 3일~8월 31일 전시)
- ‘바다 사람에게 놀들다’ 주제로 개막식 및 축하 행사

2024년 9월 30일 부크문 임원 및 이사회

- 부산크리스천문협 현판식
- 신입회원 인준건: 이기연, 김은희, 조의홍, 박상복
- 3/4분기 행사안 토의

2024년 10월 24일 월례회

- 부크분 42호 책값 분담건
- 부크분 재정 확충 및 발전 방안 토의

2024년 12월 12일 임원회의

- 부크분 42호 출판기념회, 문학상시상식, 송년회 준비

2024년 12월 26일 출판기념회 및 문학상시상식, 송년회

- 영광도서 8층홀
- 부크분 문학상(최귀례 고문)

2025년 1월 15일 임원회의

- 연간계획수립
- 2024년 결산보고
- 2025년 예산 계획

2025년 1월 23일 정기총회

- 장소: 태진한우
- 신입회원: 정선자, 이준우

2025년 2월 17일 임원 및 고문단회의

- 부크분 발전방안논의
- 25년 행사협의

2025년 3월 20일 월례회

- 장소: 태진한우
- 신입회원: 조광순, 김숙자

2025년 4월 26일

- 대구기독교문인회 문학 강연회 임원진 참석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역대 회원 명단

1989년 9월 4일 창립

1989년 : 심군식, 양왕용, 허성욱, 하현식, 임종성, 한영자, 정선기,
김인환, 박춘덕 외

1992년 : 구모룡, 김동재, 김세윤, 김인환, 김향숙, 김홍규, 남송우,
박남훈, 박윤기, 박인과, 박춘덕, 백성호, 송길원, 송유미,
심군식, 안유환, 양왕용, 이금옥, 이영애, 이창, 이창희,
이채곤, 임춘남, 정대훈, 정선기, 조남순, 주태균, 최장길,
하현식, 한영자, 허성욱, 류정희

1993년 : 김정미, 김정후, 박영희, 박재수, 박정선, 배상호, 손영희,
신 선, 유신자, 한정옥, 최훈조

1994년 : 권수현, 남현자, 이채곤, 하난사

1995년 : 김명옥, 박훈덕, 백성호, 백정자, 오학렬, 이종태, 하승무

1996년 : 김상희, 조금순, 정수자, 하창길, 허성수

1997년 : 김 훈, 박희두, 엄명자

1998년 : 김귀숙, 김지경, 유일열, 이창태, 주정하, 최상룡, 최원철

1999년 : 전수연, 김복남, 박선희, 배혜숙, 손미희, 원무현,

조영욱(경남 창원)

2000년 : 서정열, 최홍식

2001년 : 공기화, 김달현

2002년 : 서종미, 신정자, 안중덕, 이견숙, 이민화, 이은화, 전기웅,

김홍식, 나연숙(서울), 권신애(김천), 곽철근(경기 용인), 이광주,

- 이미숙(충남 아산) (타 지역 회원은 지상 백일장을 통하여 가입, 이하 동일)
- 2003년 : 김만웅, 이은주, 지왕근(충남 공주), 서창수, 하선옥(서울),
김정겸, 김옥기(경남 사천), 이한숙, 박용주, 최경희
- 2004년 : 김은주(대구), 남순, 민형기
- 2005년 : 전상순(충남 영동), 최귀례
- 2006년 : 김금아, 김종화, 나동광, 이옥진, 조범산, 조병옥, 한창옥,
양윤형
- 2008년 : 김부상, 김종현, 진왕현
- 2009년 : 고혜은, 김대식, 김은우, 유병기, 이효준, 최기택(재가입)
- 2010년 : 강연조, 명인숙, 모정희, 박영, 오영애, 이석문, 박경영,
정천수, 최정인, 감윤옥
- 2011년 : 박삼철, 오병상, 장문, 최명, 권갑숙
- 2012년 : 원문선, 권영숙
- 2013년 : 김해룡, 박영곤, 백성기, 정재출
- 2014년 : 강신구, 김민주, 임지연, 진용호, 최경숙
- 2015년 : 안정숙, 이재경, 임규택, 윤춘식, 황은
- 2016년 : 광병길, 강위석, 김수자, 김형석, 변도우, 정연원
- 2017년 : 김혜영, 성윤자, 송정우, 정영체, 최만공, 최방식
- 2018년 : 이선화, 조현숙
- 2019년 : 임병주, 윤평원
- 2020년 : 이귀선, 이승훈, 최유미, 전섭태
- 2021년 : 김숙희, 이귀미, 이영숙, 손정란, 김경희, 유병기(재가입)
- 2022년(신입회원) 신현숙, 이옥순, 정명진
- 2023년(신입회원) 오윤형, 정현옥, 남순(재가입)
- 2024년(신입회원) 구애순, 이가연, 이둘자, 김은희, 조의홍, 김진기,

박상복, 김복단

2024년(현재회원) 감윤옥, 강신구, 강연조, 강위석, 공기화, 광병길,
권갑숙, 권영숙, 김경희, 김금아, 김민주, 김복임, 김숙희,
김인환, 김정자, 김정후, 김해용, 김혜영, 김형석, 노장현,
류정희, 명인숙, 모정희, 박경영, 박정선, 박춘덕, 박희두,
배상호, 배혜숙, 백성기, 변도우, 성윤자, 손정란, 송순임,
송정우, 신 선, 신정자, 안유환, 양왕용, 양윤희, 원문선,
유병기, 윤춘식, 윤희원, 윤현수, 이귀미, 이귀선, 이선화,
이수일, 이승훈, 이영숙, 이옥순, 이용수, 임병주, 이창희,
전섭태, 전진경, 정말숙, 정연원, 조현숙, 최경희, 최귀례,
최만공, 최방식, 최유미, 최훈조, 한인환, 허성욱

2025년(신입회원) 정신자, 이준우, 조광순, 김숙자, 유문경

2025년(현재회원) 감윤옥, 강신구, 강연조, 강위석, 공기화, 광병길,
구애순, 권갑숙, 권영숙, 김경희, 김금아, 김민주, 김복단,
김복임, 김숙희, 김은희, 김인환, 김정자, 김정후, 김지수,
김진기, 김해용, 김혜영, 김형석, 남 순, 노장현, 류정희,
명인숙, 모정희, 박경영, 박상복, 박인자, 박정선, 박춘덕,
박희두, 배상호, 배혜숙, 백성기, 변도우, 성윤자, 손정란,
송순임, 송정우, 신 선, 신정자, 안유환, 양왕용, 양윤희,
오윤희, 원문선, 유병기, 윤춘식, 윤희원, 윤현수, 이가연,
이경옥, 이귀미, 이귀선, 이둘자, 이선화, 이수일, 이승훈,
이영숙, 이옥순, 이준우, 이창희, 이효정, 임병주, 전섭태,
전진경, 정말숙, 정명진, 정연원, 정현옥, 조의홍, 조현숙,
최귀례, 최만공, 최방식, 최훈조, 한인환, 허성욱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라 한다.

(영문명 : The Busan Christian Writers Association)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학창작 의욕을 고취하며, 기독교문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부산크리스천문학 발행
2. 백일장 개최 및 신인상 공모
3. 문학 강좌와 세미나 개최
4.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시상
5. 월례회 및 각종 모임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건전한 개신교 교단의 기독교인으로서 기성 문단에 등단한 자, 잡지와 신문에 등단한 자, 작품집을

발행한 자, 본회의 신인상에 수상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문학인을 회원으로 한다. 단 신규로 입회하는 회원은 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며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각종 행사 참여 및 각종 수혜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회 회칙, 제 규정 및 결의 사항 등을 준수한다.
2. 본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각종 회비 납입 및 공동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및 활동 정지) 아래와 같은 사람은 본회의 회원 제명 및 활동 정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1. 본인이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2. 2년 이상 연락이 불명일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때
4. 본회의 명예를 실추했을 때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수석부회장 1인 외 4명
3. 사무국장, 차장 : 각 1인
4. 재무국장, 차장 : 각 1인
5. 서기 : 1인

6. 감사: 2인

7. 이사: 20명 이내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등단 7년 이상, 본회 입회 5년 이상인 자로 고문단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연석회의 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회장의 지시하에 본회의 회무 일체를 집행한다.
4. 재무국장 : 본회 제반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5. 서기 : 본회 행정 업무와 기록, 문서 보관을 수행한다.
6. 감사 : 본회의 회기 중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 차장, 재무국, 차장, 서기로 구성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 : 연 1회,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이사회의 결의나 임원회의 요청,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인준
3. 사업 계획안, 각종 연말 보고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임시총회의 소집 안건
5. 기타 회장이 제의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하고, 회칙 개정, 명칭 변경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타 안건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구성) 본회의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 소집)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 임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 논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의 예비 심의
4. 회원의 제명 및 활동 정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안 결산 및 차기 예산안 심의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계된 사항

제20조(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임원 및 고문단 연석회의

제21조(고문단)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고문단을 구성한다.

제22조(연석회의) 본회는 제반 계획과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 임원 및 고문단 연석회의를 가진다.

제23조(회의) 본 연석회의는 임원회 및 이사회에 부의한 안건들을 자문한다.

제7장 위원회

제24조(위원회) 본회는 필요시에 편집위원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심사위원회 등 위원회를 둔다.

제25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둔다.

제8장 재정 및 경조사

제2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수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신입회원의 입회비

3. 보조금
4. 찬조금, 후원금
5. 특별회비
6. 기타

제28조(회계감사) 본회의 재정은 연 1회 정기 회계감사를 받으며, 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원 경조사

- (1) 회원 본인의 경조사(결혼, 사망)-10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환으로 한다.
- (2) 회원 본인의 입원(2주 이상)시는 5만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꽃다발로 한다.
- (3) 회원 문학상 수상, 출판기념회 등에는 5만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꽃다발을 보내되 연1회로 한다.
- (4) 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의 경조사(결혼 또는 사망)시는 10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환으로 한다.

제9장 각종 위원회

제30조 문학상 심사위원회

1. (문학상 심사위원회) 문학상 심사위원은 7명(고문단 4명, 회원 3명)이며, 회원 심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당회 연도로 한다.
2. (수상자 대상) 문학상 수상자는 등단 10년 이상, 작품집 3권이 상 발간한 사람으로, 부산지역의 기독교 문화과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3. (수상자 제출자료) 수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개인 약력과 사진
 - 2) 개인 작품집 및 저서
 - 3) 문단 및 교계 활동 사항
 - 4) 대표 작품

제31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 본회는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을 두며 주간은 회장이 임명하고 주간은 편집국장과 편집위원을 임명한다.
 - 1) 편집장 1명
 - 2) 편집위원 5명
 - 3) 편집실무위원 약간 명
2. (편집위원의 업무) 본회 편집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주간: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발간업무를 주관한다.
 - 2) 편집장: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 3) 편집위원: 편집장을 도와 편집 활동을 한다.
3. 사무국장은 편집회원으로 한다.
4. 신인상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임기는 임원에 준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회칙 개정) 본회 회칙은 이사회에서 회칙 개정을 현의하여 임원 및 고문단연석회의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 결의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회칙제정 1989년 10월 16일

회칙제정 1996년 12월 29일

회칙제정 1998년 01월 13일

회칙제정 2000년 01월 24일

회칙제정 2002년 01월 29일

회칙제정 2004년 01월 26일

회칙제정 2012년 12월 20일

회칙제정 2019년 02월 28일

회칙제정 2023년 07월 27일

회칙제정 2024년 05월 31일

■ 연회비 안내

회 장 50만원

부 회 장 20만원

고 문 10만원

사무, 재무, 편집장, 이사, 감사 10만원

회 원 5만원

■ 신입회원 입회비 안내

입회가입비 10만원 연회비 5만원 (총 15만원)

■ 납부계좌 안내

부산은행 101-2042-4502-05 부크문 모정희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2025년 임원조직

■ 임원조직

회 장 송정우

부 회 장 권영숙, 김혜영, 김경희, 조현숙, 최방식

사무국장 감윤옥

재 무 모정희

서 기 이승훈

고 문 양왕용, 안유환, 허성욱, 박춘덕, 류정희, 박정선, 신선
공기화, 최귀례

명예고문 한영자, 김인환, 남송우, 하현식

상임고문 양왕용, 안유환, 류정희, 박정선

감 사 권갑숙, 명인숙

이 사 감윤옥, 김진기, 김해용, 남순, 노장현, 모정희, 백성기,
변도우, 성윤자, 손정란, 송순임, 윤현수, 전진경, 최만공,
한인환,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편집부

주 간 박정선

편 집 장 양윤희

편집위원 공기화, 권갑숙, 명인숙, 송순임, 송정우, 조현숙, 최방식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주소록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김윤옥	48089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28, 104동 1303호 (동부울림팍타운)	mother88888@hanmail.net	010-9876-2954
강대중	46221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709 번길 15 가동 401호(서울 빌라)	lobby@daum.net	010-9815-9191
강신구	78765 부산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1로 22 113동 1306(명지 두산위브포세이둔)	k1945819@hanmail.net	010-9932-4810
강연조	49116 부산시 영도구 중리로 32 (국제마미뉴비치타운)106동801호		405-8336 010-2265-8336
강위석	46994 부산 사상구 양지로 3,3-310호 (대성아파트)	kws3661@daum.net	010-3868-3399
공기화	48505 부산 남구 용소로 64번길 138, 201호(삼정그린타운)	salomkong@naver.com	010-4580-2930
곽병길	46044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해송1로33 비스타동원2차 209동 701호	bkkwak8420@hanmail.net	010-6769-8420
구애순	50920 김해시 분성로 288번길 29-5	tjs20010@daum.net	010-4666-0045
권갑숙	46061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26번길 22 3층	kkabin2000@hanmail.net	010-8553-3947
권영숙	48436 부산시 남구 못골번영로 56번길 4 (대연5동)	youngsukorea@hanmail.net	010-4093-6120
김경희	47747 부산시 동래구 문화로 15, 101동 902호 (명륜동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1차)	wj2778@korea.com	010-3568-6250
김금아	49360 부산 사하구오작로 138 (과정동 동아파크맨션)706호	hinsler@hanmail.net	010-5455-2565
김민주	51124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14 106동 502호 엔에이치에프@ 창원대산1단지	goldkim1575@hanmail.net	010-6886-1838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김복단	47571 부산 연제구 고분로270 센텀 수영강 푸르지오 101동 904호	bdkim0105 @naver.com	010-2823-9747
김복임	55714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윗길 147	maim3938 @naver.com	010-2544-3938
김숙자	47553 부산시 연제구 과정로 343번길43 연산자이아파트 109동402호	Jinribub @naver.com	010-7209-5288
김속희	49325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 3번길 64호 1동 209호		010-4547-9974
김은희	46605 부산시 북구 덕천로 234번길 47, 502동 1207호	maeum5454 @naver.com	010-5695-1638
김 정	47141 부산진구 동평로 173 현성휴포레 시티즌파크 103동 803호	jjkim8 @hanmail.net	010-2836-4542
김정후	11453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200, 104동1101호 (중흥스클레스)	ccahookim @hanmail.net	010-6397-0577
김지수	47813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245번길 31		010-9150-4626
김진기	48103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468번 나길 49	Jinkekim @naver.com	010-5550-8308
김해용	46214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076-1	Duri0208 @hanmail.net	010-5499-7740
김혜영	48424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142, 105동 308호 (삼익그린타운)	khy2121 @hanmail.net	010-2670-2188
김형석	48222 부산 수영구 수영로 741번길 20. 105동 1505호 (수영동,현대)	hs24gold @hanmail.net	010-2559-9417
남 순	48110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80, 101동 2303호 (좌동 한라아파트)	nssky99 @naver.com	010-9875-0087
남순백	47575 부산시 연제구 과정로 74번길 103동 402호 (선경아파트)	9912608 @hanmail.net	010-3480-9707
노장현	48157 부산 부산진구 당감1동 백양관문로104 (국제백양아파트8동503호)	roh1934 @hanmail.net	010-2832-2973
류정희	47865 부산 동래구 사직로56 (사직동)	poet5042 @hanmail.net	010-5042-5906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명인숙	48097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41 (중동롯데캐슬비치)101-807	aud0113 @hanmail.net	010-4719-2012
모정희	48047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382 (재송동 센텀피오래) 105-2005	sns mama @hanmail.net	010-2309-9348
박경영	48044 부산시 해운대구 삼어로 207 104동1904호(대우금사아파트)	parkky0212 @hanmail.net	010-3356-7360
박상복	48091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117 대우 마리나107동 401호	dasann7 @hanmail.net	010-3797-0559
박인자	47613 부산시 연제구 봉수로 15, 2동 205호 (연산동 한독아파트)	mama1009 @daum.net	010-9969-3593
박정선	48080 부산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117 (좌동롯데2차아파트)201동1904호	2050jsp @hanmail.net	010-2561-1221
박춘덕	48272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754 103동 1803호 센텀비스타동원1차	cdparks @daum.net	010-3596-9339
박희두	48453 부산 남구 수영로 175 부산성소병원	parkhd46 @hanmail.net	010-4554-5181
배상호	49232 부산시 서구 까치고개로 160번길 37 (아미동2가 몽포배상호문학기념관)	munye-bsh @hanmail.net	010-5511-6707
배혜숙	48516 부산 남구 분포로111, LG메트로시티113동1601호	poet0691 @Daum.net	010-3862-0691
백성기	49430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신번영로233 가락타운211동704호	skbaek20 @nate.com	010-3597-0169
변도우	48805 부산시 동구 초량로94-1 (쥬제에코)	dowbyun @gmail.ent	010-6747-7727
성윤자	50898 경남 김해시 삼계로 239 205동 306호 (삼계동 부영아파트)	yjseong @hanmail.net	010-2810-2136
손정란	48304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141, 102동 506호 (협진태양아파트)	sjl0212 @hanmail.net	010-2441-3393
송순임	48507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47번길 125 (대연동)대천유치원	56ssi @hanmail.net	010-3557-5622
송정우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707호	jwsongtass @gmail.com	010-3051-1094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신선	48086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 88, 1-101 (신동비치맨션)	sinsun0512 @hanmail.net	010-3836-5273
신정자	46518 부산 북구 양달로 9번길21 벽산강변아파트 112동 701호	s000920 @hanmail.net	010-9481-1153
신현숙	47868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129번길 62-12, 105동 1606호 (화신동영아파트)	shsook57 @hanmail.net	010-3243-8029
안유환	46296 부산 금정구 식물원로 64 (금정산에스케이뷰아파트)112동 1404호	ayh0715 @korea.com	010-3801-2305
양왕용	48104 부산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11, 106동 1301호 (현대아파트)	poyong43 @naver.com	010-3563-2604
양윤형	48726 부산 동구 중앙대로 514 (범일동한성기린프라자)A동1611호	yunhyung7 @hanmail.net	010-3851-4428
오윤형	48035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로 133, 102동 1402호 (센텀롯데캐슬)	oyoonh2020 @hanmail.net	010-8519-8331
원문선	48065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83번길 10 (우동롯데아파트)9동 1204호	wms142 @hanmail.net	010-9222-9626
유문경	49523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539번길 14	mkyoo7252 @gmail.com	010-4001-5285
유병기	47101 부산시 부산진구 성자곡로 67, 103동 1103호 (삼환아파트)	yubk111 @hanmail.net	010-8239-6630
윤춘식	46945 부산시 사상구 삼덕로 71길 (덕포동 404-8) 브니엘신학대학	latintimes @hanmail.net	010-4225-1664
윤평원	47707 부산시 동래구 우장춘로 108번지 12	sandolyoon @naver.com	010-9661-3208
윤현수	48577 부산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26번길45-3 101동 210호 옹호동 대광타워	yhs201 @hanmail.net	010-6562-2411
이기언	49207 부산시 서구 꽃마음로 57 금호어울림아파트 101동 1003호	gelee @dau.ac.kr	010-2560-3498
이경옥	49316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11, 당리동 반도보라아파트 102동 806호	ky1159 @hanmail.net	010-4571-5259
이귀미	49430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하신변영로233 가락타운 211동 704호	skbaek20 @nate.com	010-3597-0169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이귀선	46228 부산시 금정구 두실로41 로얄캐슬 902호	l-jundosa@hanmail.net	010-7550-1193
이둘자	48532 부산시 남구 홍곡로 360 대연파크 푸르지오 112동 1604호	ree6997@hanmail.net	010-9312-6997
이선화	49079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26 (영선동37가)	a01045548926@daum.net	010-4554-8926
이수일	49326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91번길 5, 나동204호	suil306@naver.com	010-5526-3651
이승훈	47338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238번길5 삼정그린코아 102동 1502호	qa0691@naver.com	010-4853-7074
이영숙	46058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 8번길51 이진테마빌 101동 211호	dldudtnr0626@naver.com	010-5230-0433
이옥순	49393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109 5동 203호 (신평한성임호아파트)	oksnlee@hanmail.net	010-3860-7180
이옥진	48064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가길 91 셉템마리나 101-1003	soup3927@hanmail.net	010-2527-8445
이용수	46308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5 A동105호 (부곡동 협진태양아파트)	yongsu.0521@hanmail.net	010-6387-5537
이준우	49520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473, 110동 2301호 (다대동 현대 아파트)	Photojun0077@hanmail.net	010-8507-0077
이창희	46044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1길5-6일광아파트 305호	w2820691@naver.com	010-4858-1550
이효정	48075 부산시 해운대구대천로 103번길47, 119동 303호	milktea2021@naver.com	010-6240-3447
임병주	48078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길 29 대동타운 514동 1801호	newlife3217@naver.com	010-3425-3217
전진경	47257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96번길 11	pfjeon@hanmail.net	010-3594-5516
전섭태	48430 부산시 남구 대연5동 1489-8 효원빌라 402호	setajeon@naver.com	010-2470-0766
정말숙	48081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8, 408동 1804호 (뜨란채아파트)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정명진	48936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32번길 7 대림빌딩 503호	sora1868 @hanmail.net	010-9332-6250
정신자	48516 부산시 남구 분포로113 238동 2303호 lct메트로		010-3595-3534
정연원	49088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8 한라아파트 2007	mysky999 @hanmail.net	010-8510-5378
정현옥	48091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 105동 1106호 (우동 경남마리나)	hoj5491 @hanmail.net	010-9326-5491
조광순	46772 부산시 강서구 명지 국제7호110 더힐 시그니처 103동 1601호	rudijo02287 @naver.com	010-8459-1277
조의홍	48221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741번길 46 202동 2405호		010-2812-7397
조현숙	48080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99번길 22(경남 아너스빌) 110동 902호	shiree98 @hanmail.net	010-3853-9091
최귀례	4809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30 (해운대역소디움)102-3002호	countrycha @naver.com	010-4283-4456
최만공	47571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280 부산센텀푸르지오 103동 402호	cmg2027 @hanmail.net	010-4260-7409
최방식	48559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26 현대아이파크아파트 103동 2304호	yddchoi @hanmail.net	010-5041-7380
최훈조	48057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30번길 135 재송동 안성타워맨션 407호	veryhappy0502 @hanmail.net	010-5553-6046
한인환	48432 부산시 남구 수영로 345 (대연동 대연힐스테이트 푸르지오) 113동 1503호	linwhan09 @hanmail.net	010-2635-1427
허성욱	47529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39, 310동 2502호(거제동, 레이크윌티)	heoswook @naver.com	010-3562-0149

2025년 회원 게시판 동정

❖ 회원 동정

- 김혜영 : 오륙도 문학상 본상 (2024.12.09)
- 정선자 : 오륙도 문학상 대상 추가 (2024.12.09)
- 양왕용 : 2024년 제4차 시민문예강좌(작고문인재조명) (2024.12.13)
- 손정란 : 문심 우수상 (2024.12.18.)
 새부산시협 작품상 (2025.03.12)
- 양유희 : 영호남문인협회문학상 본상 (2024.12.24)
- 최귀례 : 부산크리스천문학상 (2024.12.26)
- 최경희 : 소천 (2025.01.24)
- 故김중헌 회장(16대) : 2025년 제1차시민문예강좌(작고문인재조명)
- 대구기독교문인회 문학 강연회 임원진 참석 (2025.04.26)
- 이귀선 : 하나인교회40주년 기획 초대작가전 출품 (2025.04.27.~06.15)
- 김경희 : 세계 예술문화 아카데미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
- 유문경 : 작곡발표회 부산문화회관 (2025.06.05.)
 - 성윤자 작사

❖ 신간 안내

- 남 순 『꿈꾸는 장어』 동화 집 『아동문예』
- 손정란 『꿀값』 시집 『모든 포엠』
- 이영숙 『그대 이름은』 소설 『바른 복스』
- 송정우 e book 『시간과 공간의 변주』
- 김복임 동화집 『꽃샘』 남원시 문화기금



편집후기

- 대구기독교문인회 초대작품을 게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부산크리스천문학의 외연 확장으로써 뜻깊은 일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권두에세이를 써주신 송정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올해의 작가 최방식 회원님과 특집 원고를 내주신 회원님들, 작품을 내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신인상에 유문경 선생님이 선정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고사항

- 부산크리스천문학이 격조 높은 문학지가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와 후원금 입금계좌는 맨 아래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산크리스천문학 제43호

등록번호 [부산, 사01034]

인쇄일 | 2025년 6월 15일

발행일 | 2025년 6월 20일

발행처 |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발행인 | 송정우

주간 | 박정선

편집장 | 양윤형

편집위원 | 공기화, 권갑숙, 명인숙, 송순임, 송정우, 조현숙, 최방식

인쇄처 | 세종문화사

출판등록 제02-01-96

주소 | 48964 부산시 중구 흑교로 71번길 12 (보수동2가)

전화 | (051) 463-5898, 253-2213~5 | FAX (051) 248-4880

이메일 | sjpl5898@daum.net(세종출판사)

ISSN 2384-3780

※ 이 책의 무단 전재 및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값 15,000원

정기구독료 및 회비 입금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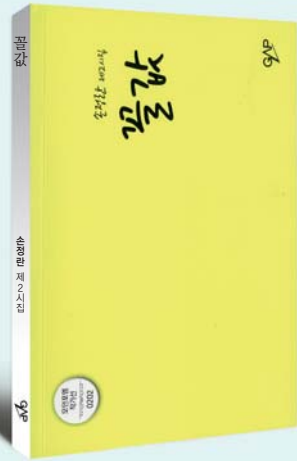
부산은행 101-2042-4502-05 부크문 모정희

꿀값

손정란 제2시집

- 시인. 수필가
- 부산 출생. 한양대학교(학사)
- 인제대 사회복지대학원 복지학 (석사)
- 백석대 대학원 박사과정(기독교 복지)

- 시집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암호를 푼다」 「꿀값」



모름지기 “태초에 빛이 있었느니라.”라는 성서(書)의 말씀 (logos)처럼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는 맨 먼저 진리의 표징 인 빛을 허락하였듯 ‘생명의 언어가 존재의 집’ 인 탓에 정신 작업의 종사자는 자기의 족적(足)을 남기는 존재이다. 까닭에 “아님, 나처럼 바람에 취해 혼자 춤추거나(흔들리는 꽃)”의 일면처럼 절대고독도 종종 절감될 것이나 ‘어미 잃은 낙타 긴 울음소리, 어딘가에 버려지는 나’ 일지라도 “사막에서 동행하던 낙타 물이꾼이 사라졌다/얼굴이 시리도록 기다려보지만/바람에 실려가 그 어딘가에 숨었을까/모래 속 고요가 두렵지 않은가/사막의 장미로 굳어 기다려서는 안 될 꿈이다(사막의 장미)”라는 기다림의 그 허망함도 호흡을 가다듬고 묵언의 응시(視)로 가늠할 일이다.

— 시집 평설 중에서
엄창섭(가톨릭관동대 명예교수, 『모던포엠,주간』)

송정우 산문집(e-Book)

시간과 공간의 변주



- 시집: 『희망을 다림질하다』(세종출판사, 2015)
『비상구를 찾다』(청하, 2019)
『계절풍이 분다』(전망, 2022)
- 국영문시화집: 『꽃피운 한 걸음』(2021)
- 전기: 『청보리 언덕의 페이지』(지평, 2014)
- 역서: 『짧은 사랑 긴 여로』(경당, 1998)
- 산문집: 『길에 창을 내다』(좋은땅, 2020)
『시간과 공간의 변주』
(교보문고 이퍼플, 2024)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문학과 함께 일상을 살아간다. 문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동한다. 작가는 시간과 공간을 변주하여 작품을 쓰고 독자는 그 시공간 속에 스며들어 문학하는 맛을 즐긴다. 또한, 삶 가운데 건강한 활동으로서의 걷기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시간과 공간, 걷기 미학에 대한 시와 소설을 탐색해 본다.

거리에서 아메리카노 커피 잔을 들고 가는 젊은이들을 많이 본다. 커피가 어느새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나의 문화가 된 커피에 대한 문학 작품과 음악을 산책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 해설평 중에서